R 871 | 2019. 10. |

농업 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

Promoting Overseas Private Investments for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e Sector

김종선 차원규 최지현 박차미 원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 871 | 2019. 10. |

농업 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

Promoting Overseas Private Investments for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e Sector

김종선 차원규 최지현 박차미 원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종선 | 부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2장, 제5~6장
차원규 | 부연구위원 | 제3~4장
최지현 | 명예선임연구위원 | 제5장
박차미 | 연구원 | 제2~3장
원지은 | 연구원 | 제3~4장

연구보고 R871
농업 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9. 10.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세일포커스(주)
I S B N | 979-11-6149-317-6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머리말

최근 정부는 북방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신북방정책'을 수립하면서 시장다변화, 4차 산업혁명, 에너지 및 물류망 구축 등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북방지역 국가는 거대한 농지와 풍부한 자원, 천혜의 기후를 바탕으로 한 높은 농업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산업 인프라 미흡, 비즈니스 환경의 열악,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우리 농기업과의 교역 및 투자가 빈번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방지역 국가의 해외투자유치 및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면서 우리 농기업의 새로운 시장 확보 및 진출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이 연구는 북방지역의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우리 농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과 해외투자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방지역의 농산업 여건 및 투자환경을 분석하였고, 진출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해외투자촉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등 많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았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북방지역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기업의 도움도 받았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에 기꺼이 응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연구를 계기로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9.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요 약

연구 배경과 목적

○ 최근 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과 해외농업자원개발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다양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해외에 진출한 한국 농기업은 사전 조사 부족, 기자재와 현지 인력확보의 어려움, 기타 행정 및 제도 절차 문제 등으로 낮은 현지정착률을 보임.

○ 본 연구는 농업 분야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 분석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 진출 투자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부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됨.

○ 본 연구의 목적은 북방지역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국내 농식품산업 민간기업의 해외투자실태를 분석하고 진출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세부 목적으로는 1) 북방지역의 농산업 여건, 해외투자환경 분석 및 북방지역 투자방향 설정, 2) 해외 진출 이전 단계, 진출 이후 단계 기업의 투자형태 및 문제점 분석, 3) 민간기업의 해외투자촉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 방법

○ FAO, World Bank, OECD, 헤리티지재단, 국제투명성기구,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외 기관의 통계자료 및 보고서 분석을 통해 북방지역 국가의 농업 현황, 투자환경 등을 파악함.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유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면담을 통해 지원사업 및 신고기업 현황과 실적을 파악함.

○ 해외 진출 이전 및 이후 단계 기업의 투자실태, 경영 성과, 현행 지원정책의 만족도 등의 분석을 위해 국내 및 국외(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면담 조사와 온라인 설문 조사를 병행함.

○ 그 외에도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정책 및 민간기업 진출사례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 원고를 위탁함.

주요 연구결과

북방지역 농업여건 및 투자환경

○ 북방지역 내 국가는 동부권(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 3성), 중부권(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서부권(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의 3개 권역으로 구분 가능함.

○ 동부권역 국가들은 주로 밀, 옥수수, 콩 등의 곡물을 생산하고 가공식품류는 수입에 의존함. 곡물 저장과 가공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부족한 경향이 있음. 향후 곡물 생산, 식품(곡물) 가공, 물류(곡물저장 등) 등의 분야에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중부권역 국가들은 밀, 면화, 토마토, 포도 등을 주로 생산하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대규모 농산물 생산 및 수출입 국가를 중심으로 과일류를 수출하고 밀, 설탕, 식품류를 수입함. 농업생산 및 물류 인프라와 종자, 수자원관리, ICT분야의 가치사슬이 열악한 상황을 보이며, 향후 유망 투자분야는 과일 및 채소류 가공, 종자산업, 시설원예 기자재 등이 있음.

○ 서부권역 국가들은 밀, 포도, 감자, 축산물 등을 주로 생산하며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중심으로 해바라기씨, 밀,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음. 농업생산 및 물류 인프라와 종자, 비료, 농기계 등 전반적인 가치사슬이 열악하며, 향후 농기자재, 축산물 가공 등의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이상의 국가의 농업여건과 투자환경을 고려하여 동부권에서는 러시아(연해주), 중부권에서는 카자흐스탄, 서부권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거점 국가로 선정하였음.

국내외 농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현황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은 국내 농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농식품산업의 저변 확대 및 해외 식량 확보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크게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분류됨. 융자사업은 진출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금지원사업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금액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제공함. 보조사업은 진출 대상국가의 환경

조사지원, 인력양성,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됨. 2019년 기준 융자사업 총예산은 119.7억 원, 보조사업 예산은 31.6억 원임.

○ 2018년 12월까지 해외농업 활동을 신고한 기업은 29개국 184개 기업에 해당함. 전반적으로 남방지역에 진출하여 곡물을 취급하는 생산형 기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생산형, 곡물 취급기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2018년 12월 기준, 한국은 해외에 9만여 ha의 재배면적을 개발하고 62.2만 톤의 농산물을 생산 및 확보하여 4.7만 톤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점차 해외농업개발 실적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해외농업개발 신고업체 관리체계 부재, 해외농업개발 현황, 정보수집 등 최근 동향 분석 및 자료수집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식량안보 보장과 자국 농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농림수산성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의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상담창구 운영, 자금조달 지원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일본은 민관협력, 산학관협력 등 투자 주체 간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하고, 자금융자, 무역보험 등 간접, 측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실태 분석

○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 진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184곳을 대상으로 사업지속성을 분석하고, 미신고기업과 신고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진출 이후 및 진출 이전 단계 기업 5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Kaplan-Meire(1958)의 생존 분석 추정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의 생존율을 진출지역별, 진출유형별, 투자형태별, 투자금액별로 분석해 보면, 기타지역, 생산형, 합작투자형, 소규모 투자금을 투입할 경우에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음. 북방지역 신고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생산형, 단독 진출, 대규모 투자금 투입 시에 높은 생존율을 보였음. 신고기업의 평균 사업 지속기간은 5.9년으로 진출 6년 후에는 대개의 진출 신고기업이 안정화 및 현지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음.

○ Cox 비례위험회귀모형(1972)에 따라 기업의 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사업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방지역 진출기업이나 정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더 높은 사업지속성 혹은 생존율을 보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 설문조사 결과, 현재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북방기업의 경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생산형 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시기별로 비교하면, 2010년 이전 진출기업은 현지에서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2011년 이후 진출기업의 경우 다변화된 진출 방식 및 취

급품목을 기반으로 생산 및 가공된 제품을 현지 시장과 인근 수출시장으로 판로를 확보하여 사업성을 높이려는 경향을 보임.

○ 또한, 북방지역 진출 활동기업들은 전체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긴 준비 기간과 낮은 투자금액을 들여 해외농업개발 활동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투자 진출과 직접 운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평균 매출액은 농축산물 취급, 생산형 진출기업이 높았으나, 초기 투자금 대비 매출은 농자재 취급, 제조가공형 진출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 북방지역 진출 활동기업들은 정부 지원사업 중 정보교류 지원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융자 지원사업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향후 정책 지원사업 개선사항으로는 세부적인 기업 수요파악, 사업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등이 있었음.

○ 북방지역 진출 활동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인허가 등을 위한 법, 제도, 규제 등 행정절차 극복',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 '해당 국가의 시장정보 미흡', '유통 및 인프라 부족' 등이 있었음. 특히 최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 침체로 물류 접근성 및 유통시장 확보의 어려움을 공통으로 제시함.

○ 철수 기업의 경우 전체 응답 기업의 절반 정도가 제조·가공형 기업에 해당하였으며, 그 외에도 농축산물, 농자재 등을 취급하였음.

○ 철수 기업의 주된 사유로는 사전조사 부족으로 인한 실이익 미미, 농작물 피해, 가격과 판로문제, 현지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 형성 문제 등이 제시되었음.

○ 진출 이전 기업의 경우 농자재를 취급하는 제조가공형 기업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단독투자, 현지 파트너와의 공동경영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응답 기업 중 81%가 미신고기업에 해당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사전 정보 미흡, 필요성 부족 등이 있었음.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전체 진출 이전 기업 응답 수의 27.3%에 불과하였음. 그중, 기업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지원사업은 정보교류 지원사업이었음.

○ 사업 계획 단계의 애로사항은 '미흡한 시장정보',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단기간의 제한적인 정부지원을 통한 정보제공이 아닌 상시 지원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현지 지원센터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았음.

북방지역 농업 분야 민간투자 촉진 방안

○ 북방지역 농업 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는 북방지역 권역별 거점 국가 육성,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개선,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 구축, 농업투자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이 있음.

○ 앞서 선정된 권역별 거점국가는 러시아 연해주(동부권), 카자흐스탄(중부권), 우크라이나(서부권)이며, 각 권역의 투자 유망 분야를 고려하여 ODA 사업(민관협력 포함)과의 연계, 농업투자협력지원센터(가칭) 설치 등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거점 국가의 권역 내 유통과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개선과 관련해서는 융자사업의 안정적, 전문적 관리를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책자금으로 출자방식을 변경하고, 보조사업의 운영주체 간 업무분담 명확화, 보조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 강화에 기반을 둔 전반적인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함.

○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경영활동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파악과 더불어,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와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농업투자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외농업투자 관련 주체 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산학관연 협력체계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국내외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한국 농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해외농업 민간투자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함.

ABSTRACT

Promoting Overseas Private Investments for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e Sector

Research Background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made efforts to promote overseas investment and capacity building of the private sector based on the New Northern Policy and Overseas Agriculture Development Policy. However, Korean agricultural companies with experiences of overseas investment have low settlement rates due to the reasons such as insufficient preliminary investigation, lack of accessibility toward local resources, including human resources and other 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burd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investment by the Korean agri-food companies that are planning to enter or already entered the Northern countries, and to propose overseas agriculture development policies and strategies to activate private investment in the Northern countries.

Research Methodology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agriculture and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Northern countries, the research team analyzed the statistical data and reports from multiple institutions such as the FAO, World Bank, OECD, Heritage Foundation, International Transparency Organization and Korea Export-Import Bank. For the investigation of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supported programs and companies, the research team

conducted several interviews with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Korea Overseas Agro-Resources Development Association. Also, the research team had a survey to ask the status of overseas investment, the performance of each company, policy satisfaction levels and other detailed information from the companies in the various stages of overseas agriculture investment. The survey has been conducted simultaneously by on-site visit (Uzbekistan, Kazakhstan, and Kyrgyzstan) and the online. Moreover, the external experts' research to analyze Japan's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ivate investment cases in the agro-food industry was conducted.

Findings

The Northern countries can be divided by three groups: East region (Far East Russia, northeast China), Central region (Kazakhstan, Uzbekistan, Kyrgyzstan, Turkmenistan, Tajikistan, Mongolia) and Western region (Ukraine, Belarus, Armenia, Azerbaijan, Georgia, Moldova). Countries in the East region mainly produce grain(wheat, maize, soybeans), and the industries such as grain production, food processing and logistics can be a potential investment field. Countries in the Central region is famous for its production and export of the crops like wheat, cotton, tomatoes, and grapes. The major sectors which can attract investments are food processing (fruit and vegetable), seed industry and horticulture infrastructure. Lastly, in the Western region, crops such as wheat, grapes, potatoes, and livestock products are the main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investment for the agricultural facilities and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re highly

expected. Considering the feature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nvestment environment, Russia (East region), Kazakhstan (Central region), and Ukraine (Western region) can be a hub-country for each regio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Korea has supported the expansion and settlement of Korean private Agri-food companies in other countries. The support program is classified mainly into a loan program and an assistance program. A loan program is designed to help the stable operation of Korean private companies abroad with the low interest (2%) and extended repayment period (10 years). An assistance program consists of environmental surveys for overseas investm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technical support. As of 2019, the total budget for the loan program was 119.7 billion KRW and the budget for the assistance program was 31.6 billion KRW. Also, in 2018, 184 companies declared overseas agricultural activities in 29 countries. In the case of Northern countries, the proportion of production-type firms with grains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with the other regions. In 2019, Korea developed 9 million ha of farmland abroad, produced 622 thousand tons of agricultural products, of which 47 thousand tons were imported to Korea.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s support program for overseas agriculture development lacks a monitoring system which can track the performance of supported companies and recent trend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system. Concerning this problem, the Japanese government emphasizes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academia and the private sector and focuses on indirect supports such as consulting service, trade insurance and loan supports.

To analyze the status of overseas investment of Korean agricultural

enterprises, the research team analyzed the business continuity of 184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report companies, and surveyed 58 companies in the post- and pre-investment stage including both unregistered and registered companies. Based on Kaplan-Meire survival analysis (1958) by country, firm type, investment type and scale, a firm with production-type, single entry and large scale of investment have a higher survival rate in the Northern countries. To see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y and corporate features on business continuity, the research team conducted the analysis based on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1972).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enterprises in Northern countries and enterprises supported by government policy tend to have a higher business continuity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questionnaire survey, most of the enterprises, which currently have a business in the Northern countries, are the production-type firms cultivating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Compared with the period, the companies entering Northern countries before 2010 had a strong tendency to produce agricultural products on their own and bring them into Korea. However, the companies entering the market after 2011 tend to improve their business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with diverse ways of entry, business type and marketing. Also, compared with the other regions, the companies in Northern countries tend to have an extended preparation period and smaller investment scale. Moreover, they prefer single entry and direct management system for their overseas business. Regarding the government-support program, the primary needs of the companies were ‘reflection of detailed needs from the private sector’ and ‘expansion of the range of support program and reduction of conditions

and restrictions.' Most of the companies in the Northern countries insist that they have difficulties due to the administrative burden, lack of business fund, market information and infrastructure. Notably, the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toward the Russian Federation has affected the overall economic depression in Northern countries, which hinders Korean companies from actively engaging in overseas agriculture development.

In the case of companies that withdrew their business, most of them were processing-type firms. Regarding the reasons for withdrawal, the respondents answered 'lower profitability and productivity,' 'lower credibility of local partner companies,' 'price and selling channels of their products.'

Most of the companies, preparing for their entry to the Northern countries, are engaged i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farm materials. 81% of them were not registered as the overseas development companies and most of them were not aware of the registering system. Further, even if they knew about the system, they did not think it is necessary to be registered under the system. The primary difficulties they faced were a lack of market information and business funds. Also, most of the companies wanted continuous governmental supports based on the on-site supporting center.

The major tasks for promoting overseas private investment in the Northern countries include fostering hub-countries in each region, improving the government-support program for overseas agriculture development, establishing overseas agriculture 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s, and stabilizing agricultural investment cooperation systems. Firstly, based on the three hub countries representing each region, the alliance with ODA projects and the establishment of 'on-site supporting center for agriculture investment and cooperation (tentative)' should be

considered. This can help to drive private investment from companies and reinforce the function of hub-countries as the center of logistics among the countries in each region. Secondly, to improve the government-support program for overseas agriculture development, the financing source should be changed into the FAFF fund of funds from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and Finance Service for the stable and professional management of a loan support program. Also, the role and duties of each institution should be clarified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 subsidiary program with the overall growth of the scale of the support program.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overseas agriculture 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vide timely and accurate information and statistics based on regular monitoring and need assessment from the companies. Lastly, to stabilize agricultural investment cooperation systems, the role of each actor should be clarified, which leads to the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academia and the private sector such as in the case of Japan.

Researchers: Kim Jongsun, Cha Wonkyu, Choi Jihyun, Park Chami, Won Jieun
Research period: 2019. 1. ~ 2019. 10.
E-mail address: sun589@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방법 및 추진체계 ····· 5
3. 선행연구 검토 ····· 9

제2장 북방지역 농업여건 및 투자환경 ····· **13**

1. 북방지역 권역별 농업여건 ····· 15
2. 북방지역 투자환경 ····· 26
3. 북방지역 투자 현황 ····· 34
4. 북방지역 농업투자 유망 분야 및 거점국가 ····· 37

제3장 농업 분야 민간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현황 ····· **41**

1. 한국의 농업 분야 해외진출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 43
2. 일본 해외농업개발 지원정책 사례 ····· 60

제4장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실태 분석 ····· **77**

1. 해외농업 진출 실태 분석 개요 ····· 79
2.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의 사업지속성 분석 ····· 80
3. 해외농업 진출 실태 설문조사 ····· 96
4. 시사점 ····· 111

제5장 북방지역 농업 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 **115**

1. 정책추진 방향 ····· 117
2. 정책추진 방안 ····· 118

제6장 요약 및 결론 ····· **135**

부록

1.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신청서 양식 ····· 139
2. 해외농업 진출기업 설문조사표 ····· 140
3. 해외농업개발 기업 면담조사 결과 ····· 153

참고문헌 ····· **173**

표 차례

제1장

〈표 1-1〉 주요 연구 방법 ····· 7

제2장

〈표 2-1〉 북방지역 동부권 주요 농업 지표(2017) ····· 16
〈표 2-2〉 북방지역 동부권 주요 작물 생산량(2016) ····· 16
〈표 2-3〉 중국 동북3성 주요 농산물 수출입액(2018) ····· 17
〈표 2-4〉 러시아 주요 농산물 수출입액(2018) ····· 17
〈표 2-5〉 북방지역 중부권 주요 농업 지표(2016) ····· 18
〈표 2-6〉 북방지역 중부권 주요 농산물 생산액(2016) ····· 19
〈표 2-7〉 북방지역 중부권 주요 농산물 수입액(2016) ····· 19
〈표 2-8〉 북방지역 중부권 주요 농산물 수출액(2016) ····· 19
〈표 2-9〉 북방지역 서부권 주요 농업 지표(2016) ····· 21
〈표 2-10〉 북방지역 서부권 주요 농산물 생산액(2016) ····· 22
〈표 2-11〉 북방지역 서부권 주요 농산물 수출액(2016) ····· 23
〈표 2-12〉 농업비즈니스환경(EBA) 분야별 측정 항목 ····· 24
〈표 2-13〉 북방지역 국가의 농업 비즈니스 환경(EBA, 2017) ····· 24
〈표 2-14〉 북방지역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 (2017) ····· 26
〈표 2-15〉 북방지역 국가별 국가위험분류(CRC, 2019) ····· 28
〈표 2-16〉 북방지역 국가의 부패인식지수(CPI, 2018) ····· 29
〈표 2-17〉 북방지역 국가의 경제자유지수(EFI, 2019) ····· 30
〈표 2-18〉 북방지역 국가의 비즈니스 활동지수(Doing Business, 2019) ····· 31
〈표 2-19〉 북방지역 국가의 물류성과지수(LPI, 2019) ····· 33
〈표 2-20〉 북방지역의 해외직접투자(FDI) 현황 ····· 35
〈표 2-21〉 한국의 對북방지역 농림어업 분야 해외직접투자(FDI) 현황 ····· 36
〈표 2-22〉 북방지역의 농업특성 및 투자 유망 분야 ····· 38
〈표 2-23〉 북방지역의 농업특성 및 투자 유망 분야 ····· 39

제3장

〈표 3-1〉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및 사업 시행 주체 ····· 44
〈표 3-2〉 연도별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 융자사업 예산 및 실적 추이(2009~2019) ···· 45
〈표 3-3〉 연도별 농식품 해외 진출 지원 융자 실적(2009~2018) ····· 46
〈표 3-4〉 연도별 농식품 해외 진출 지원 보조사업 예산 및 실적 추이(2009~2019) ··· 47
〈표 3-5〉 조사지원 사업 실적(2009~2018) ····· 48
〈표 3-6〉 2018년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수 대비 실적보고 기업 수 현황 ····· 53
〈표 3-7〉 신고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실적 추이(2009~2018) ····· 54
〈표 3-8〉 신고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품목별 확보량(2018년 기준) ····· 54
〈표 3-9〉 신고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진출 국가별 실적 추이(2017~2019) ····· 56
〈표 3-10〉 신고기업의 진출률, 생존율, 실적보고율, 정착률에 대한 정의 ····· 58
〈표 3-11〉 일본 정부부처의 해외농업개발 단계별 지원내용 ····· 68
〈표 3-12〉 일본의 주요 기관별 민간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현황 ····· 69

제4장

〈표 4-1〉 Cox 비례위험회귀모형 분석결과 ····· 95
〈표 4-2〉 조사방법 및 개요 ····· 97
〈표 4-3〉 설문조사 응답 기업 분포 ····· 98
〈표 4-4〉 초기투자금 대비 2018년 매출액 비교 ····· 104
〈표 4-5〉 지역별, 유형별, 주요품목별 평균 수익률 비교 ····· 105
〈표 4-6〉 정부 지원사업 참여율 및 만족도(중복응답) ····· 106
〈표 4-7〉 정부 지원사업 참여율 및 만족도(중복응답) ····· 110

제5장

〈표 5-1〉 권역별 거점국가 육성 과제 및 ODA 연계 분야 ····· 119
〈표 5-2〉 한국의 북방지역 농업ODA 추진 현황(2010년 이후) ····· 121
〈표 5-3〉 관련 기관별 해외농업 민간투자 지원 업무 ····· 130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북방지역 권역별 구분 ····· 6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 8

제2장

〈그림 2-1〉 북방지역 중부권 농산물 수출입 현황(2016) ····· 20
〈그림 2-2〉 북방지역 서부권 농산물 수출입 현황(2016) ····· 22

제3장

〈그림 3-1〉 연도별 신고기업 건수 추이(2008~2018) ····· 49
〈그림 3-2〉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분포 ····· 50
〈그림 3-3〉 지역별 신고기업 진출유형 분포 ····· 51
〈그림 3-4〉 지역별 신고기업 대상작물 분포 ····· 52
〈그림 3-5〉 일본의 해외투자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 ····· 61
〈그림 3-6〉 일본의 글로벌 식품 가치사슬 구축 개념도 ····· 63
〈그림 3-7〉 일본의 글로벌 농식품 가치사슬 전략 추진체계 ····· 67

제4장

〈그림 4-1〉 진출기업의 진출연도와 신고연도 간 차이 분포 ····· 84
〈그림 4-2〉 철수기업의 진출연도와 폐업연도 간 차이 분포 ····· 85
〈그림 4-3〉 신고기업의 생존함수 추정 ····· 86
〈그림 4-4〉 신고기업의 지역별 생존함수 추정 ····· 86
〈그림 4-5〉 신고기업의 유형별 생존함수 추정 ····· 87
〈그림 4-6〉 신고기업의 투자형태별, 생존함수 추정 ····· 88
〈그림 4-7〉 신고기업의 투자금액별 생존함수 추정 ····· 89
〈그림 4-8〉 북방지역 신고기업의 유형별 생존함수 추정 ····· 90
〈그림 4-9〉 북방지역 신고기업의 투자형태별 생존함수 추정 ····· 91

〈그림 4-10〉 북방지역 신고기업의 투자금액별 생존함수 추정 ····· 92
〈그림 4-11〉 해외농업개발 진출 활동기업 분포 ····· 99
〈그림 4-12〉 전체 진출기업 대비 북방지역 진출기업의 진출유형 및 주요 취급품목 비교 ···· 100
〈그림 4-13〉 북방지역 진출기업 시기별 주요 취급품목, 진출형태, 진출목적 비교 ·· 101
〈그림 4-14〉 지역별 평균 진출 준비 기간 비교 ····· 102
〈그림 4-15〉 지역별 투자유형 및 운영방식 비교 ····· 103
〈그림 4-16〉 지역별 평균 초기 투자금액 비교 ····· 104
〈그림 4-17〉 진출이전 기업과 진출이후 활동기업 간 진출유형 및 주요 취급품목 비교 ···· 108

제5장

〈그림 5-1〉 북방지역 해외 농업투자 활성화 방향 및 추진과제 ····· 118
〈그림 5-2〉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체계 ····· 125
〈그림 5-3〉 산학관연 농업투자협력 모델 ····· 129

약어표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부패인식지수
CRC	Country Risk Classifications	국가위험분류
EBA	Enabling the Business of Agriculture	농업비즈니스환경
EFI	Economic Freedom Index	경제자유지수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투자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RP	Gross Regional Product	지역총생산
INPIT	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 국제협력은행
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일본무역진흥기구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LPI	Logistic Performance Index	물류성과지수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PP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평가지수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PRAI	Principl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	책임 있는 농업투자원칙
KAPEX	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 성과 확산사업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 정부는 유라시아와 동북아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로 미래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2017. 8. 25.)하고, 북방경제협력 9-Bridge 추진 방안[1]을 마련하였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제2차 회의(2018. 6. 18.)를 통해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5개)과 중점과제(14개)를 제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2018. 12. 12.)에서 12번째 중점과제인 「신북방 농업 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북방 농업 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진출지역을 중앙아시아와 흑해지역으로 확대하고, 진출 분야를 스마트 팜, 농기자재, 곡물유통 등으로 다각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맞춤형 스마트 팜 모델 개발, 우수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의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지역별로 추진과제를 차별화하여 흑해지역은 민간 주도의 곡물수출터미널 확보와 국제곡물유통 전문교육 등을 통해 미래 식량자원 공

1) 9-Bridge 전략은 동방경제포럼(2017. 9. 7.)에서 제안한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의 한-러 협력사업 추진 전략임.

급기반을 마련하고, 극동지역은 채소와 축산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하며 기 진출 기업의 경영안전을 도모하는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김종선 외 2018a).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목표로 매 5년 단위로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 희망기업에 대해 정보제공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진출 초기 기업에 대해 진출자금 융자지원, 정착 단계의 기업을 위해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영농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농기업의 해외 진출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39개 농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709억 원, 보조 231억 원의 예산을 집행[2)]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북방 정책과 해외농업자원개발 정책의 핵심은 민간기업의 해외투자를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이며, 정부의 역할은 이를 위한 외교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북방 정책의 추진 전략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해외농업개발로 정책을 집중하여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다양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결국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간의 교류·협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책당국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농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수가 적고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2008년~2018년 말 기준)을 보면, 총 179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사업 신고를 하였으나, 이중 52개 기업만이 활동 중에 있다. 특히 북방지역에는 51개 신고 기업 중 14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8). 이와 같이 현지 정착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해외 진출 농기업의 현지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2) 해외농업개발 사업자에게 해외농업 진출 시 필요한 농업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해외투자환경조사, 컨설팅, 정보제공 및 워크숍 등을 위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조사·분석이나 대응 부족, 농기자재와 인력확보의 어려움, 현지의 행정적 지원의 부족, 기업의 진출역량 부족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농림축산식품부 2017), 보다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한 자료가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농업 분야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고 현지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부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방지역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국내 농식품산업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실태를 분석하여 민간기업의 해외투자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으로는 1) 북방지역의 농산업 여건 및 해외투자환경을 분석하여 북방지역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고, 2) 해외 진출이전 단계 및 진출이후 단계의 해외 진출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3) 북방지역 농업 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 범위, 방법 및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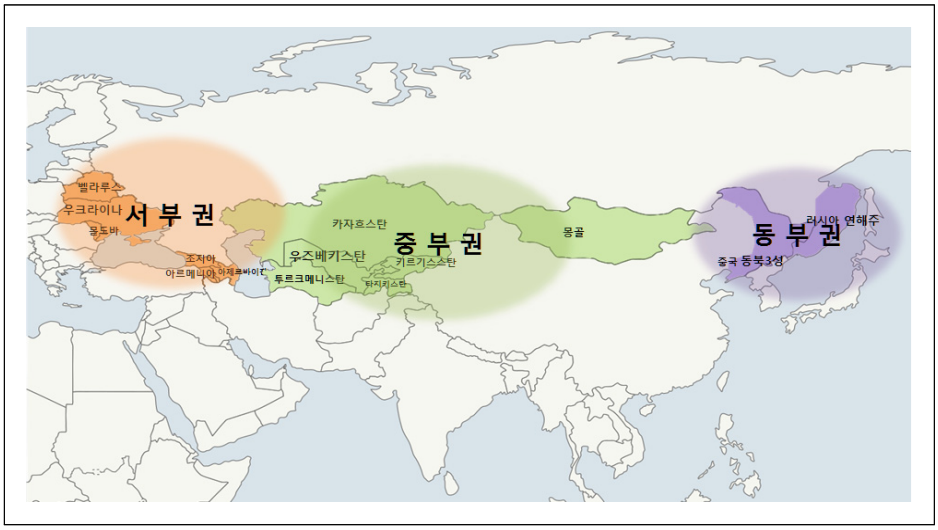
2.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북방지역 국가는 <그림 1-1>과 같이 3개의 권역으로 구분[3]되며, 동부권역(극동러시아와 중국 동북3성), 중부권역(몽골, 카자흐스

3) 북방지역의 3개 권역별 구분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2017)'에서 제시된 지역구분에 따랐음.

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서부권역(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의 14개 국가이다.

그림 1-1 북방지역 권역별 구분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7)에서 제시된 권역구분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농업 분야 민간기업의 범위는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농기자재 산업, 식품산업 등 농산업관련 민간기업을 포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민간투자는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4]를 의미한다.

2.2.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표 1-1>과 같이 관련 통계자료 분석 및 보고서 검토, 관련 기관 면담 및 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분석, 위탁연구 등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해외통

4) FDI는 기업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독투자(신설, 인수합병) 또는 합작투자를 의미함.

계 DB 분석을 통해 북방지역 국가의 농업현황(주요 농업지표, 농산물 수출입액 등)을 파악하였으며, 한국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북방지역 해외직접투자(FDI)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World Bank, 헤리티지 재단, 국제투명성기구 등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북방지역 국가의 투자환경을 분석하였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지원사업의 현황과 실적을 파악하였으며,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기업의 해외 진출 형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 원고를 의뢰하였다.

표 1-1 주요 연구 방법

구분	연구 방법	연구내용
국내외 통계자료 분석	- FAO, World Bank 등의 통계 DB분석 -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 분석	- 북방지역 국가의 농업현황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FDI) 현황
국제기구의 연구보고서 검토	- OECD, World Bank, 헤리티지 재단, 국제투명성 기구 등의 보고서 검토	- 북방지역 국가의 투자환경 분석
관련기관 면담 및 자료 수집	- 농어촌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면담(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신고기업 현황 등 자료 수집)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현황 -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의 형태 및 문제점 분석
설문조사	- 온라인 설문 조사: 7월~9월 - 해외 출장 면담 조사: 6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해외 진출(예정)기업의 유형별 실태 및 경영 성과 분석
원고 위탁	- 외부 전문가에 일본의 사례분석 의뢰	-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지원 정책 및 민간기업 진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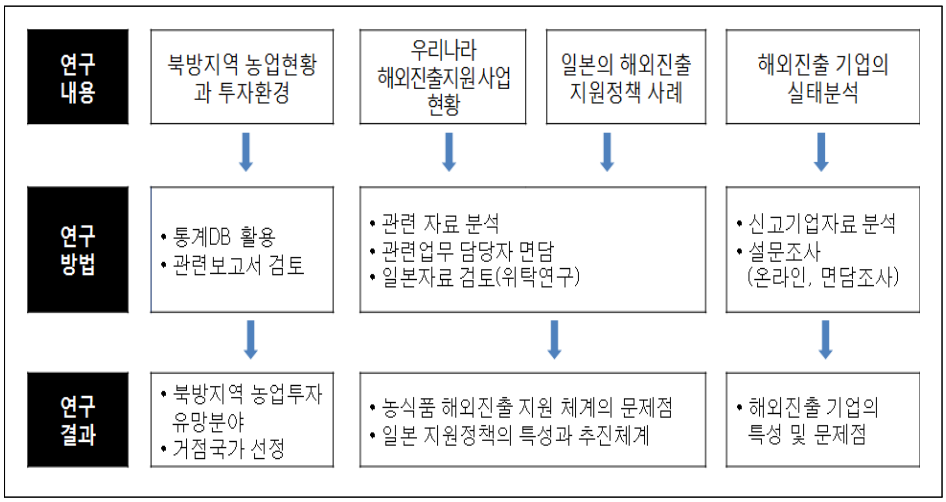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또한 해외 진출(예정)기업의 투자실태 및 경영 성과, 현행 지원정책의 만족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 6월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여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신고기업 1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3. 연구 추진체계

이 연구는 크게 북방지역의 농업현황 및 투자환경 분석,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외 진출기업 지원정책 검토, 해외 진출 기업의 실태 분석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해외통계 DB를 활용하여 북방지역의 권역별 농업현황을 분석하고,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분석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북방지역 국가의 투자환경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북방지역의 농업투자 유망 분야를 제시하였고, 권역별 투자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점국가를 선정하였다.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농식품 해외진출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일본의 해외 진출 사례를 분석하였다. 관련 자료 및 보고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농식품 해외진출지원사업'의 현황과 실적, 그리고 추진체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위탁연구를 통해 일본 농림수산성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일본의 해외 진출 지원정책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세 번째로는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신고기업 현황자료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온라인 및 면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 분야 해외 진출 기업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 기업의 지속가능성, 유형별 특성,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기업의 북방지역 민간투자 거점국가 육성방안과 ODA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식품 해외 진출지원 사업'의 개선,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산학협력체계 구축 등 북방지역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 분야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연구목적에 따라 농업 분야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 정책연구와 해외투자 분석 연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3.1.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 관련 연구

허장 외(2014)는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국가별 농업현황과 투자여건을 분석하여 투자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극동러시아 투자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곡물가격 및 수급 변동으로 인한 위험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 산지 저장시설 확대, 수출 곡물터미널 지분 참여 및 운영권 확보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여건은 농산물 가공원료를 생산하기에 적합하므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곡물 위주에서 고부가가치의 과수작물 가공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크라이나는 곡물생산, 곡물 수출물류,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구축 등의 분야에 투자 잠재력이 높으므로, 농업 생산기지 건설보다는 곡물유통업체를 지원·육성하고 사료곡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대섭 외(2015)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산업구조와 농업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곡물생산 위주에서 과일 등 농식품산업의 유통과 판매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농업 분야 해외 진출 전략과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기후조건은 일조량이 많아 과일 및 채소산업에 높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리산업에 대한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기업의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광활한 토지를 바탕으로 Non-GMO 곡물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두고 특화된 시장을 공략할 것을 강조하였다.

최지현 외(2016)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의 축산과 곡물산업의 현황과 투자환경 분석을 통해 민간의 투자협력 기본방향은 지역의 특성과 시장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사료공장 설립, 가금(토종닭) 분야 진출, 유가공공장 설립 등을 민간투자협력 분야로 제시하였다. 사료공장은 안정적 원료확보를 위해 협력농장이나 재배농가와의 계약재배가 필요하며, 토종닭 사업은 계열화 사업형태로 진출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축 사육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국 사료업체의 진출이 필요하며, 산란계 사업은 단독투자 또는 현지 업체와의 합작투자가 바람직하며, ODA사업으로 유가공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술협력 및 컨설팅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곡물 수출터미널 및 내륙 사일로 건설, 유가공공장 설립, 관개사업 등을 유망 투자분야로 제안하였다.

이대섭 외(2017)는 해외농업개발 중장기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권역별(동남아, 극동러시아, CIS국가) 농산업 특성과 해외 진출 기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해외농업 진출 분야는 농산물 생산과 유통뿐만 아니라 농업 전·후방 산업과 가치사슬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국내 반입 식량자원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와 더불어 국내 농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작물별로 권역 내 거점 지역을 육성하여 선택과 집중의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함을 역설했다.

김용택 외(2011)는 해외농업개발 전략 수립을 위해 해외 진출기업의 경영 성과와 전략을 현지 면담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해외투자 법인의 경영 성과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 환경과 시장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역별 진출 전략,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과 제공 체계, 사업 운영의 현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2. 해외투자 분석 연구

강길성 외(2018)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FDI)의 결정요인이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과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외개방도, 사회기반시설, 인적자본이 해외투자 대상지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며, 아프리카의 경우 이러한 요인이 투자협력의 제약 요건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ODA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승훈(2014)은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입지결정 요인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 유치 국가의 시장규모, 경제발전 정도, 경제성장률, 인적자본의 질, 경제의 개방도, 현지시장 친숙도(거리에 따른 거래비용)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수역훤 외(2014)의 연구결과에서는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잠재력을 나타내는 GDP가 우리나라의 FDI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국가 간의 거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자유무역협정(FTA)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후(2018)는 ODA가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ODA는 개도국의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ODA와 FDI 모두 개도국의 무역에 정(+)의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ODA와 해외투자사업과의 연계가 개도국의 FDI 유입 촉진 및 수출 규모 확대 등 경제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결과 공공의 원조재원(ODA)과 민간의 투자재원(FDI)을 결합한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kki et al.(2004)은 해외직접투자(FDI)와 무역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FDI는 선진국의 진보된 기술이 개도국에 전수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FDI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거시경제 정책과 제도적 안정성이 중요한 선결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민간기업 관점에서의 정책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 대개의 연구가 국가별 농업여건 및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별 투자협력 분야와 협력전략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해외농업개발정책 추진의 관점에서 투자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또는 예정 기업)의 관점에서 해외투자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해외 진출이전단계의 기업(해외 진출 준비 기업이나 예정인 기업)에 대한 분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이후 단계의 기업에 대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해외 진출 이전단계의 기업이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여 해외 진출 준비를 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이후단계에서 어떠한 특성(투자지역, 분야, 규모 등)을 가진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사업을 지속하는지, 또 어떠한 특성을 가진 기업이 사업에 실패하고 철수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이전단계의 해외투자 준비과정과 해외 진출이후단계의 사업지속성 및 성과를 분석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

북방지역 농업여건 및 투자환경

제2장

북방지역 농업여건 및 투자환경

1. 북방지역 권역별 농업여건

북방지역의 권역별 농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FAO 통계 DB의 각 권역별 주요 농업지표,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액, 수출입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간하는 '농업비즈니스 환경 보고서(Enabling the Business of Agriculture)'의 지표를 활용하여 북방지역의 농업여건을 분석하였다.

1.1. 동부권 농업여건

북방지역의 동부권에는 극동러시아 지역과 중국 동북3성 지역이 포함된다. 러시아 연해주는 러시아연방 총 8개의 관구 중 극동관구에 속해있는 지역으로 농업이 상당히 발달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전체면적은 164만 ㎢이며, 인구는 192만 명으로 극동관구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연해주 지역의 농지는 중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재배하는 작물로는 대두, 감자, 옥수수가 있다.[5] 이러한 곡물

5) 러시아연방통계청(http://showdata.gks.ru/finder/: 2019. 10. 3.)

류는 대규모 농지면적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한 품목으로 러시아 국내 소비시장에서 식품용뿐 아니라 사료용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중국 동북3성은 중국 최동북지역에 위치한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을 일컫는다. 동북3성은 중국 내 최대 경지면적을 보유하는 흑룡강성을 포함하여 쌀, 옥수수, 대두 등 식량작물의 생산 점유율이 높은 중국의 대표적인 농업지역이다. 옥수수와 대두는 동북3성의 전통적인 재배 작물로 2016년 기준 총 생산량은 각각 7,426만 톤, 615만 톤이다.[6)]

표 2-1 북방지역 동부권 주요 농업 지표(2017)

구분	단위	러시아		단위	중국		
		연해주	극동관구 전체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GRP[1)]	억 루블	7,778.3	38,783.2	억 위안	14,944.5	23,409.2	15,902.6
1인당 GRP	루블	405,528.0	628,171.6	위안	54,838.0	53,527.0	41,916.0
인구	만 명	192.3	618.2	만 명	2,717.0	4,369.0	3,789.0
지역면적	㎢	1,647,000	6,169,300	㎢	187,400	148,400	454,800
경지면적	천 ha	462.3	2,040.6	천 ha	6,086.2	4,172.3	14,767.6
농업생산액	억 루블	474.3	1,777.0	억 위안	2,064.3	3,851.6	5,586.6
농촌인구	%	23.0	24.3	%	43.4	32.5	40.6

주: 1) GRP(Gross Regional Product).
자료 1) 러시아연방통계청(http://showdata.gks.ru/finder/: 2019. 10. 3.).
2) 중국국가통계청(http://data.stats.gov.cn/: 2019. 10. 3.).

표 2-2 북방지역 동부권 주요 작물 생산량(2016)

단위: 천 톤

품목	러시아		중국		
	연해주	극동관구 전체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쌀	50	50	6,541	4,846	22,553
옥수수	179	261	28,330	14,656	31,274
대두	295	1,406	625	307	5,225
밀	28	315	1	22	290
감자	217	725	500	428	1,004

자료 1) 러시아연방통계청(http://showdata.gks.ru/finder/: 2019. 10. 3.).
2) 중국국가통계청(http://data.stats.gov.cn/: 2019. 10. 3.).

6) 중국국가통계청(http://data.stats.gov.cn/: 2019. 10. 3.)

동부권 국가의 2018년 농산물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대두와 옥수수의 소비량이 많아 대두, 옥수수, 양·염소고기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7] 반면 러시아는 밀, 보리 등의 곡물과 식물성 유지류를 주로 수출하고 감귤류, 바나나, 사과 등 과수작물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8]

표 2-3 중국 동북3성 주요 농산물 수출입액(2018)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1	견과류	157	쌀	208	쌀	340	대두	2,653	대두	2,580	양·염소고기	263
2	설탕	124	과일·견과류	197	사탕무	172	옥수수	30	양·염소고기	405	대두	254
3	건조채두류	87	조제육	149	건조채두류	117	잎담배	13	바나나	267	냉동쇠고기	51
4	전분	59	대두유	108	대두박	88	쇠고기	10	보리	224	농축우유	33
5	대두박	51	건조채두류	103	육류부산물	62	대두유	9	비정제당	211	유장	32
6	조제육	33	가금육	92	전분	46	조제식품	8	유채씨	147	대두유	27

주: 농산물 수출입액 순위대로 정렬.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2019. 10. 3.).

표 2-4 러시아 주요 농산물 수출입액(2018)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밀·메슬린	8,436	감귤류	1,239
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	1,607	바나나·플랜틴	1,155
3	보리	1,027	팜유	749
4	가금육	193	사과	518
5	설탕	178	버터	432

주: 농산물 수출입액 순위대로 정렬.
자료: 러시아연방통계청(http://showdata.gks.ru/finder/: 2019. 10. 3.).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관구는 국가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 및 물류 인프라가 열악하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은 곡물 저장시설(사일로, 엘리베이트 등)과 가공

7)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2019. 10. 3.)
8) 러시아연방통계청(http://showdata.gks.ru/finder/: 2019. 10. 3.)

시설(포장 등)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식품가공은 주스와 잼 등 단순가공에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물류의 85%가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way: TSR)를 통해 항구(보스토치, 블라디보스톡 등)로 운송되며, 곡물터미널이 부족하여 물류비용이 높다(김종선 2019: 5).

1.2. 중부권 농업여건

중부권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몽골이 포함된다. 중부권 국가는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기후를 바탕으로 농업 잠재력이 높은 나라이다.

저소득국인 타지키스탄과 중저소득국인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은 GDP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 비중이 각 52.0%, 34.0%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9] 중고소득국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통적으로 밀, 보리 등 곡물재배와 목축업이 주산업이며, 1991년 독립 후 대외투자 유치 및 자원개발을 바탕으로 에너지·자원 부문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최지현 외 2016).

표 2-5 북방지역 중부권 주요 농업 지표(2016)

구분	단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몽골
GDP	억 달러	817.7	1,372.7	68.1	69.5	361.8	111.8
1인당 GDP	USD	2,567.8	7,714.8	1,120.7	802.5	6,389.5	3,660.2
인구	천 명	31,847.9	17,794.0	6,079.5	8,663.5	5,662.3	3,056.3
농업GDP비중	%	30.8	4.6	12.8	20.4	9.3	11.7
농업고용비중	%	34.0	16.0	27.0	52.0	23.0	30.0
농업면적비중	%	62.9	80.4	55.0	34.1	72.0	71.5

자료: World Bank(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2019. 9. 26.).

9) World Bank(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2019. 9. 26.)

표 2-6 북방지역 중부권 주요 농산물 생산액(2016)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몽골	
작물	면화	1,581	밀	2,364	감자	234	면화	175	면화	580	밀	73
	밀	1,095	감자	598	밀	104	감자	151	밀	252	감자	27
	토마토	978	보리	384	옥수수	91	밀	144	포도	164	당근·무	13
	포도	938	토마토	260	토마토	86	토마토	133	토마토	153	견과류	9
축산	우유	2,452	우유	1,653	우유	467	우유	220	우유	580	양고기	251
	쇠고기	2,192	쇠고기	1,027	쇠고기	269	양고기	129	양고기	395	우유	163
	양고기	334	양고기	369	양고기	119	쇠고기	93	쇠고기	394	염소고기	153
	계란	196	계란	183	말고기	33	산양유	18	양모	72	쇠고기	152

주: 국별 농산물 생산액 순위대로 정렬.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home/: 2019. 5. 31.).

표 2-7 북방지역 중부권 주요 농산물 수입액(2016)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몽골	
1	밀	234	조제식품	197	담배	43	밀	185	밀	104	조제식품	57
2	정제설탕	180	초콜릿	151	초콜릿	42	정제설탕	65	조제식품	25	담배	50
3	소맥분	144	비정제당	146	해바라기유	37	비정제당	46	해바라기유	22	초콜릿	39
4	해바라기유	123	담배	142	밀	32	해바라기유	29	초콜릿	20	밀	33
5	대두박	47	닭고기	130	비정제당	25	소맥분	27	소맥분	17	비정제당	26
6	차	44	차	112	조제식품	25	면실유	25	도정미	17	설탕과자	24

주: 국별 농산물 수입액 순위대로 정렬.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home/: 2019. 9. 30.).

표 2-8 북방지역 중부권 주요 농산물 수출액(2016)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몽골	
1	생면	177	밀	685	건조콩	55	생면	60	생면	203	세모	212
2	건포도	67	소맥분	505	생면	19	건조양파	9	조면	18	견과류	33
3	포도	62	담배	110	건조과일	14	토마토	7	동식물원료	17	유채씨	16
4	체리	46	보리	109	담배	13	건조살구	5	목화씨박	16	양모	16
5	감	32	아마씨	92	버터(소)	8	건조과일	4	목화씨	7	동식물원료	15
6	건조콩	29	생면	72	치즈(소)	5	도정미	3	말가죽	6	말고기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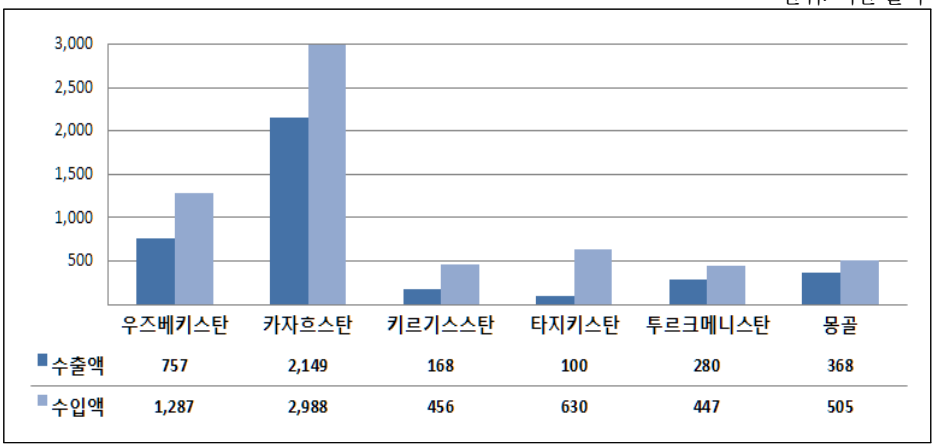
주: 국별 농산물 수출액 순위대로 정렬.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home/: 2019. 9. 30.).

중부권 국가의 농업 생산을 살펴보면 2016년 생산액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밀, 면화, 우유, 육류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밀 생산액은 23억 6,442만 달러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면화 생산액이 15억 8,170만 달러로 가장 많다.[10]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면화의 수요 감소 및 가격하락에 따라 면화의 생산을 축소시키고, 감자 등 채소 작목과 포도 등 과일 작목의 재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

중부권 국가는 농산물 수출보다는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포도, 체리 등 과일류와 건포도, 건조 과일, 견과류 등 건조가공식품을 주로 수출하며, 밀, 설탕, 식품류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카자흐스탄은 중부권 국가 중 농산물 수출입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총 2,149백만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2,988백만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였다.[11]

그림 2-1 북방지역 중부권 농산물 수출입 현황(2016)

단위: 백만 달러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home/: 2019. 9. 30.).

중부권 국가는 농업기계화 및 기반시설, 물류인프라가 미흡한 편이다. 농업 기계 및 설비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을 뿐 아니라 부품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가동

10) FAO(http://www.fao.org/faostat/en/#home/: 2019. 5. 31.)
11) 위와 같음.

이 중단된 경우가 많다(한국농어촌공사 2013). 또한 대부분의 중부권 국가는 철도와 도로, 항공 등의 운송 수단이나 전반적인 물류 서비스의 품질이 낮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화물운송의 88%가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나 운송 차량이 부족하고 도로 시설기반이 취약하다(조영관 외 2010).

1.3. 서부권 농업여건

서부권에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의 국가가 포함된다. 이 중 우크라이나는 농업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전 국토면적의 72%가 농업 생산에 활용될 만큼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농업 GDP 비중은 12%로 2000년 이후로 농업 분야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몰도바와 아르메니아 또한 국가경제에서 농업 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는 농업고용비중이 각각 36.3%, 46.8%로 매우 높아 농업부문의 중요도가 크다.[12)]

표 2-9 북방지역 서부권 주요 농업 지표(2016)

구분	단위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GDP	억 달러	933.5	80.7	477.2	105.4	378.6	143.7
1인당 GDP	USD	2,187.7	2,272.4	5,022.6	3,591.8	3,880.7	3,857.3
인구	천 명	45,004.6	3,551.9	9.501.5	2,936.1	9,757.8	3,727.5
국토면적	㎢	415,150	24,410	85,327	16,768	47,730	23,940
농업GDP비중	%	11.7	11.4	6.9	16.4	5.6	7.7
농업고용비중	%	15.6	33.7	9.7	33.6	36.3	46.8
농업면적비중	%	71.7	74.2	42.0	58.9	57.7	34.5

자료: World Bank(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2019. 9. 26.).

12) World Bank(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2019. 9. 26.)

표 2-10 북방지역 서부권 주요 농산물 생산액(2016)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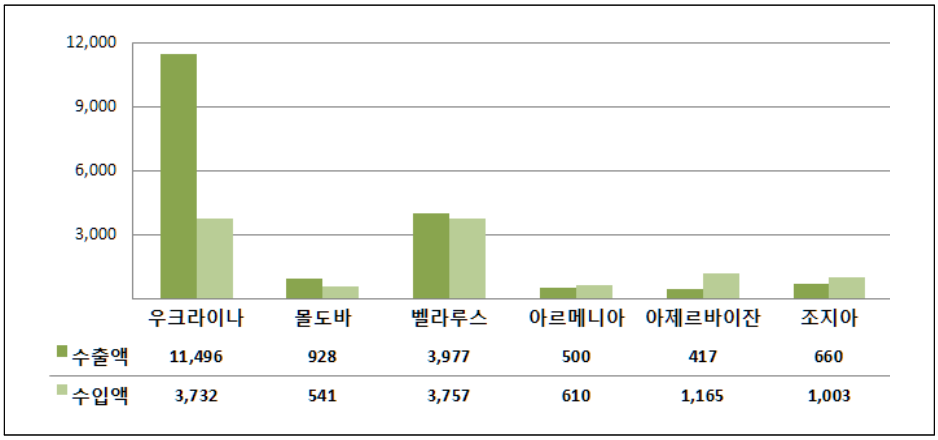
구분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작물	밀	4,117	포도	352	감자	1,010	기타핵과류	124	밀	284	포도	91
	옥수수	3,977	밀	204	밀	369	토마토	110	토마토	185	헤이즐넛	47
	해바라기씨	3,750	옥수수	197	라이밀	225	감자	102	감자	152	감자	42
	감자	3,671	해바라기씨	186	사과	215	포도	102	보리	110	옥수수	34
축산	우유	3,163	우유	144	우유	2,222	우유	214	우유	615	우유	165
	닭고기	1,452	돼지고기	94	쇠고기	852	쇠고기	144	쇠고기	329	쇠고기	68
	쇠고기	1,155	닭고기	44	돼지고기	733	양고기	25	양고기	208	계란	32
	돼지고기	1,119	계란	44	닭고기	520	양유	24	닭고기	135	돼지고기	21

주: 국별 농산물 생산액 순위대로 정렬.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home/: 2019. 5. 31.).

서부권 국가는 주로 밀, 포도, 감자, 토마토 등을 생산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서부권 국가 중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 감자 등 곡물과 유지작물의 생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유와 닭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의 생산도 가장 많다.[13)]

그림 2-2 북방지역 서부권 농산물 수출입 현황(2016)

단위: 백만 달러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home/: 2019. 9. 30.).

13) FAO(http://www.fao.org/faostat/en/#home/: 2019. 5. 31.)

표 2-11 북방지역 서부권 주요 농산물 수출액(2016)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1	해바라기유	3,091	해바라기씨	179	치즈(소)	690	담배	211	헤이즐넛	84	헤이즐넛	173
2	밀	2,033	와인	108	쇠고기	351	증류주	151	토마토	82	포도주	113
3	옥수수	1,824	밀	97	버터(소)	301	토마토	23	감	59	증류주	92
4	해바라기씨박	692	호두	83	탈지분유	284	포도	17	사과	21	생수	80
5	대두	466	해바라기유	51	닭고기	208	치즈(소)	14	체리	21	비알코올음료	12
6	담배	462	옥수수	46	정제설탕	183	양고기	10	기타조제지방	19	대두박	11

주: 국별 농산물 수출액 순위대로 정렬.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home/: 2019. 9. 30.).

서부권 지역에서는 농산물의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총 수출액은 11,496백만 달러(2016년 기준)에 이른다.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씨유, 밀, 옥수수 등 품목의 수출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벨라루스는 주로 치즈나 버터 등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다.[14)]

서부권 지역의 농업 인프라는 중부권 지역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열악하다. 서부권 국가 중 대표적인 농업국가인 우크라이나의 경우, 농장시설과 농기계 등이 노후화되었으며,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인프라와 관개시설이 미흡하다(최지현 외 2016). 또한 농업생산, 가공, 유통 등 농업 가치사슬 전 분야에 걸쳐 열악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1.4. 북방지역 국가의 농산업 여건

북방지역 국가의 농산업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은행에서 2017년에 발표한 '농업비즈니스 환경(Enabling the Business of Agriculture: EBA)'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62개 국가를 대상으로 12개 분야에 대해 국가의 법과 제도를 점수화하고 국가별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14) FAO(http://www.fao.org/faostat/en/#home/: 2019. 9. 30.)

표 2-12 농업비즈니스환경(EBA) 분야별 측정 항목

분야	측정 항목
종자	종자 등록(시간, 비용, 행정절차)/종자 육종(육종업자 권리, 면허)/종자 품질관리 정책
비료	비료업체 등록(소요 시간, 비용, 행정절차)/비료 품질관리/비료수입 및 판매 관련 정책
농기계	농기계(트랙터) 등록, 검사, 진단(소요시간, 비용, 행정절차)/트랙터 수입 자격요건
금융	비은행 대출기관의 운영 및 규제/소규모 신용대출 관련 정책
농산물 시장	농산물 무역/작물 보호/생산자 단체 관련 정책
운송	육상 운송(국내 운송/해외 운송) 운영 관련 소요시간, 비용, 행정절차
수자원	수자원 관리/수자원 이용허가 관련 정책
정보통신	무선통신 서비스업자 면허 관련 정책

주: 토지, 축산, 기후환경, 젠더 등 4개 분야는 국가별 점수를 제시하지 않음.
자료: World Bank(http://eba.worldbank.org/: 2019. 9. 20.).

표 2-13 북방지역 국가의 농업 비즈니스 환경(EBA, 2017)

권역 구분	국가	농업 비즈니스 환경 점수(국가순위)							
		종자	비료	농기계	금융	농산물시장	운송	수자원	ICT
동부권	러시아	68.4 (18)	69.2 (20)	69.1 (12)	45.8 (38)	68.1 (18)	47.2 (40)	70.7 (15)	72.2 (15)
중부권	카자흐스탄	53.7 (35)	73.1 (15)	81.4 (9)	36.7 (50)	70.8 (16)	19.4 (55)	65.7 (18)	61.1 (22)
	키르기스스탄	36.4 (53)	69.4 (19)	65.0 (14)	78.6 (8)	72.6 (13)	18.4 (56)	46.2 (36)	44.4 (43)
	타지키스탄	42.4 (51)	36.8 (49)	58.2 (22)	32.1 (55)	58.1 (32)	84.1 (6)	46.8 (35)	36.1 (56)
서부권	우크라이나	56.4 (33)	57.6 (32)	63.8 (15)	53.3 (26)	61.4 (26)	46.4 (42)	54.6 (29)	44.4 (43)
	아르메니아	62.2 (28)	28.6 (53)	53.7 (30)	35.9 (52)	64.9 (23)	18.4 (56)	82.5 (5)	55.6 (31)
	조지아	71.4 (13)	68.4 (21)	41.8 (42)	44.1 (39)	67.9 (19)	48.5 (38)	29.8 (48)	94.4 (6)

주 1) 항목별 점수는 DTF(Distance to Frontier)이며, 각 항목별로 최고의 실적(Frontier)까지의 거리(Distance)를 계산한 것임. 점수가 높을수록 최고 점수에 가까운 것을 의미함.
2) ( )는 국가 순위이며, 전체 6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함.
자료: World Bank(http://eba.worldbank.org/: 2019. 9. 20.).

EBA에서 발표한 농업 비즈니스 항목을 비교한 결과, 북방지역 국가의 농업 분야 비즈니스 환경은 다른 지역의 국가에 비해 대체로 양호하지 못하다.

종자산업의 경우, 북방지역 국가 중 신품종 종자등록 제도와 종자의 품질관리와 관련한 정책은 서부권 지역의 조지아(71.4점, 13위)가 가장 우수하며, 동부권은 러시아(68.4점, 18위), 중부권은 카자흐스탄(53.7점, 35위)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15)]

비료산업의 경우, 비료업체의 등록과 품질관리 및 판매와 관련한 정책은 북방지역 국가 중 중부권의 카자흐스탄(73.1점, 15위)과 키르기스스탄(69.4점, 19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부권의 러시아(69.2점, 20위)와 서부권의 조지아(68.4점, 21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16)]

농기계산업의 경우, 농기계(트랙터)의 등록과 검사, 수입 관련 정책은 중부권의 카자흐스탄(81.4점, 9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서부권에서는 우크라이나(63.8점, 15위)이 높은 편이다.[17)]

금융 부문의 경우, 비은행 대출기관을 통한 소액 금융의 대출 정책은 중부권의 키르기스스탄이 북방지역 국가 중 가장 양호(78.6점, 8위)하며,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50점 미만으로 매우 열악하다.[18)]

농산물 시장의 경우, 농산물의 수출입, 농작물의 병충해 관리, 생산자단체 등과 관련한 정책은 중부권의 키르기스스탄(72.6, 13위)이 우수하며, 동부권의 러시아(68.1, 18위)와 서부권의 조지아(67.9, 19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19)]

운송 분야의 경우, 농산물의 육로(도로)를 통한 국내 운송과 국경을 넘는 해외 운송과 관련한 정책은 중부권의 타지키스탄(84.1, 6위)이 가장 우수하다.[20)]

수자원관리·ICT 분야의 경우,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정책은 서부권의 아르메니아(82.5, 5위),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정책은 조지아(94.4, 6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21)]

---

15) World Bank(http://eba.worldbank.org/: 2019. 9. 20.)
16) 위와 같음.
17) 위와 같음.
18) 위와 같음.
19) 위와 같음.
20) 위와 같음.
21) 위와 같음.

2. 북방지역 투자환경

2.1. 북방지역 주요 경제 지표

동부권에는 세계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인구 14억 명, GDP 232억 달러(1인당 GDP 1만 7천 달러), 7%의 GDP 성장률, 1,363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FDI)가 유입되고 있다. 러시아는 인구 1억 4천만 명, 1인당 GDP 2만 7천 달러, 253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고 있다.[22)]

표 2-14 북방지역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2017)

권역 구분	국가	시장 규모(2017년 기준)					
		인구 (백만 명)	GDP, PPP (10억 US$)	GDP 성장률(%)	1인당 GDP, PPP($)	실업률 (%)	FDI 유입 (백만 US$)
동부권	러시아	144.0	4,007.8	1.5	27,834	5.2	25,284
	중국	1,390.1	23,159.1	6.9	16,660	4.7	136,320
중부권	카자흐스탄	18.2	477.6	4.0	26,252	4.9	4,633.7
	우즈베키스탄	32.1	222.6	5.3	6,929	7.2	95.8
	키르기스스탄	6.3	23.0	4.5	3,667	7.3	93.8
	투르크메니스탄	5.7	103.5	6.5	18,126	3.4	2,313.
	타지키스탄	8.8	28.4	7.1	3,212	10.3	141.3
	몽골	3.1	39.7	5.1	12,979	7.0	1,494.4
서부권	우크라이나	42.3	368.8	2.5	8,713	9.5	2,202.0
	벨라루스	9.5	178.9	2.4	18,931	0.5	1,276.4
	아르메니아	3.0	28.3	7.5	9,456	18.2	245.7
	아제르바이잔	9.8	171.8	0.1	17,492	5.0	2,867.0
	조지아	3.7	39.7	4.8	10,747	11.6	1,861.9
	몰도바	3.5	20.1	4.0	5,661	4.5	213.8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http://www.heritage.org/index/explore?view=by-variables&u=637097893233487355/: 2019. 9. 15.).

22) The heritage Foundation(http://www.heritage.org/index/explore?view=by-variables&u=637097893233487355/: 2019. 9. 15.)

중부권 국가 중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경제규모가 가장 크다. 카자흐스탄은 인구가 1천 8백만 명에 불과하나, GDP 규모가 4억 8천만 달러(1인당 GDP는 2만 6천 달러)이며, 특히 FDI가 46억 달러로 가장 많은 해외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23)]

서부권 국가 중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경제규모가 가장 크다.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4천 2백만 명, GDP 규모는 3억 7천만 달러이며, 22억 달러 규모의 FDI가 유입되고 있다. 벨라루스와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1인당 GDP가 약 1만 8천 달러 규모로 서부권 국가 중에는 가장 높으며, 특히 아제르바이잔의 FDI 유입이 약 29억 달러로 가장 많은 해외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24)]

2.2. 북방지역 국가의 투자환경

OECD의 국가위험분류(Country Risk Classifications: CRC)는 국가 체제의 위험에 대한 분류가 아니며, 각 국가의 수출신용(Export Credits)과 관련된 국가신용위험도(country credit risk)를 평가하고 분류한 것이다.

북방지역 중부권과 서부권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신용위험도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중부권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서부권의 아제르바이잔의 경우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가신용위험도(위험분류5)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표 2-15> 참조).[25)]

23) 각주 22와 같음.
24) 위와 같음.
25) OECD(http://www.oecd.org/trade/topics/export-credits/arrangement-and-sector-understandings/financing-terms-and-conditions/country-risk-classification/: 2019. 9. 20.)

표 2-15 북방지역 국가별 국가위험분류(CRC, 2019)

권역구분	국가	국가위험분류
동부권	러시아	4
	중국	2
중부권	카자흐스탄	5
	우즈베키스탄	5
	키르기스스탄	7
	투르크메니스탄	6
	타지키스탄	7
	몽골	6
서부권	우크라이나	7
	벨라루스	6
	아르메니아	6
	아제르바이잔	5
	조지아	6
	몰도바	7

주: 국가위험분류는 0~7로 구분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고(高)위험 국가임(한국은 0점).
자료: OECD(http://www.oecd.org/trade/topics/export-credits/arrangement-and-sector-understandings/financing-terms-and-conditions/country-risk-classification/: 2019. 9. 20.).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기업가들과 지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level of corruption)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조지아의 부패인식지수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58점(41위)으로, 북방지역 국가들 중에서 부패 수준이 가장 낮다. 그러나 거의 모든 북방지역 국가의 공공부문에 대한 부패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6> 참조).[26)]

26) Transparency International(http://www.transparency.org/cpi2018/: 2019. 9. 10.)

표 2-16 북방지역 국가의 부패인식지수(CPI, 2018)

권역구분	국가	부패인식지수 종합점수				
		2014	2015	2016	2017	2018
동부권	러시아	27	29	29	29(135)	28(138)
	중국	36	37	40	41(77)	39(87)
중부권	카자흐스탄	29	28	29	31(122)	31(124)
	우즈베키스탄	18	19	21	22(157)	23(158)
	키르기스스탄	27	28	28	29(135)	29(132)
	투르크메니스탄	17	18	22	19(167)	20(161)
	타지키스탄	23	26	25	21(161)	25(152)
	몽골	39	39	38	36(103)	37(93)
서부권	우크라이나	26	27	29	30(130)	32(120)
	벨라루스	31	32	40	44(68)	44(70)
	아르메니아	37	35	33	35(107)	35(105)
	아제르바이잔	29	29	30	31(122)	25(152)
	조지아	52	52	57	56(46)	58(41)
	몰도바	35	33	30	31(122)	33(117)

주 1)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음(최고 점수는 100점).
2) ( )는 국가 순위이며, 전체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함(한국은 57점(45위)임).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http://www.transparency.org/cpi2018/: 2019. 9. 10.).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Index: EFI)는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180개 국가에 대해 경제활동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 지표이다. 총 12개의 항목별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의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안전함을 의미한다. <표 2-17>에서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재산권, 세금부담, 비즈니스 자유도, 노동자유도, 통화자유도, 무역자유도, 투자자유도 등 7개 항목에 대해 북방지역 국가별 경제자유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중부권 국가 중에서 카자흐스탄의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으며(65.4, 59위), 서부권에서는 조지아(75.9, 16위)의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다. 북방지역의 재산권 지수는 대체로 낮아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취득이 쉽지 않은 편이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조세부담이 적은 국가이며, 카자흐스탄과 조지아는 기업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이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조지아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비교적 양호하다.[27)]

표 2-17 북방지역 국가의 경제자유지수(EFI, 2019)

권역 구분	국가	경제자유지수							
		종합점수 (국가 순위)	재산권[2]	조세 부담[3]	비즈니스 자유도[4]	노동 자유도[5]	금융 자유도[6]	무역 자유도[7]	투자 자유도[8]
동부권	러시아	58.9(98)	52.4	89.4	78.4	52.5	65.1	77.8	30
	중국	58.4(100)	49.9	70.4	56.2	64.2	71.9	73.0	25
중부권	카자흐스탄	65.4(59)	59.3	93.4	73.9	86.2	70.9	80.0	50
	우즈베키스탄	53.3(140)	49.8	91.3	72.5	58.7	58.9	62.6	10
	키르기스스탄	62.3(79)	49.9	94.1	73.4	79.8	74.4	78.6	60
	투르크메니스탄	48.4(164)	31.6	95.9	30.0	20.0	73.4	76.0	10
	타지키스탄	55.6(122)	47.8	91.8	67.3	49.2	68.5	73.6	25
	몽골	55.4(126)	48.2	88.5	66.0	75.0	77.8	75.8	50
서부권	우크라이나	52.3(147)	43.9	81.8	66.1	46.7	58.6	75.0	35
	벨라루스	57.9(104)	55.2	89.4	75.0	75.3	67.0	76.4	30
	아르메니아	67.7(47)	57.2	84.7	78.3	71.4	77.8	80.8	75
	아제르바이잔	65.4(60)	59.1	87.5	69.5	63.9	63.0	74.6	60
	조지아	75.9(16)	65.9	87.1	85.8	76.6	76.0	88.6	80
	몰도바	59.1(97)	55.2	85.4	67.0	39.0	73.5	78.0	55

주 1) 항목별 점수는 0점~100점 사이에 분포(한국은 72.3점으로 29위)
2) 재산권 지수는 국가가 개인자산의 취득이나 활용을 법적으로 얼마나 허용하는지 측정
3) 조세부담 지수는 개인소득세율, 법인세율, GDP대비 총 조세부담 등을 계산
4) 비즈니스 자유도는 법 규제와 인프라가 기업활동을 얼마나 제한하는지를 측정
5) 노동자유도는 노동시장(최저임금, 노동시간 등)과 관련한 법 규제를 측정
6) 금융자유도(Monetary Freedom)는 인플레이션과 물가관리 등 물가안정성을 측정
7) 무역자유도는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측정
8) 투자자유도는 개인이나 기업의 국내외 자본투자에 대한 규제와 제약 등을 측정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http://www.heritage.org/index/ranking: 2019. 9. 15.).

비즈니스 활동지수(Doing Business)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창업, 투자, 조세 납부, 무역, 파산 등) 관련 규제정책과 여건(각 비즈니스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행정절차, 제도 등)을 국가별로 비교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함을 의미한다(<표 2-18> 참조).

북방지역의 비즈니스 활동 종합점수는 60점에서 8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27) The heritage Foundation(http://www.heritage.org/index/ranking: 2019. 9. 15.)

대체로 북방지역 국가들의 비즈니스 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다. 중부권의 카자흐스탄(종합점수 77.9점, 28위)은 재산권 등록(84.6, 18위), 소규모 투자자 보호(85.0, 1위), 계약이행(81.3, 4위) 항목에서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28)]

표 2-18 북방지역 국가의 비즈니스 활동지수(Doing Business, 2019)

권역 구분	국가	비즈니스 활동 지수										
		종합 점수	창업	건축 인허가	전력 공급	재산권 등록	신용 보증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국경 무역	계약 이행	파산 처리
동부권	러시아	77.4 (31)	93.0 (32)	74.6 (48)	94.0 (12)	88.7 (12)	80.0 (22)	61.7 (57)	79.8 (53)	71.1 (99)	72.2 (18)	58.6 (55)
	중국	73.6 (46)	93.5 (28)	65.2 (121)	92.0 (14)	80.8 (27)	60.0 (73)	60.0 (64)	67.5 (114)	82.6 (65)	79.0 (6)	55.8 (61)
중부권	카자흐스탄	77.9 (28)	93.0 (36)	75.8 (35)	76.8 (76)	84.6 (18)	65.0 (60)	85.0 (1)	79.3 (56)	70.4 (102)	81.3 (4)	67.8 (37)
	우즈베키스탄	67.4 (76)	95.8 (12)	61.4 (134)	86.1 (35)	66.6 (71)	65.0 (60)	60.0 (64)	76.9 (64)	49.8 (165)	67.3 (41)	45.2 (91)
	키르기스스탄	68.3 (70)	93.0 (35)	77.1 (29)	46.0 (164)	90.3 (8)	75.0 (32)	66.7 (38)	56.6 (150)	80.7 (70)	50.4 (131)	47.6 (82)
	투르크메니스탄	-	-	-	-	-	-	-	-	-	-	-
	타지키스탄	57.1 (126)	90.7 (60)	61.3 (135)	34.7 (173)	63.9 (91)	40.0 (124)	66.7 (38)	61.4 (136)	59.1 (148)	62.6 (61)	30.9 (146)
	몽골	67.7 (74)	86.9 (87)	78.2 (23)	54.9 (148)	74.1 (49)	80.0 (22)	68.3 (33)	77.3 (61)	66.9 (117)	61.4 (66)	29.4 (152)
서부권	우크라이나	68.3 (71)	91.1 (56)	78.9 (30)	59.2 (135)	69.7 (63)	75.0 (32)	58.3 (72)	79.4 (54)	77.6 (78)	63.6 (57)	31.7 (145)
	벨라루스	75.8 (37)	93.4 (29)	74.7 (46)	90.2 (20)	92.2 (5)	55.0 (85)	63.3 (51)	70.7 (99)	96.2 (25)	69.4 (29)	52.6 (72)
	아르메니아	75.4 (41)	96.2 (8)	68.1 (98)	90.8 (17)	87.0 (14)	70.0 (44)	63.3 (51)	74.5 (82)	89.2 (46)	70.6 (24)	44.0 (95)
	아제르바이잔	78.6 (25)	96.1 (9)	73.1 (61)	77.3 (74)	84.6 (17)	80.0 (22)	81.7 (2)	85.2 (28)	77.0 (84)	67.5 (40)	63.8 (45)
	조지아	83.3 (6)	99.3 (2)	77.6 (27)	84.4 (39)	92.9 (4)	85.0 (12)	81.7 (2)	89.0 (16)	90.0 (43)	76.9 (8)	56.0 (60)
	몰도바	73.5 (47)	95.6 (14)	52.2 (172)	74.9 (81)	82.6 (22)	70.0 (44)	68.3 (33)	84.6 (35)	92.3 (35)	60.9 (69)	54.1 (68)

주 1) 항목별 점수는 0점~100점 사이에 분포함.
2) ( )는 국가 순위이며, 전체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함(한국은 84.1, 5위).
자료: World Bank(http://www.doingbusiness.org/en/data/: 2019. 9. 20.).

28) World Bank(http://www.doingbusiness.org/en/data/: 2019. 9. 20.)

서부권의 조지아(83.3, 6위)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활동에서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창업활동(99.3, 2위), 재산권 등록(92.9, 4위), 투자자 보호(81.7, 2위), 계약이행(76.9, 8위) 항목에서 매우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 외, 서부권의 아제르바이잔(78.6, 25위)과 벨라루스(75.8, 37위)도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29)]

물류성과지수(Logistic Performance Index: LPI)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물류와 관련된 6개의 항목(통관, 운송인프라, 선적, 물류서비스 등)에 대해 각국의 기업인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표 2-1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북방지역 국가들의 물류성과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라시아 대륙 내에 위치(Landlocked)해 있어 항만을 통한 물류시스템이 열악하며, 철도나 도로를 통한 운송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30)]

중부권내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물류성과지수가 2.81점(71위)으로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통관의 효율성(Efficiency of customs and border clearance)과 수화물의 정시도착 빈도(Frequency with which shipments reach consignees within scheduled or expected delivery times)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흑해를 인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물류성과지수가 2.83점(66위)으로 서부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화물의 추적 능력(Ability to track and trace consignments)과 수화물의 정시도착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31)]

29) World Bank(http://www.doingbusiness.org/en/data/: 2019. 9. 20.)
30) World Bank(http://lpi.worldbank.org/international/global/: 2019. 9. 15.)
31) 위와 같음.

표 2-19 북방지역 국가의 물류성과지수(LPI, 2019)

권역 구분	국가	물류성과 지수(LPI)						
		종합 지수	통관의 효율성	무역 및 운송 인프라의 질	항만 선적의 용이성	물류 서비스 역량과 질	수화물 추적 능력	수화물 정시 도착 빈도
동부권	러시아	2.76 (75)	2.42 (97)	2.78 (61)	2.64 (96)	2.75 (71)	2.65 (97)	3.31 (66)
	중국	3.61 (26)	3.29 (31)	3.75 (20)	3.54 (18)	3.59 (27)	3.65 (27)	3.84 (27)
중부권	카자흐스탄	2.81 (71)	2.66 (65)	2.55 (81)	2.73 (84)	2.58 (90)	2.78 (83)	3.53 (50)
	우즈베키스탄	2.58 (99)	2.10 (140)	2.57 (77)	2.42 (120)	2.59 (88)	2.71 (90)	3.09 (91)
	키르기스스탄	2.55 (108)	2.75 (55)	2.38 (103)	2.22 (138)	2.36 (114)	2.64 (99)	2.94 (106)
	투르크메니스탄	2.41 (126)	2.35 (111)	2.23 (117)	2.29 (136)	2.31 (120)	2.56 (107)	2.72 (130)
	타지키스탄	2.34 (134)	1.92 (150)	2.17 (127)	2.31 (133)	2.33 (116)	2.33 (131)	2.95 (104)
	몽골	2.37 (130)	2.22 (127)	2.10 (135)	2.49 (117)	2.21 (140)	2.10 (152)	3.06 (93)
서부권	우크라이나	2.83 (66)	2.49 (89)	2.22 (119)	2.83 (68)	2.84 (61)	3.11 (52)	3.42 (56)
	벨라루스	2.57 (103)	2.35 (112)	2.44 (92)	2.31 (134)	2.64 (85)	2.54 (109)	3.18 (78)
	아르메니아	2.61 (92)	2.57 (81)	2.48 (86)	2.65 (95)	2.50 (97)	2.51 (113)	2.90 (111)
	아제르바이잔	–	–	–	–	–	–	–
	조지아	2.44 (119)	2.42 (95)	2.38 (102)	2.38 (124)	2.26 (132)	2.26 (139)	2.95 (105)
	몰도바	2.46 (116)	2.25 (124)	2.02 (141)	2.69 (90)	2.30 (122)	2.21 (142)	3.17 (82)

주 1) 항목별 점수는 1~5점 사이에 분포(1점: 매우 낮음~5점: 매우 높음).
2) ( )는 국가 순위이며, 전체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함.
자료: World Bank(http://lpi.worldbank.org/international/global/: 2019. 9. 15.).

3. 북방지역 투자 현황

3.1. 북방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32] 현황

북방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대체로 2016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2-20> 참조).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미하다.

국가별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서부러시아에 지역에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극동지역에 투자는 미흡하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는 주로 광업, 제조업, 보험 및 금융업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덜란드, 미국 등이 주요 투자국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외국인의 주요 투자분야는 보험 및 금융업(26.4%)이며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등이 주요 투자국이다.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주로 석유·가스분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석유분야에는 터키와 러시아가 최대 투자국가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 332-335).

32) 북방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Ⅲ-CIS』의 내용을 발췌·요약하였음.

표 2-20 북방지역의 해외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권역구분	국가	2015	2016	2017
동부권	러시아	11,858	31,17	25,284
중부권	카자흐스탄	3,860	8,097	4,634
	우즈베키스탄	66	133	96
	키르기스스탄	1,142	616	94
	투르크메니스탄	3,043	2,243	2,314
	타지키스탄	397	219	141
	몽골	-	-	1,494
서부권	우크라이나	2,961	3,284	2,202
	벨라루스	1,668	1,238	1,276
	아르메니아	178	338	246
	아제르바이잔	4,408	4,500	2,867
	조지아	-	-	1,862
	몰도바	227	84	214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 333).

3.2. 북방지역의 한국 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북방지역에 대한 농림어업분야 해외직접투자(FDI)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몽골을 제외하면 매우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표 2-21> 참조). 우즈베키스탄에는 2018년에 처음으로 약 50만 달러 규모의 FDI가 이루어졌으며, 키르기스스탄에도 소규모 FDI가 이루어졌다. 2018년을 기준으로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33] 등의 농업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FDI는 없었다.[34]

33) 2018년 12월 기준 포스코 대우와 LS엠트론 등의 국내 기업이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34) 한국수출입은행(http://stats.koreaexim.go.kr/: 2019. 5. 20.)

표 2-21 한국의 對북방지역 농림어업 분야 해외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천 달러, %

국 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적 (2012~2018)
아르메니아	업종전체	-	-	-	-	-	2,900	-	2,900
	제조업	-	-	-	-	-	2,900 (100,0)	-	2,900 (100,0)
아제르바이잔	업종전체	38	210	213	671	11	-	-	1,143
	농림어업	-	-	-	300 (44.7)	-	-	-	300 (26.2)
	제조업	-	-	140 (65.7)	346 (51.6)	11 (100.0)	-	-	497 (43.5)
벨라루스	업종전체	-	-	14,234	-	-	-	8	14,242
조지아	업종전체	25	-	-	29,100	32,370	40,065	66,554	168,114
카자흐스탄	업종전체	228,648	174,221	159,258	70,049	21,746	6,750	14,560	675,232
	농림어업	1,473 (0.6)	650 (0.4)	2,620 (1.6)	4,851 (6.9)	740 (3.4)	1,850 (27.4)	1,485 (10.2)	13,669 (2.0)
	제조업	129,906 (56.8)	159,099 (91.3)	83,993 (52.7)	19,996 (28.5)	514 (2.4)	580 (8.6)	605 (4.2)	394,694 (58.5)
키르기스스탄	업종전체	1,956	3,638	2,569	1,910	1,402	1,817	3,049	16,341
	농림어업	-	-	380 (14.8)	264 (13.8)	101 (7.2)	15 (0.8)	-	760 (4.7)
	제조업	-	367 (10.1)	697 (27.1)	694 (36.3)	613 (43.8)	317 (17.5)	275 (9.0)	2,963 (18.1)
몽골	업종전체	55,979	49,036	32,100	39,141	10,585	13,569	22,685	223,095
	농림어업	320 (0.6)	1,406 (2.9)	72 (0.2)	520 (1.3)	230 (2.2)	-	200 (0.9)	2,748 (1.2)
	제조업	2,084 (3.7)	1,227 (2.5)	859 (2.7)	1,386 (3.5)	620 (5.9)	463 (3.4)	21 (0.1)	6,661 (3.0)
몰도바	업종전체	-	-	-	-	-	-	-	-
러시아	업종전체	109,288	122,265	116,251	178,127	110,491	81,792	94,364	812,578
	농림어업	25,036 (22.9)	16,696 (13.7)	8,882 (7.6)	8,306 (4.7)	10,185 (9.2)	6,919 (8.5)	21,480 (22.8)	97,504 (12.0)
	제조업	59,799 (54.7)	42,837 (35.0)	51,298 (44.1)	59,299 (33.3)	50,517 (45.7)	50,103 (61.3)	52,213 (55.3)	366,067 (45.1)
타지키스탄	업종전체	31	40	-	-	-	-	-	71
투르크메니스탄	업종전체	-	-	5	900	21	-	-	926
우크라이나	업종전체	638	240	20	13	46,553	300	3,255	51,019
우즈베키스탄	업종전체	18,964	13,219	11,904	14,726	26,826	7,234	17,684	206,335
	농림어업	-	-	-	-	-	-	477 (2.7)	477 (0.4)
	제조업	5,416 (28.6)	6,618 (50.1)	8,047 (67.6)	4,527 (30.7)	26,213 (97.9)	1,711 (23.7)	6,856 (38.8)	59,388 (53.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http://stats.koreaexim.go.kr/: 2019. 5. 20.).

4. 북방지역 농업투자 유망 분야 및 거점국가

제4절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북방지역 농업여건과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권역별 농업의 특성과 투자 유망 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북방지역 농업투자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투자 거점국가를 선정하였다.

4.1. 북방지역 권역별 농업 특성 및 투자 유망 분야

북방지역 국가의 대부분이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회원국으로 러시아와 중국, 유럽의 거대 시장과 인접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거대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밀, 옥수수, 콩 등 곡물류와 과일과 축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대체로 농업 인프라가 노후화되었으며, 전반적인 농업가치사슬이 열악한 상황이다.

동부권 국가들은 주로 밀, 옥수수, 콩 등 곡물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가공식품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곡물 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이 부족하다. 따라서 극동러시아 지역에서는 곡물류 생산, 곡물류 식품 가공, 곡물 저장시설과 물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이다.

중부권 국가들은 밀, 면화, 포도, 토마토 등 곡물류와 과채류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보다는 수입의 비중이 높으며, 설탕과 식품류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또한 중부권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농산물 생산과 수출입 규모가 가장 큰 최대 농업국가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과일/채소류 가공, 과일/채소류 종자, 시설원예 기자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이다.

표 2-22 북방지역의 농업특성 및 투자 유망 분야

권역 구분	농업 특성		투자 유망 분야
	생산 및 무역	농업 인프라 및 가치사슬	
동부권	- (생산) 밀, 옥수수, 콩 등 곡물류 - (무역) 가공식품류 수입의존	- (인프라) 곡물 저장과 가공시설 노후화 및 부족 - (가치사슬) 러시아는 종자, 비료, 농기계 분야가 비교적 양호	- 곡물생산 - 식품(곡물)가공 - 물류(곡물저장 등)
중부권	- (생산) 밀, 면화, 토마토, 포도 - (무역) 과일류, 건포도 수출/밀, 설탕, 식품류 수입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최대 농산물 생산 및 수출입 국가	- (인프라) 농업생산 및 물류인프라 미흡 - (가치사슬) 종자산업, 수자원관리, ICT분야 열악	- 과일/채소류 가공 - 종자산업 - 시설원예 기자재
서부권	- (생산) 밀, 포도, 감자, 축산물 - (무역) 해바라기씨, 밀, 축산 수출 *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가 최대 농산물 생산 및 수출입 국가	- (인프라) 농업생산 및 물류인프라 미흡 - (가치사슬) 종자, 비료, 농기계 등 전반적 가치사슬 열악	- 농기자재 (종자, 비료, 농기계등) - 축산물 가공 (치즈, 버터 등)

자료: 저자 작성.

서부권 국가들은 밀, 포도, 감자, 축산물을 주로 생산하며, 농산물 수출 비중이 수입 비중보다 높다. 주로 밀, 해바라기씨,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서부권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가 최대 농업국가이다. 그러나 종자, 비료, 농기계 등의 관련 산업이 열악하다. 따라서 종자, 비료, 농기계 등 농기자재 산업과 치즈, 버터 등 축산물 가공산업에 투자가 유망할 것이다.

4.2. 북방지역 권역별 농업투자 거점국가

OECD, 세계은행, 헤리티지 재단 등에서 발표한 기업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한 환경을 종합하고, 농업여건을 바탕으로 북방지역 권역별 농업투자 거점국가를 선정하였다(<표 2-23> 참조). 권역별 농업투자 거점국가는 권역 내 다른 국가들에 대한 해외 진출과 투자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

표 2-23 북방지역의 농업특성 및 투자 유망 분야

권역 구분	국가	농업여건	투자환경						농업 투자 거점 국가
			국가위험 분류 (CRC)	부패인식 지수 (CPI)	경제자유 지수 (EFI)	비즈니스 활동	물류성과 지수 (LPI)	FDI 유입	
동부권	러시아	곡물생산, 항만시설	△	×	△	◎	△	-	거점 지역 (연해주)
	중국		◎	×	△	◎	◎		
중부권	카자흐스탄	최대 농업국가	△	△	△	◎	△	최대 유입	거점 국가
	우즈베키스탄		△	◎	×	△	△		
	키르기스스탄		×	×	△	△	△		
	투르크메니스탄		×	×	×	-	×		
	타지키스탄		×	×	△	△	×		
	몽골		×	△	△	△	×		
서부권	우크라이나	최대 농업국가	×	△	×	△	△	최대 유입	거점 국가
	벨라루스		×	△	△	◎	△		
	아르메니아		×	△	◎	◎	△		
	아제르바이잔		△	×	△	◎	-	최대 유입	
	조지아		×	◎	◎	◎	×		
	몰도바		×	△	△	◎	×		

주: ◎: 국가순위 상위 30%, △: 국가순위 상위 31% ~ 70%, ×: 국가순위 상위 71% 이하
자료: 저자 작성.

동부권에서는 극동러시아 지역(연해주)이 곡물류의 최대 생산지이며, 보스토치항과 블라디보스톡항과 인접해 있다. 따라서 연해주는 동부권의 곡물생산 및 가공, 물류 분야에 대한 투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중부권에서는 카자흐스탄이 최대 농업국가이며, 투자환경이 중부권의 타 국가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 또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부권의 농업투자 거점국가로 카자흐스탄이 적정하며, 과일/채소류의 가공, 종자산업, 시설원예 기자재 산업에 대한 투자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다.

서부권의 경우, 최대 농업국가인 우크라이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이 열악한 편이나,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서부권 지역의 농기자재 산업과 축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투자의 거점역할에 적합할 것이다.

제3장

농업 분야 민간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현황

제3장

농업 분야 민간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현황

1. 한국의 농업 분야 해외진출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1.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35](2012. 1. 15. 제정 및 시행, 2015. 7. 21. 개정)과 '제3차 해외농업자원 개발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농식품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 식량 위기에 대비한 해외 식량 확보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크게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융자사업은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의 시설 확보 및 운영자금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금액을 연리 2%로 융자한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을

35) 前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해당함.

받아 사업을 심의하고 집행한다. 보조사업은 해외 진출 국가의 환경조사지원, 인력양성 교육,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포함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가 분담하여 시행한다.[36]

표 3-1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및 사업 시행 주체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조건	사업 시행 주체
융자사업	-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2%	한국농어촌공사
보조사업	- 보조 50~70% (대기업 50%) - 조사지원(맞춤형 환경조사, 컨설팅) - 인력양성(인력양성교육, 해외인턴) -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워크숍/세미나,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영농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mafra/1270/subview.do).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진출 농기업을 크게 3가지 단계[37]로 분류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탐색 단계'에서는 진출 국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현지 환경조사를 지원하고, 관련 사례집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진출 단계'에서는 진출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투자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융자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착 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지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컨설팅, 해외인턴 채용 지원, 현지 영농지원센터 운영, 그 외 간담회 및 워크숍을 통한 정보제공 및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38]

이 외에도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농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민간

36)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mafra.go.kr/mafra/1270/subview.do: 2019. 9. 20.)
37)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해외농업진출 기업의 현황을 탐색 단계, 진출 단계, 정착 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탐색 단계는 해외진출이전 단계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만, 진출 단계와 정착 단계는 두 경우 모두 이미 해외진출이후 단계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해외 진출 후 진출 단계와 정착 단계 간 구분이 모호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출기업의 현황을 '진출이전' 단계와 '진출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함.
38)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mafra.go.kr/mafra/1270/subview.do: 2019. 9. 20.)

네트워크활용사업이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현지 지사화 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대개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해외수출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완제품 수출이 아닌 현지 생산기반을 갖추고 해외로 진출하는 해외농업개발 기업을 위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1.1.1. 융자사업 예산 및 실적 추이

2019년 책정된 융자사업 총예산은 119억 7천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6억 3천만 원 감소한 수준이다. 본 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개국 39개 기업에 1,709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었다. 북방지역의 경우, 러시아, 몽골, 중국(요녕성) 3개국에서 활동하는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386억여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었다.[39)]

표 3-2 연도별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 융자사업 예산 및 실적 추이(2009~2019)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획)	계
예산	210	210	300	300	330	300	140	126	126	126	119.7	2,288
실적	210	210	252	300	35	280	140	126	30	126	-	1,70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mafra/1270/subview.do).

<표 3-2>를 보면 해외 진출 지원 융자사업 예산은 2014년에 280억 원이 집행된 후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는 국회 예산삭감, 국제곡물가격 안정에 따른 개발수요 감소, 시중은행 상품 대비 경쟁력 및 비교우위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이대섭 외 2017). 예산편성 대비 집행율도 매우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과 2017년은 각각 330억 원, 126억 원의 사업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곡물 가격 변동 및 대내·외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불과 35억 원, 30억 원의 융자금이 집행되는 등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였다.[40)]

39)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mafra.go.kr/mafra/1270/subview.do: 2019. 9. 20.)

표 3-3 연도별 농식품 해외 진출 지원 융자 실적(2009~2018)

연도	진출 지역	지원 기업 수	진출국가	주요 대상 작물	융자액 (백만 원, %)
2009	전체	11개	5개국	밀, 콩, 옥수수, 귀리, 카사바	21,000
	북방	4개	러시아 연해주	밀, 콩, 옥수수, 귀리	9,713
2010	전체	10개	6개국	밀, 콩, 옥수수, 귀리, 카사바	21,000
	북방	2개	연해주	콩, 옥수수	8,123
2011	전체	9개	5개국	밀, 콩, 옥수수, 카사바	25,192
	북방	1개	몽골	밀, 콩	500
2012	전체	10개	8개국	콩, 옥수수, 밀, 귀리, 카사바	30,000
	북방	3개	몽골, 러시아 연해주	콩, 옥수수, 밀, 귀리	8,801
2013	전체	3개	3개국	콩, 옥수수, 귀리, 녹두, 사탕수수	3,490
	북방	1개	러시아 로스토프주	콩, 옥수수, 귀리	3,000
2014	전체	2개	1개국	팜	28,000
	북방	-	-	-	-
2015	전체	3개	3개국	밀, 유채, 메밀, 팜, 카사바	14,000
	북방	1개	몽골	밀, 유채, 메밀	1,500
2016	전체	2개	2개국	옥수수, 콩, 카사바	12,600
	북방	1개	러시아 연해주	옥수수, 콩	2,000
2017	전체	1개	1개국	팜	3,000
	북방	-	-	-	-
2018	전체	4개	4개국	콩, 옥수수, 귀리, 비육우, 토마토, 파프리카, 오일팜	12,600
	북방	2개	중국, 러시아 연해주	콩, 옥수수, 귀리	5,000
총 계	전체	39개	(14개국)		170,882(100)
	북방	11개	(3개국)		38,637(22.6)

주: 연해주는 러시아의 연해주 진출기업, 러시아는 러시아의 연해주 이외 지역 진출기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표 3-3>은 2009~2018년 기간 동안 농식품 해외 진출 융자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동기간 총 14개국 39개 기업에 1,700억 원 수준의 융자가 지원되었다. 특히, 북방 지역의 경우 러시아, 몽골, 중국(요녕성) 등에 진출한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3개국에서 활동하는 11개 기업에 총 15회에 걸쳐 390억 원 정도의 융자가 지원되었으며 이는 전체 융자금액의 22.6% 정도를 차지한다. 최근

40) 각주 39와 같음.

5년간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 9개 중 곡물을 취급하는 기업이 4개로 총 85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았고, 비곡물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이 5개로 총 617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았다. 곡물보다 비곡물 기업의 융자금 지원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방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 중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4개로 모두 곡물을 주로 취급하는 기업이다.[41]

1.1.2. 보조사업 예산 및 실적 추이

해외 진출 지원 보조사업의 예산은 2009년 30억 원을 시작으로 2011년에 한 차례 감소하였다가 현재까지 비슷한 예산액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보조사업 총예산은 약 31.5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억 5천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보조사업 총예산은 약 262억여 원이었으나, 실제 지원된 총액은 231억 원으로 약 30억 원의 예산이 불용 되었다. <표 3-4>를 보면, 2011년과 2012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예산대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42]

표 3-4 연도별 농식품 해외 진출 지원 보조사업 예산 및 실적 추이(2009~2019)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획)	계
예산	30	30	20	20	25	28	27	26	26	29	31.5	293
실적	26	26	20	20	20	24	21	23	23	28	-	23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mafra/1270/subview.do).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세부 내용은 크게 조사지원, 인력양성,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조사지원의 경우 해외농업투자 맞춤형 환경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조사지원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25개국 53개 기업의 환경조사를 지원하였고, 8개국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

41) 농림축산식품부(2019).
42)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mafra.go.kr/mafra/1270/subview.do: 2019. 9. 20.)

를 제공하였다. 북방지역 국가의 경우 6개국 18개 기업이 환경조사 관련 지원을 받았고, 러시아에 진출한 2개 기업이 컨설팅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43)]

표 3-5 조사지원 사업 실적(2009~2018)

구분	진출지역	진출 국가	기업 수
환경조사	전체	25개국	53개
	북방	6개국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키르기스스탄)	18개
컨설팅	전체	8개국	14개
	북방	1개국 (러시아)	2개

자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내부자료(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인력양성 지원의 경우 크게 인력양성 교육과정과 해외인턴파견사업으로 나뉜다. 2018년 누적 기준 18개 교육과정을 187명의 인원이 수료하였으며, 11개국 16개 진출기업에 총 30명의 해외인턴이 파견되었다. 교육과정 수강은 개인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진출지역별로 지원 실적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북방지역과 관련해서는 2015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진출 관련 대규모 영농 전문인력 교육과정과 지역 분야별 특화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된 바 있다. 해외인턴제도의 경우 러시아 3개 기업, 카자흐스탄 1개 기업, 몽골 1개 기업, 중국 1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2명의 인턴이 파견되었다.[44)]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은 워크숍, 세미나 및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영농지원센터 운영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워크숍 및 포럼은 해외농업 진출기업과 유관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간의 상시 정보교류 및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특히 2018년 6월부터는 정부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 중점 추진과제인 농업 분야 진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정례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각각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두 차례 진행되었다. 영농지원센터는 진출기업의 신속한 애로사항 해소 및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2014년 이후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지역에 한 곳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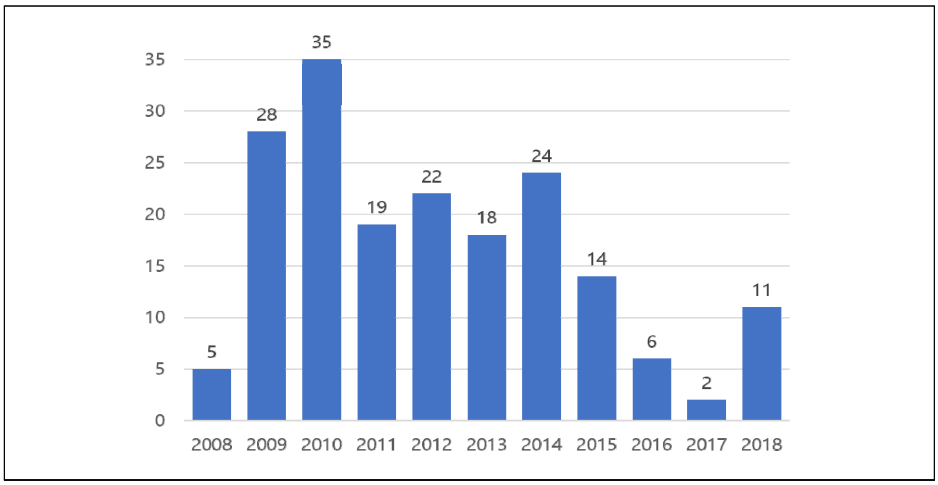
43)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2019).
44) 위와 같음.

1.2.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제도

1.2.1. 신고기업 구성 및 운영 현황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농기업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장 제7조에 의거하여 해외농업개발 활동을 신고하고 융자지원을 비롯한 정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12월 기준까지 총 184개[45] 기업이 29개국의 해외농업개발 활동을 신고하였다. 연도별 신고기업 건수는 2008년 5개 기업의 신고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신규 신고기업 수는 등락을 거듭하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3-1> 참조).[46]

그림 3-1 연도별 신고기업 건수 추이(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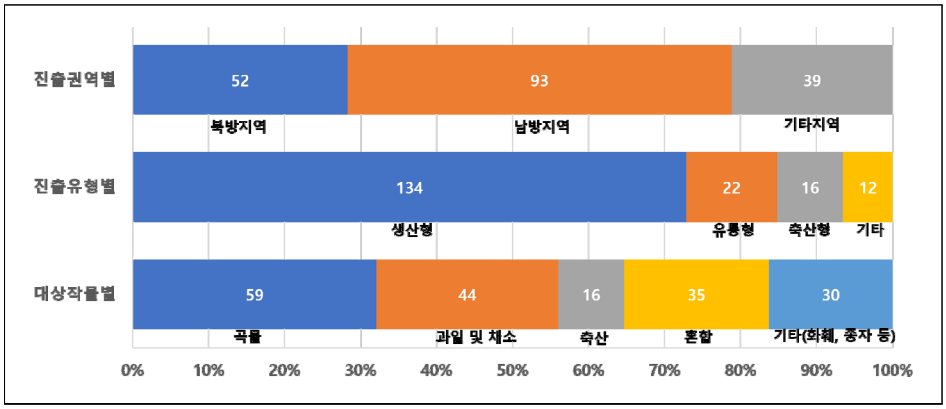
자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내부자료(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5) 실제로 해외농업개발 기업으로 신고한 기업 수는 179개 기업이나, 그중 중복으로 신고된 5개 기업이 존재함.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 동시에 진출한 기업일 경우 진출한 국가별로 각각 신고하였기 때문임. 동일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진출한 국가별로 법인, 진출형태, 취급품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은 총 184개로 간주하였음.

46)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2019).

<그림 3-2>는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의 진출지역별, 진출유형별, 대상작물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진출지역은 북방, 남방, 기타지역[47]으로 구분하였고, 진출유형은 생산형, 유통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대상작물별로 곡물, 과일 및 채소, 축산 등으로 구분하여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3-2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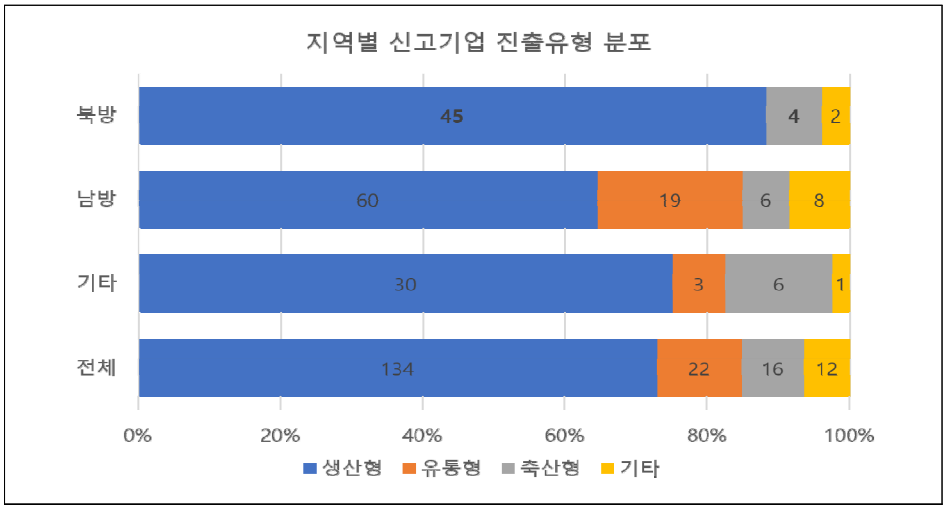
자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내부자료(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진출지역별로 보면, 전체 기업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93개 기업(50.5%)이 남방지역으로의 진출 또는 진출계획을 신고하였으며, 52개 기업(28.3%)이 북방지역, 39개 기업(21.2%)이 기타지역에 진출 및 진출계획을 신고하였다. 북방지역보다는 남방지역에 더 많은 한국 농식품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출유형별로는 184개 신고기업 중 134개 기업(72.8%)이 생산형 진출형태에 해당하였다. 생산형은 기업이 실제 해외에 농장을 개발하여 농산물을 생산·판매 하는 형태를 뜻한다. 또한, 직접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 현지에서 농산물을 매입하여 도·소

47)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진출 국가를 지역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음: 북방국가 및 지역(러시아 극동관구(연해주),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중국 동북 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총 9개), 남방국가(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총 7개), 기타국가 및 지역(뉴질랜드, 러시아(기타지역), 루마니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국, 브라질, 스리랑카, 우간다, 우루과이, 중국(기타지역), 칠레, 콩고민주공화국, 파키스탄, 호주 총 15개국).

매업을 운영하는 유통형 기업은 22개로 전체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육우생산, 양돈, 양계 등 축산업을 운영하는 축산형 기업은 16개로 전체의 8.7%를 차지하며, 그 외 스마트팜 단지, 종자 생산 보급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 기업이 전체의 6.6%인 12곳에 해당했다. 대상 작물별로는 밀, 콩, 옥수수, 귀리 등 곡물류를 취급하는 기업이 59개로 가장 많은 비중(32.1%)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과일 및 채소 작목을 취급하는 기업(44개, 23.9%)이 많음을 알 수 있다.[48]

그림 3-3 지역별 신고기업 진출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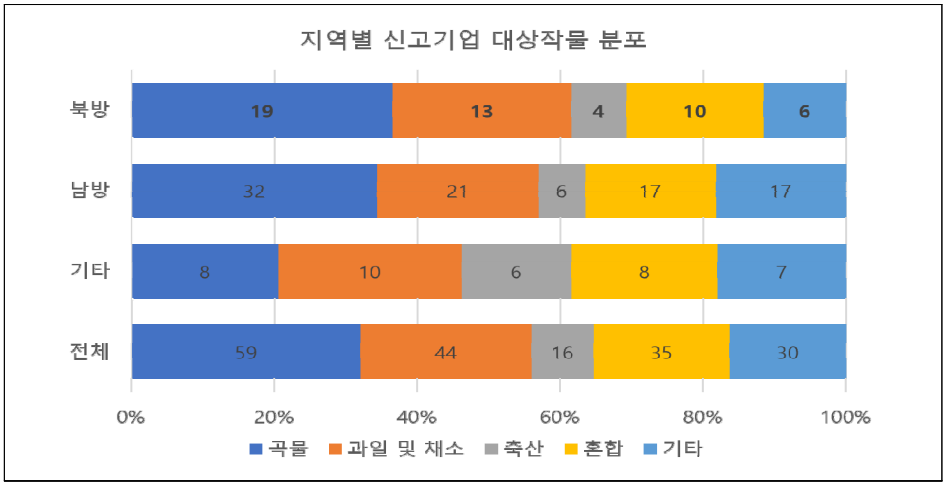
자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내부자료(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3>에서 지역별로 신고기업의 진출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형 진출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북방지역 진출 신고기업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88.2%(45개)가 생산형 기업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남방지역 진출기업의 경우 유통형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진출유형에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49]

48)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2019).
49) 위와 같음.

<그림 3-4>에서 나타나듯 지역별 취급품목의 분포 또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북방지역 신고기업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곡물을 취급하는 기업 비중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50]

그림 3-4 지역별 신고기업 대상작물 분포



자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내부자료(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신고기업의 운영 현황 및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기업들로부터 운영실적보고를 받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총 184곳 중 2018년 운영실적을 보고한 기업체는 52개로 전체 신고기업의 약 28%에 해당한다. 아래 <표 3-6>은 2018년 기준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수 대비 운영기업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신고연도별, 취급품목별로 살펴볼 때 적게는 21%에서 많게는 35% 정도의 실적보고율[51]을 보여주고 있다. 진출지역별로 실적보고율을 보면, 기타지역이 30%로 가장 높았고, 북방지역의 경우 27%로 비교적 낮은 실적보고율을 보여주고 있다. 취급품목별로 보면, 여러 작물을 함께 취급하는 '혼합' 유형

50)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2019).
51) 정부에서는 이를 생존율 또는 정착률로 간주하고 있음,

(35%)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운영실적보고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과일 및 채소의 경우에도 보고율이 33%로 다른 품목별 대비 높은 보고율을 보여주고 있다. 곡물의 경우 보고율은 27%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북방지역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에 진출한 대형 곡물 재배 기업들의 실적보고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중국 진출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고율을 보였다.[52)]

표 3-6 2018년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수 대비 실적보고 기업 수 현황

구분		신고기업 수 (A)	실적보고 기업 수 (B)	비율 (B/A)
지역별	북방	52	14	27%
	남방	93	26	28%
	기타	39	12	30%
신고연도별	2008~2010년	68	22	32%
	2011~2015년	97	30	31%
	2016~2018년	19	-	-
취급품목별	곡물	59	16	27%
	과일 및 채소	43	14	33%
	축산	15	3	20%
	혼합	34	12	35%
	기타	33	7	21%
계		184	52	28%

자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내부자료(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2.2. 신고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실적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수와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개발면적, 확보량, 국내 반입량 등의 해외농업개발 실적이 소규모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3-7> 참조). 해외농업개발 생산 및 확보량은 2013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 연평균 25.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반입량의 경우 절대적인 반입 규모는 10% 이하로 매우 작지만, 연평균 83.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53)]

52)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2019).

표 3-7 신고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실적 추이(2009~2018)

단위: 천 톤,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생산 및 확보현황	12.7	82.6	146.6	171.2	159.3	150.3	220	244.7	493	622	2,302.4
국내 반입량 (생산량 대비 %)	-	0.2 (0.24)	0.8 (0.55)	1 (0.58)	5.5 (3.45)	7 (4.66)	10 (4.55)	22.2 (9.07)	35.3 (7.16)	47 (7.56)	129 (5.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2018년 12월 기준, 한국은 진출 신고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활동을 통해 9만여 ha의 재배면적을 개발하고 62만 톤의 농산물을 생산 및 확보하여 4만 7천 톤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재배면적은 11%, 확보량은 26%, 반입량은 27%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북방지역 진출기업은 2018년에 총 2만 5천여 ha의 면적을 개발하고, 6만 5천 톤의 농산물을 확보하였다. 그중 국내로 반입된 물량은 3.3만 톤으로 2018년 전체 곡물 반입량의 약 70%에 해당한다.[54]

한편, 2018년 농산물 생산 및 확보량 62만 2천 톤 중 약 12만 5천 톤이 곡물 확보량에 해당했다. 대부분의 확보 곡물은 옥수수(10만 톤, 16.1%)에 해당하며, 그 외 작물로는 콩(2만 4천 톤, 3.8%), 밀(1만 4천 톤, 0.2%) 등이 집계되었다. 확보된 물량 중 비곡물은 오일팜, 카사바 등이 있으며, 이는 전체 물량의 약 80%인 50여만 톤을 차지하였다(<표 3-8> 참조).[55]

표 3-8 신고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품목별 확보량(2018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계	곡물				비곡물* (기타)
		밀	콩	옥수수	계	
농산물 확보량	621,592 (100%)	1,402 (0.2)	23,798 (3.8)	99,842 (16.1)	125,042 (20.1)	496,550 (79.9)

주: 비곡물*: 오일팜, 카사바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53) 농림축산식품부(2019).
54) 농림축산식품부(2019).
55) 위와 같음.

2018년 기준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농기업은 총 9만여 ha의 농장을 개발하였다. 그중 남방지역이 6만 2천 ha를 개발하여 전체의 6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방지역의 경우 2만 6천 ha를 개발하여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개발된 면적이 2만 5천 ha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농산물의 확보량은 62만 톤으로 이 중 88%인 55만 톤이 남방지역에서 생산되었다. 북방지역의 경우 확보량은 6만 5천 톤으로 전체의 1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방지역 확보량의 대부분은 러시아 연해주(6만 2천 톤)에서 생산되고 있다. 한편, 2018년 기준 국내로의 반입실적을 보면, 전체 반입량 4만 7천 톤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3만 3천 톤이 북방지역으로부터 유입되었고 이는 전량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부터 반입되었다. 전체 확보량의 88%를 차지하는 남방지역의 반입량은 30.1%인 1만 4천 톤에 그쳤다. 이는 북방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이 남방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보다 곡물의 국내 반입량에는 더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발면적, 반입량, 확보량을 권역별이 아닌 지역별로 봤을 때, 극동러시아의 경우 개발면적으로는 2위, 확보량으로는 3위, 반입량으로는 1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56)]

진출기업들이 보고한 2019년 계획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북방지역 진출기업들의 경우 개발면적을 현상 유지 혹은 축소하고 확보량을 늘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생산면적의 증가가 아닌 재배기술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작물 생산성 증대를 통한 생산량 증대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극동 지역의 작물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극동지역 진출기업의 콩 생산성은 2013년 0.9톤/ha에서 2017년 2톤/ha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옥수수 생산성은 4.1톤/ha에서 8.1톤/ha로 증가하였다.[57)]

56)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2019).
57) 농림축산식품부(2018).

표 3-9 신고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진출 국가별 실적 추이(2017~2019)

국가	개발면적(ha)			확보량(톤)			반입량(톤)
	'17	'18	'19 계획	'17	'18	'19 계획	'18
러시아(연해주)	21,406	24,775	22,253	63,483	62,136	66,043	32,848
중국(동북3성)	1	14	1	1,650	1,800	250	-
몽골	1,214	500	500	15	231	336	-
카자흐스탄	4	4	4	595	719	800	-
키르기스스탄	396	346	-	1,000	-	-	-
북방지역 계	23,021	25,639	22,758	66,743	64,886	67,429	32,848
캄보디아	6,544	3,863	8,628	97,918	84,323	131,538	12,469
인도네시아	45,411	45,478	55,790	303,899	414,943	437,879	-
라오스	-	12	33	-	15	43	-
베트남	107	161	196	1,606	1,584	3,011	1,274
미얀마	671	12,233	30,558	1,370	46,216	116,122	400
남방지역 계	52,733	61,747	95,205	404,793	547,081	688,593	14,143
러시아(기타지역)	2,213	-	-	10,424	-	-	-
중국(기타지역)	418	87	92	6	33	200	-
파키스탄	-	22	108	-	100	500	-
루마니아	5	5	5	33	26	32	-
브라질	1,100	988	1,260	1,090	940	2,682	5
칠레	27	27	27	122	99	115	-
호주	155	198	200	7,950	8,247	500	
마다가스카르	30	30	-	53	43	-	-
우간다	195	162	172	1,315	138	70	-
기타지역 계	4,143	1,519	1,864	20,993	9,626	4,099	5
총 계	79,897	88,903	119,827	492,529	621,592	760,120	46,996

자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내부자료(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3. 해외진출지원사업 관리의 문제점

1.3.1.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관리체계 미흡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는 '신고기업'은 우리 농기업이 해외 진출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가 아니다. 기업이 정부의 해외진출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리스트'에는 실제 해외농업개발에 진출한 기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진출 후 사업 실패로 철수한 기업, 진출을 계획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혼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고기업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해외농업개발 융자 및 보조 지원을 받은 기업은 매년 사업운영 실적을 정부에 보고해야한다. 정부는 이러한 실적보고(개발면적, 생산 및 확보량, 국내 반입량 등)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실적, 생존율 및 정착률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실적보고율에 불과하다. 실제로 해외에서 농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도 있을 것이고, 신고를 하였으나 여전히 진출이전 단계로 진출하지 않은 기업도 있을 것이다. 또, 실제 해외사업에 진출하였으나 사업부진, 수익성 결여로 사업을 철수한 기업도 있다. 따라서 현재 발표하는 실적보고율을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의 생존율 및 정착률로 파악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해외 진출 농기업의 보다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표 3-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고기업의 진출률, 생존율, 실적보고율, 정착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표 3-10 신고기업의 진출률, 생존율, 실적보고율, 정착률에 대한 정의

구분	정의
진출률	전체 신고기업 중 실제 해외에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
생존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 중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
실적보고율	현재 생존한 기업 중 운영실적을 보고하는 기업의 비율
정착률	현재 생존한 기업 중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

주: 정착률의 판단 기준인 3년 이상은 다음 장에서의 신고기업 사업지속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의.
자료: 저자 작성.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고자 신고를 한 기업이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이 해외에 진출했는지, 사업에 실패하고 철수 했는지, 여전히 진출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정도의 정보만 파악하여도 <표 3-10>에 정의되어 있는 다양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고기업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생산량, 국내 반입량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현재 해외사업에 진출 또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농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및 관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부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고자 신고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수익률, 고용인원, 애로사항 등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지원의 방향성과 추진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3.2. 해외진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미흡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정부는 융자 및 보조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조사업의 경우 2009~2018년 기간 동안 2011년과 2012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융자사업의 경우에도 예산대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보조사업의 지원 실적을 보면, 2009~2018년 기간 10년 동안 53개의 기업에게 맞춤형 환경조사를 지원하였다. 이는 매년 5개 정도의 기업만 지원혜택을 받은 것이다. 컨설팅지원의 경우, 10년간 14개 기업만이 지원을 받았고 이는 연간 2개도 되지 않는 지원실적이다.[58] 이러한 계획된 예산의 불용은 지속적인 예산의 감소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설명을 통해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농기업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진출기업의 신속한 애로사항 해소 및 영농활동지원을 위해 영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영농지원센터는 러시아 연해주에 1개소만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기업의 현황을 보면 북방지역의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부, 서부, 나아가 남방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 농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농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러시아 동부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농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은 국가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확보 자원의 국내반입 의무를 지닌다.[59] 따라서 국내 반입량을 비롯하여 생산 및 확보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 실적 보고를 받고 있으나 재배면적, 생산량, 국내 반입량 등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다. 향후 진출기업들의 운영실태와 정부 정책지원 수요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인원, 애로사항, 수익률, 매출액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58)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2019).

59) 비상시란 식량 수급에 중대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경우로 가격 수준과 관계없이 국제거래시장에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내 식량수급에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에 해당함(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 http://www.oads.or.kr/business/business05.asp: 2019. 10. 1.).

2. 일본 해외농업개발 지원정책 사례[60)]

일본 정부는 식량안보와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 촉진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2009년)과 글로벌 농식품 가치사슬 전략 수립(2014년)을 통해 해외 진출 사업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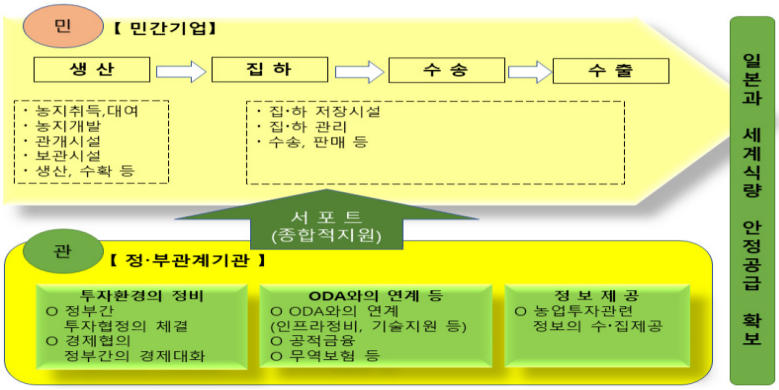
2.1. 일본의 민간기업 해외농업개발 지원정책

2.1.1. 「해외투자촉진에 관한 기본지침」(2009년 8월)

이 지침의 기본방향은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기업 및 투자대상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상호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일본은 국제 식량수급 동향, 식생활의 중요성, 수입의존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대상 작물을 대두, 옥수수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중남미, 중앙아시아, 동유럽을 중점개발 지역으로 선정하여 투자환경 정비와 함께 해외농업 투자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61)]

60)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지원정책 사례 검토를 위해 본 과제에서 수행한 위탁연구(임정빈 2019)의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함.
61) 일본농림수산성(2009).

그림 3-5 일본의 해외투자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



자료: 일본농림수산성(2009).

〈참고〉 민관협력 모델

○ 투자환경의 정비: 민간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정부 간 경제대화를 통해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투자환경을 정비
○ ODA와 연계: 민간기업의 우호적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대상국의 생산 및 유통 인프라 정비, 인력육성 등을 위한 ODA 재원 활용
○ 공적금융의 활용: 해외농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등을 활용
○ 무역보험제도: 대상국의 국가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하여 무역보험 활용
○ 농업기술지원: 투자대상국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종자개량, 병해충관리, 토양개량, 농업수자원관리,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농업연구기관,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등을 이용하여 공동 농업기술 협력 연구 및 기술지원, 전문가 파견 등을 실시
○ 농업 투자관련 정보제공: 투자대상국의 농지, 법규, 세제, 관련 시장동향 등 해외농업투자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체계구축, 민간투자기업에 관련 지역 및 해외농업전문가 소개 및 알선
○ 무역의 안정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혹은 양자 간 협상으로 투자대상국의 수출규제 및 일본의 수입규제 억제 등을 통해 해외개발 식량의 수입안정화 도모
○ 해외투자 활성화 계획수립: 민·관 합동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합동으로 현지조사 및 사절단 파견 등을 실시

자료: 일본농림수산성(2009).

2.1.2.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한 행동원칙(2009년 7월 제정)

개도국의 경제성장 부진으로 장기간 농업 분야 투자 침체가 이어지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생산성과 소득 향상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개도국 농촌의 심각한 빈곤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농업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해외농업에 대한 투자가 부적절하게 계획되고 시행될 경우, 투자 수용국인 개도국 농업과 시장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자 일본 정부는 해외투자의 행동원칙 제정을 강구하였다.[62)]

〈참고〉 책임 있는 농업투자원칙

○ 1원칙: 토지 및 자원에 관한 권리 존중
○ 2원칙: 식량안보 확보
○ 3원칙: 투명성,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의 확보
○ 4원칙: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실행
○ 5원칙: 책임 있는 농업기업 투자자로서 법률을 존중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지속적인 공통의 가치를 보장
○ 6원칙: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사회 분배적 기능 확보
○ 7원칙: 환경영향을 감안하여 계량화된 위험과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촉진

자료: 일본외무성(2018).

일본은 이탈리아 라퀼라 G8 확대정상회의에서 투자대상국, 현지인(농가포함), 투자자 등 주요 이해당사자의 상호 이익 극대화를 위한「책임 있는 농업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 PRAI)」제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UN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cultural Development: IFAD),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62) 일본외무성(2018).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가 본 원칙을 채택하였으며, G8, G7,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아프리카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 등에서도 주요 국가가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63]

2.1.3. 「글로벌 농식품 가치사슬 전략」(2014년 6월)

일본정부는 글로벌 농식품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1) 일본 농식품 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성장을 도모하고, 2) 민간투자와 경제협력과의 연계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3) 일본 농식품의 수출환경 정비를 통한 '일본 食' 인프라 조성 및 농식품 수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일본농림수산성은 농식품관련 산업의 2020년 해외매출 목표를 2010년도 매출액인 약 2.5조 엔의 2배 수준인 5조 엔으로 설정하였다.[64]

그림 3-6 일본의 글로벌 식품 가치사슬 구축 개념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2014).

63) 일본외무성(2018).
64) 일본농림수산성(2014).

최근 일본정부는 일본 식문화 및 농산품 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농식품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10개의 기본전략과 아세안, 중국,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역별, 국가별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오고 있다.[65)]

〈참고〉 글로벌 농식품 가치사슬 구축 기본 전략

○ 産學官 연계에 의한 전략적 대응
- 실제 해외투자사업 전개의 주체는 "産", 해외투자사업 환경정비는 "官", 해외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연구·기술 개발은 "學"이라는 역할분담 아래 産學官이 연계하여 일본 농식품 산업의 '강점'을 살려 고부가가치 체계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産學官이 연계하여 ①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농식품 가치사슬을 연결, ② 진출지역의 농식품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핵심적 과제해결 추진(진출지역의 생산·유통·소비체제, 투자 등의 규제·제도, 식품의 규격기준,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인재의 확보, 기술, 세제, 인프라(콜드체인, 물류시설, 유통판매망 등), 자금조달 등), ③ 일본의 '강점'을 "재팬브랜드"로 구축하여 판매, ④ 일본기업에 의한 콜드체인, 식품가공단지, 유통판매망 등 식품의 인프라 시스템 수출을 추진하고, 日食의 수출환경을 정비

○ 일본과 대상국 産學官 연계의 틀 구축
- 일본과 진출대상국의 産學官이 연계하여 대상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식품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행을 위한 장으로서 중점 추진국 및 국가 양자간 정책대화, 민관협의회 등의 틀을 구축해 나감
- 양자 간 정책 대화 및 민관협의회를 수레의 양 바퀴로 하여 해외투자 계획과 전략을 수립, 해외투자 사업화 가능성 조사(F/S조사)와 민관 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리
- 현재 양자 간 정책 대화는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65) 일본농림수산성(2014).

〈참고〉 글로벌 농식품 가치사슬 구축 기본 전략 (계속)

○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전략적 활용

- 일본 농식품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식품 가치사슬의 구축을 위해 ODA를 통한 개도국 대상의 경제협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
- 일본의 농식품 산업의 '강점'을 살려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와 연계된 개발도상국의 ODA 지원사업을 추진
- 이외에도 FAO, APEC,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일-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3(일본·중국·한국) 등 국제기구 및 각국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도국의 식품 가치사슬 구축 방안을 추진

○ 콜드체인 등의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경제협력 인프라 전략회의 및 농림수산물 수출촉진 전국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정책대화, 민관협의회 등의 틀을 활용, 하드 인프라(콜드체인, 저온물류센터, 가공시설, 농업기계, 식물공장, 관개시설 등)와 소프트 인프라(ICT, 에너지절약·환경기술, 신선도 유지기술, 품질관리 기술, 식미계측 기술, 인재양성, 농업생산·식품의 규격기준 제도화)를 묶음전략으로 하여 매력적인 해외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감
- 신선제품, 가공품 등 고품질 일본 농식품의 수출환경을 정비하고 동시에, 일본계 현지 소매, 외식, 제조·가공 기업을 통한 숍인숍 형태의 수출체제를 구축

○ 해외비즈니스 투자환경의 정비

- 양국 간 정책대화, 총리와 각료 등의 고위급 외교대화, 각국과의 경제협력 등을 활용하여 일본 농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상대국의 투자, 식품안전·동식물 검역관련 규격·기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사업투자 환경을 개선

○ 해외정보 수집체계의 강화

- 일본 농식품 진출이 유망한 중점 국가와 지역에 대한 시장조사, 테스트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공관의 지원 담당관, 인프라 프로젝트 전문관 및 현지 일본기업 상공회의소와도 연계하여 해외 비즈니스 환경과 시장정보의 수집·제공·상담 체계를 강화
- 농림수산성과 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에 기업상담 담당창구를 설치하여 해외정보의 원스톱 서비스 추진

〈참고〉 글로벌 농식품 가치사슬 구축 기본 전략 (계속)

○ 전문인력의 육성

- 농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및 농식품 가치사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상대국 내의 인재를 육성하고, 이 인재들을 활용 산학관 연계로 진출대상국 대학 내 무료강좌 개설,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교육, 일본과 상대국의 대학·연구기관의 인적교류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노력

○ 기술개발의 추진

- 산학관 연계를 통해 일본의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타 분야와의 연계 및 협력 사업을 활용하여 현지의 요구에 맞는 농업생산·식품제조·유통 등의 기술개발, 품종개발, 유전자원의 상호이용 등을 추진
- 또한 일본과 상대국의 대학·연구기관·기업 간의 연구협력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쌍방의 산학관 연계 연구협력을 강화함

○ 자금조달의 원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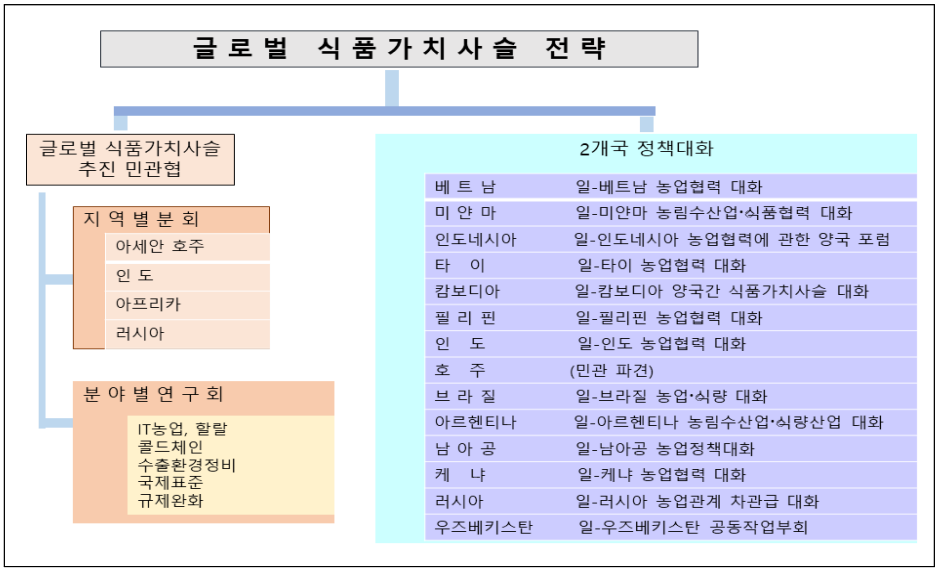
- 농식품 산업의 해외 진출 시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국제협력기구(JICA)에 의한 해외 투융자 및 차관, 국제협력은행(JBIC)에 의한 융자, 일본무역보험(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NEXI)에 의한 무역보험, 해외수요 개척 지원 기구 및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A-FIVE) 등과 연계한 재무금융 및 프로젝트 지원,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융자, 민간보험회사의 농업위험보험 등의 지원 도구를 활용

○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연계강화

- 일본정부는 해외시장에 (1) 일본산 농식품의 수출(Made in Japan), (2) 일본산 식재료의 활용(Made from Japan), (3) 일본의 「식문화 및 식산업」의 해외전파(Made by Japan)를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 농식품 가치사슬의 구축(Made with Japan)에 의한 일본 식문화 및 식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 중
- 이러한 일본 농식품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본내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관합동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FAO, 세계은행 등 해외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감

자료: 일본농림수산성(2014).

그림 3-7 일본의 글로벌 농식품 가치사슬 전략 추진체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2019a).

〈참고〉 일본의 북방지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가와의 양자 정책대화

○ 러시아: 농수산분야에서 러·일 협력에 대해 논의. 민관 사절단에서는 러시아 극동의 일본기업의 진출, 경제특구의 우대정책 등을 주제로 러시아 측 제안 프로젝트 청취, 현지기업 등을 방문

- 일-러 농업 대화 3회 실시 (2013. 5. ~ 2016. 7.)
- 일-러 농업 관계 차관급 대화 4회 실시 (2017. 6. ~ 2018. 12.)
- 극동러시아에 민관사절단 6회 파견 (2015. 8. ~ 2018. 10.)

○ 우즈베키스탄: 공동작업반에서 민관이 연계된 협력사업 및 양국 간 농업협력 추진에 대해 논의

- 일-우즈베키스탄 공동 작업반 3회 실시 (2016. 3. ~ 2018. 6.)

자료: 일본농림수산성(2019a).

2.2.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정책 추진체계

2.2.1. 기본체계

일본은 외무성(양국 간 국제협력사업/JICA), 경제산업성(중소기업의 해외지출 지원/JETRO), 농림수산성(농림수산분야 지원) 등이 부처별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사업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민간기업이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투자환경의 정비, ODA 공적개발지원, 환경조사, 정보제공, 기술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주로 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는 기구(JETRO, 中小機構, JICA, 商工中金, 日本公庫, NEXI, 日商, INPIT, JBIC, 信用保証協會 등)가 해외농업개발 추진에 따른 각종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글로벌 식품 가치사슬 전략」이 수립된 이후에는 중소기업지원(외무성, 중소기업청)과 농업 분야 협력사업(농림수산성)이 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66]

표 3-11 일본 정부부처의 해외농업개발 단계별 지원내용

부처명	단계	지원사업 내용
외무성	조사 단계	EPA(경제연계협정)활용 세미나 개최 및 해외정보 제공
	진출 단계	무상자금협력(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한 기계와 재료 공여)
		유엔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중소기업청	계획준비 단계	판로개척강화 지원사업비 보조(인증추진 강화사업)
농림수산성	조사 단계	농식품 수출관련 정보의 제공
	계획준비·진출 단계	식품산업기업의 해외진출지원사업
		농식품의 수출촉진 사업
		농식품 수출상담 창구

자료: 일본중소기업청(2019).

66) 일본중소기업청(2019).

2.2.2. 해외 진출 민간기업에 대한 주요 기관별 지원 상황

일본정부는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정보수집, 사업현지화조사 및 계획수립, 판로개척 및 자금조달 등 조사 단계, 계획·준비 단계, 해외진출 단계에 맞는 종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농림수산성), 농림축산식품의 수출촉진지원(농림수산성, JETRO), 수출진흥서비스지원(JETRO) 등을 통해 타 업종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보조사업은 농림수산성이 직접 협회 또는 민간기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는 상공조합중앙금고,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을 통해 민간기업이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표 3-12 일본의 주요 기관별 민간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현황

기관명	지원 현황
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1]	ㅇ 중소기업의 국제 비즈니스 활동 지원 ㅇ 재외 일본 기업의 해외사업 활동 지원 ㅇ 무역투자 상담·정보 제공 ㅇ 각종 해외정보의 수집·제공 ㅇ 경제연계협정(EPA)에 의한 협력사업 ㅇ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
中小機構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2]	ㅇ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 등의 사업자에 대한 지원 ㅇ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중소기업 공제 ㅇ 기타 중소기업 사업활동 활성화 기반정비 사업
JICA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3]	ㅇ 정부 개발원조 실시기관 ㅇ 대상국가 개발원조 과제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ㅇ ODA 사업계획 수립 ㅇ 국제협력 인재의 확보 및 파견
商工中金 (주식회사상공조합중앙금고)[4]	ㅇ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출자한 유일한 정부계 금융 기관 ㅇ 예금, 채권발행, 국제환율, 단기금융 서비스
日本公庫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5]	ㅇ 중소기업 자금지원, 신용보험 제도 ㅇ 농림수산 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 ㅇ 중소기업 등의 해외사업 지원
NEXI (일본무역보험)[6]	ㅇ 일본기업의 해외거래(수출·투자·융자)의 수출불능 및 대금회수 불능 등 보험 운영
日商 (일본상공회의소)[7]	ㅇ 상공업 진흥에 기여 위해 종합조정 및 국내외 경제단체와의 제휴 ㅇ 소기업 등 약 125만여 개 회원

(계속)

기관명	지원 현황
INPIT (일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8]	ㅇ 공업 소유권 상담 업무, 정보유통 업무, 대외 정보 서비스 업무 ㅇ 산업 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
JBIC (일본국제협력은행)[9]	ㅇ 중요한 자원의 해외 개발 및 취득 ㅇ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및 향상 ㅇ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해외 사업의 촉진
信用保証協會 (일본신용보증협회)[10]	ㅇ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자료: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내용을 재정리.
1) 일본무역진흥기구(https://www.jetro.go.jp/: 2019. 8. 20.).
2)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https://www.smrj.go.jp/: 2019. 8. 20.).
3) 일본국제협력기구(http://www.jica.go.jp/: 2019. 8. 20.)
4) 일본상공조합중앙금고(https://www.shokochukin.co.jp/: 2019. 8. 20.).
5) 일본정책금융금고(https://www.jfc.go.jp/: 2019. 8. 20.).
6) 일본무역보험(https://www.nexi.go.jp/: 2019. 8. 20.).
7) 일본상공회의소(https://www.jcci.or.jp/: 2019. 8. 20.).
8) 일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https://www.inpit.go.jp/: 2019. 8. 20.).
9) 일본국제협력은행(https://www.jbic.go.jp/: 2019. 8. 20.).
10) 일본신용보증협회(https://ci.nii.ac.jp/: 2019. 8. 20.).

2.2.3. 농림수산물 및 식품 관련 지원사업

일본정부의 농림수산식품 지원사업은 주로 농림수산성과 JETRO가 수행한다. JETRO는 농식품 수출진흥서비스를 통해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전문가의 수출전략 수립과 민간기업의 해외박람회 참석을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 수출대상 국가·지역의 법규 및 시장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67]

일본농림수산성은 농식품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일본 유망 농식품의 현지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현지조사, 정보수집을 지원하고 일본 외식기업을 해외 외식기업과 매칭하여 계약협상 및 개점이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일본인 일식요리사 육성을 위한 세미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일본상품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농림규격(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JA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국·지역의

67) 일본무역진흥기구(https://www.jetro.go.jp/: 2019. 8. 21.)

식품첨가물 규격 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지원사업 중 하나다.[68]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일본농림수산성과 JETRO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JETRO가 개최하는 수출업자 대상 세미나·연수 및 국내외 상담회 참가를 지원하고 주요 해외 전시회에서 JETRO가 마련한 부스에 출전을 돕는다. 또한 수출확대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분야 및 주제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두 기관은 도쿄, 오사카 등 각지 사무소에 '농림수산물·식품수출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수출국의 수요동향 및 규제와 관련 대면 또는 전화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지원하기도 한다.[69]

한편 일본외무성은 재외공관을 이용해 일본 식품기업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의 수출 및 식품산업 해외 진출 담당관을 총 58개의 재외공관에 배치하여 현지 규정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사관저를 활용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70]

2.2.4. 기타 유관기관의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사단법인 협력사업

일본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전문으로 활동하는 주요 사단법인은 3곳이다. 일반사단법인 해외농업개발협회(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ssociation: OADA)는 민·관에 의한 해외농업협력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1969년 경단련과 농림·외무 양성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농업협력에 종사하는 관민 기술자를 양성하고,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1974년 국제협력사업단(JICA)이 설치되면서 업무를 이관하였다. 현재 주요사업은 ① 민간기업에 대한 조언 ② 전문가의 파견 ③ 조사 및 연구 ④ 세미나, 연설회의 개최 ⑤ 정보의 수집 제공 ⑥『중국농업위원회』,『釉料작물 개발계획위원회』사업 ⑦ 농촌지역 진흥과 인

68) 일본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 : 2019. 8. 21.)
69) 일본무역진흥기구(https://www.jetro.go.jp/: 2019. 8. 21.)
70) 일본외무성(http://www.mofa.go.jp/: 2019. 8. 21.)

재의 육성 등이 있다.[71]

공익사단법인 국제농업인교류협회(Japan Agricultural Exchange Council: JAEC)는 청년농업인의 해외파견과 개발도상국 농업연수생 수용을 목적으로 청년농업인의 국제감각 함양과 자질 향상, 개발도상국의 핵심 농업인 양성, 농업자 수준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한다. 1952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국제농우회와 1966년에 발족한 사단법인 농업연수생파미협회가 농업연수생 해외파견 사업을 내실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해산·통합하여 1988년 3월 30일에 설립(2012년 4월 1일 공익사단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사업은 ① 농업연수생 해외파견 ② 아시아 농업 청년인재 육성 ③ 유럽 농업연수생 연수 ④ 해외농촌개발 지원 ⑤ 국제화 대응 영농연구 ⑥ 정보 및 서비스 사업 등이다.[72]

마지막으로 일반사단법인 해외농업개발컨설턴트협회(Agriculture Development Consultant Association: ADCA)는 해외농업농촌 정비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개발 수요를 일본정부 및 JICA와 함께 개발하고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대상에 대하여 컨설팅 인력을 파견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① 해외농업개발에 관한 프로젝트 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② 해외농업 개발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활용 ③ 컨설턴트 등의 회원에 대한 조언 등 기술 서비스 ④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 알선 ⑤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홍보·보급 활동 등이 있다.[73]

2.2.5.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사례

일본의 해외농업 진출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다. 대기업은 주로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곡물확보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글로벌 식품 가치사슬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진출한다.

71) 해외농업개발협회(http://www.oada.or.jp/ : 2019. 8. 21.)
72) 국제농업인교류협회(http://www.jaec.org/: 2019. 8. 21.)
73) 해외농업개발컨설턴트협회(http://www.adca.or.jp/: 2019. 8. 21.)

식량곡물 및 사료작물 등 식량안보 차원의 해외농업개발은 마루베니(丸紅), 미쓰비시(三菱商事), 토요타(豊田通商), 이토추(伊藤忠商事) 등의 대기업이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러시아 등 농지가 풍부한 국가에서 대규모로 추진해 왔으며, 2014년 글로벌 식품 가치사슬 구축 전략 추진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사례가 대다수이다.

〈참고〉 민간기업의 북방지역 진출사례

1. 극동러시아 농림수산업 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 러·일 정상회담 시 아베총리가 러시아의 생활환경,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협력계획 발표(2016. 5.)
- 일본의 최첨단 설비를 러시아 기업이 도입하도록 하여 러시아 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의 부품조달 여건을 개선시켜 일본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연계

○ 기본방향

-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의 사업전개와 무역촉진 연구개발을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추진
- 이를 위해 정부 간 대화 이외에 현지조사, 민간기업 교류촉진, 공동연구 등을 실시
- 일본 외식기업의 러시아 시장 출점을 실현하기 위해 영업 등 면허취득에 따른 비용과 임대료 등의 일정경비를 지원
- 일본인 일식 요리사가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얻기 위한 연수개최 비용 등을 지원
- 러시아 병원 등과 연계하여 노인요양식·기능성 식품이나 병원식, 공동개발 조리법 등을 러시아에서 시험적으로 도입

2. 러시아연방 사하공화국 농업인프라 보급 촉진사업

○ 추진배경

- 2016년 2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 일·러 정상회담 후 양국 간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북해도종합상사가 대러시아 진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 추진
- 러시아연방 사하공화국이 요청하는 채소 생산용 비닐하우스 사업을 우선 추진

〈참고〉 민간기업의 북방지역 진출사례 (계속)

○ 사업목적
- 러시아연방 사하공화국의 “안심, 안전한 채소를 일년 내내 수확하고 싶다”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이 현지와 가까운 홋카이도 온실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적용가능한 하우스의 설비 사양을 소규모(1,000㎡) 실증실험으로 우선 실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한 후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
- 초기에는 토마토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향후 오이, 엽채류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비닐하우스 본체뿐만 아니라 관련 농자재의 수출시장 개척으로 연결

○ 사업성과
- 홋카이도에서 일반적인 한랭지 기술을 응용하여 농업용 하우스의 시트를 3중으로 시공. 시트사이에 온풍을 보내는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겨울철에도 토마토와 오이의 재배에 성공. 연간 토마토 470톤, 오이 1,692톤, 녹색 채소 28톤 생산.
- 생산된 당근을 이용한 냉동 커트제품을 2019년 4월 시범적으로 일본으로 수출 개시(무, 호박, 양파, 가지도 시범추진)
- 러시아 사업은 위험성이 커 대기업 이외에는 접근이 어렵다는 통념을 넘어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도출

3. 일본 태양광농장 SOLAR FARM의 몽골진출

○ 추진배경
- 일본 내에 자리잡고 있는 태양광사업기술을 극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채소재배가 불안정하고 화력발전으로 공기오염이 심한 몽골을 대상으로 융복합 사업 결정
-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는 도시집중과 식량 부족이 심각함. 특히 중국산 야채를 주로 소비하나 안전성에 불신이 높음. 또한 화력발전으로 인한 시내 공기오염이 심각함.

○ 사업목적
- 신선하고 안전한 야채를 몽골 내에서 생산하여 도시민에 공급
- 일본인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일본의 발달된 농업기술을 몽골사람들에게 보급

○ 사업성과
- 태양광 패널의 하단에 딸기, 토마토 재배용 하우스를 설치한 12.7MW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농산물 재배 시작(2017. 11.)
- 연간 6,500세대분의 발전량을 생산하여 21,300톤의 온실가스 감축
- 일본 환경성에 JCM(Joint Credit Mechanism)프로젝트 등록(2017. 5.). 개도국에 일본의 저탄소기술, 제품, 시스템 등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는 동시에 일본의 상쇄배출권을 확보

자료: 아래 자료를 토대로 요약 정리함.
1) 일본농림수산성(2019b).
2) 북해도종합상사(2016).
3) 주식회사 Farmdo(https://farmdo.com/: 2019. 10. 25.).

2.3. 일본의 해외 진출 지원정책 시사점

일본의 정책사례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 진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해외 진출 지원정책(해외투자촉진에 관한 기본 지침, 글로벌 농식품 가치사슬 체계 구축)은 민관협력을 강조한다. 민관협력 모델에서 정부 및 관계기관의 역할은 정부 간 투자협정 체결과 대화를 통해 대상국가의 투자환경을 정비하고, 인프라 정비와 기술지원 등의 분야에 ODA사업을 연계하고, 투자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산학관 협력에서 産(기업)은 해외투자의 주체, 官(정부 및 관련 기관)은 해외투자사업의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 學(대학 및 연구기관)은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의 역할을 분담한다. 둘째, 일본농림수산성은 해외 진출 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융자를 제공하지 않으며, 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을 통해 자금융자와 무역보험 등을 지원한다. 중앙정부는 산학관 협력을 통해 ODA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시장 및 투자환경 조사,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 간접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식량안보 차원의 곡물분야에 대한 해외 진출은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식품 가치사슬 구축사업은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제4장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실태 분석

제4장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실태 분석

1. 해외농업 진출 실태 분석 개요

앞서 3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일본의 해외농업진출 지원정책과 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 진출 실태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실태 분석은 큰 틀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의 해외 진출 사업지속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울타리 안에 있는 기업, 즉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신고기업의 진출지역, 진출유형, 투자형태 등 농기업의 해외 진출특성에 따라 사업지속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정부정책이 농기업의 해외사업 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고기업에 대한 사업지속성 분석은 정부가 신고기업을 통해 수집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이용해 분석이 이루어지다보니, 해외농업개발의 최근 진출 및 투자동향, 해외에서 우리 농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 등 해외사업 운영에 대한 풍부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신고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진출 및 투자, 해외사업 경영 전반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진출이전 단계의 기업과 진출이후 단계의 기업들이 각각 어떠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2.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의 사업지속성 분석

본 절에서 다루어지는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의 사업지속성 분석은 신고를 한 기업 중 현재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 실패로 철수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의 제목은 '신고기업 중 진출이후[74] 단계에 있는 기업의 사업지속성 분석'이라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기업의 사업지속성 분석'이라고 한 이유는 다음 절에서 다루어질 '해외 진출 기업의 현황 분석'과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본 절에서의 '신고기업'은 우리 정부에 해외농업개발 신고를 한 기업 중 '진출이후' 단계에 있는 기업이고, 다음 절에서 다루어지는 '진출기업'은 신고여부를 떠나 해외에서 농기업을 운영 또는 계획하고 있는 '진출이전'과 '진출이후' 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본 절의 제목에서 '진출이전'과 '진출이후'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신고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 사업지속성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신고기업'은 엄밀히 말하면 '신고기업 중 진출이후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74)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의 실제 진출현황을 실제 해외에서의 사업 운영여부를 기준으로 '진출이전' 단계와 '진출이후' 단계로 구분하였음. '진출이전' 단계에 있는 기업은 신고는 하였으나 여전히 진출계획 단계에 있는 기업과 진출을 계획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기업이 포함됨. 또 '진출이후' 단계에는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철수한 기업이 포함됨.

2.1. 신고기업의 사업지속성 분석 자료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의 사업 정착여부 및 생존율 분석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184개 신고기업을 전수조사하였다. 신고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여부, 해외 진출 연도, 사업지속 여부, 철수 시 철수 연도, 진출국가, 취급품목 등 생존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문조사업체를 고용하여 2019년 7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57일간 전화를 통해 설문하였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전화조사에서 충실히 응답한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음료상품권을 증정하였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응답에 거부한 기업 등 총 3차례에 걸쳐 설문을 시도하였다.

설문 결과 전체 184개 기업 중 86개 기업이 전화조사에 응답하여 총 응답률은 46.7%를 보였다. 응답한 86개 기업 중 22개 기업(25.6%)은 해외농업개발 기업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절에서 신고 후 진출한 기업(진출이후 단계)의 생존 분석 대상이 되는 유효 표본은 총 64개로 전체 184개 기업의 34.8%를 차지한다. 앞서 신고기업의 현황에서 보았듯이 정부가 발표하는 평균 실적보고율 28%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전화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98개의 기업 중에는 진출 후 사업에 실패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기업,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응답을 거부한 기업 등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조사에서 나타난 신고기업의 진출률(34.8%)은 실제보다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64개 유효 표본 중 43개 기업은 해외 진출 후 현재까지 꾸준히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1개 기업은 진출하였으나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철수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진출기업 대비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67.1%(43/64)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을 생존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응답하지 않은 98개 기업 중 실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 응답하지 않을 확률보다, 사업에 철수한 기업이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생존율 수치 자체는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생존이라는 의미상 해외 진

출이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지속기간이 얼마나 되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착률은 생존한 기업이 해외에서 일정기간 꾸준히 사업을 지속한 경우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지속성 분석이 가능한 총 64개의 유효 표본 중 전체의 45.3%인 25개 기업이 남방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또, 전체의 21.9%를 차지하고 있는 14개 기업은 북방지역에서, 나머지 21개(32.8%) 기업은 기타 다양한 지역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의 생존 분석

64개의 응답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생존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존 분석을 통해 지역별(남방, 북방 등), 진출유형별(농장형, 유통형, 혼합형 등), 투자형태(단독투자, 합작투자), 투자금액별 등 기업의 특성별 생존함수 및 평균 사업지속기간을 추정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응답특성상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98개 기업 중에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보다, 진출 후 폐업한 기업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64개의 표본을 사용한 해외 진출 기업의 사업지속성 및 생존 분석 결과 또한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 진출 기업의 사업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한 64개 신고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Kaplan-Meire(1958)의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생존 분석은 의학분야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나 의약이 환자의 생존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산업분야에서도 기업의 생존 및 도산, 부실 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Kaplan-Meire(1958)의 생존 분석은 어떠한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나타나는 사건의 지속기간을 바탕으로 일정 구간의 생존확률과 생존곡선을 추정한다. 특정 구간, i, 의 생존확률을 나타내는 $S(t_i)$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추정된다.[75)]

$$S(t_i) = S(t_{i-1}) \times p_i = \prod_{j=1}^{i}(1 - \frac{d_i}{n_j})$$

위 식에서 n_i는 i 구간에서 위험(폐업)에 노출된 기업의 수를 의미하고, d_i는 i 구간에서 폐업한 기업의 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추정된 Kaplan-Meire의 생존 분석은 상대적으로 표본 수가 적을 때 유용하고, 생존곡선은 우하향하는 계단함수의 모양으로 나타난다.[76]

2.2.1. 결측치 보정

해외 진출한 기업의 생존함수 추정을 위해서는 분석 대상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및 운영에 관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특히, 진출여부, 진출연도, 폐업여부, 폐업시점 등에 대한 자료 없이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진출여부 및 폐업여부에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정확한 응답을 하였지만 진출시점 및 폐업시점을 묻는 문항에는 상당 부분 결측치가 발생하였다. 결측치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시도하였지만 근무인력 및 담당자의 변동, 폐업한 기업들의 불성실한 응답 태도로 인해 완전한 자료가 수집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측치에 대해 생존지속성 기간, 생존율 등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하였다.

가. 진출시점 결측치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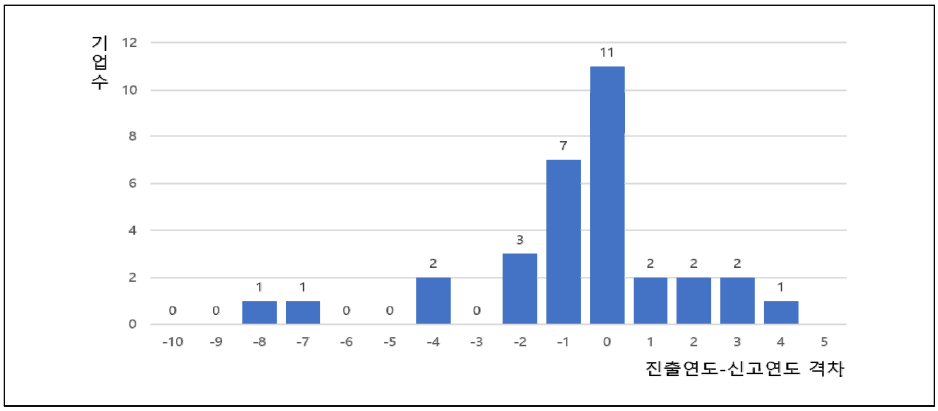
현재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43개 기업 중 11개(25.6%)의 기업은 정확한 진출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에서 실제로 정확한 진출연도를 응답한 32개 기업의 신고연도와 실제 진출연도 차이[77]의 분포를 살펴보면, 11개의 기업

75) Kaplan, E. L. et. al.(1958).
76) Kaplan, E. L. et. al.(1958).
77) 해외농업개발 신고는 해외 진출 이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가 아니라 해외 진출 농기업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 따라서 해외 진출 이전에 신고를 한 기업도 있고, 이미 진출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

(34.4%)에서 실제 진출연도와 신고연도가 일치함을 볼 수 있었다. 또, 14개(32.6%)의 기업은 먼저 해외 진출을 하고 사후에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개(16.3%)의 기업은 먼저 신고를 한 뒤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는 진출시점을 응답한 43개 기업들의 실제 진출연도와 신고연도의 차이와 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진출연도와 신고연도 차이의 평균은 -0.6년이었고, 표준편차는 2.5년이었다. 이는 해외 진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신고를 한 후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먼저 해외 진출을 한 후에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진출 후 평균 7.2개월(-0.6년) 후에 신고를 한다는 의미이다. 진출과 신고 시점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진출연도에 결측치가 있는 11개 기업은 신고연도를 진출연도로 가정하였다. 선 진출 후 신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고연도를 진출연도로 가정한다고 해서 사업지속성 및 생존기간이 과대추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진출기업의 진출연도와 신고연도 간 차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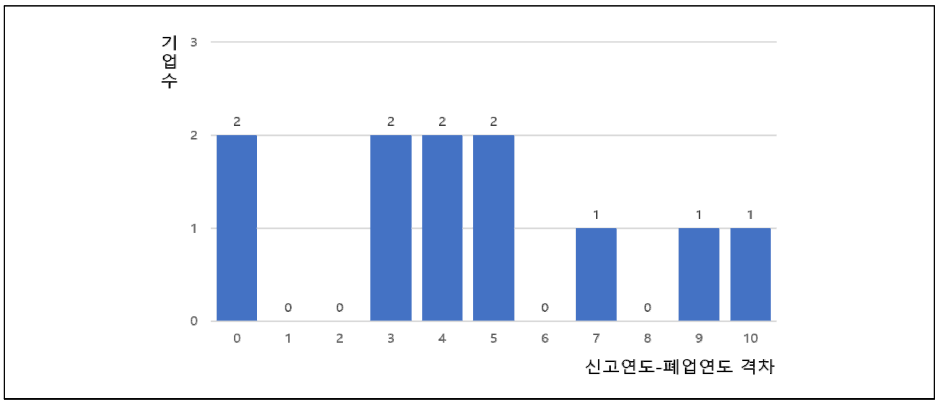
자료: 전화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폐업시점 결측치 보정

해외 진출 후 사업실패로 철수한 기업 21개 중 11개 기업만 실제로 폐업한 연도를 응답하고 나머지 10개 기업(47.6%)은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 중 진출시점을 응답하지 않은 확률

(25.6%)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정확한 폐업시점을 응답한 11개 기업의 진출연도와 폐업연도 차이의 분포는 다음의 <그림 4-2>에서 볼 수 있다. 진출연도와 폐업연도의 차이는 진출 후 철수한 기업들의 사업지속기간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철수한 기업들의 평균 사업지속기간은 4.5년으로 나타났고, 그 표준편차는 3.2년이다. 최대 길게는 10년 동안 사업을 지속하고 폐업한 기업도 있었고, 진출한 시점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한 기업도 있었다. 진출기업의 사업지속성 및 생존기간의 과대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시점이 결측된 11개 표본기업의 사업지속기간을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4.5년-3.2년)인 1.3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10개의 표본기업이 사업 진출 후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폐업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4-2 철수기업의 진출연도와 폐업연도 간 차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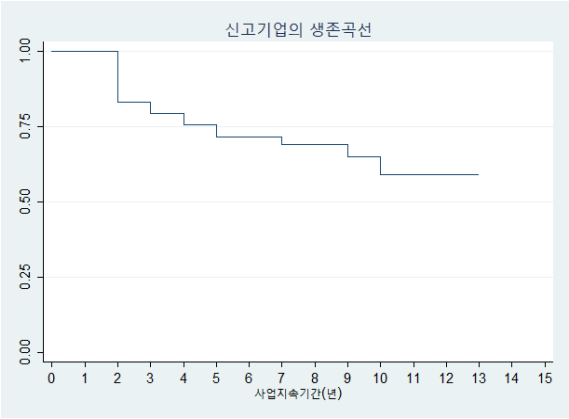


자료: 전화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2.2.2.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의 생존함수 추정

<그림 4-3>에서는 생존 분석을 통해 추정된 진출기업의 사업 지속성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총 64개 해외 진출 기업의 생존함수 추정결과, 이들 기업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최대 13년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평균 생존연수는 5.9년으로 나타났다. 64개 기업 중 43개 기업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생존율은 67.1%이다. 그러나 사업 시작 후 3년 이내에 급속도로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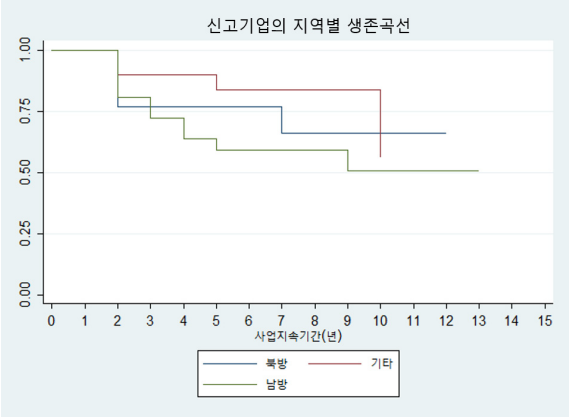
그림 4-3 신고기업의 생존함수 추정



자료: 전화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존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진출한 기업의 20% 이상이 사업시작 3년 이내에 사업을 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진출 후 3년이 지나면 폐업하는 기업들의 수가 어느 정도 완만한 추세로 안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응답기업의 특성상,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폐업한 표본이 최소한임을 감안하면 실제 3년 이내 생존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업 초기에 많은 기업들이

그림 4-4 신고기업의 지역별 생존함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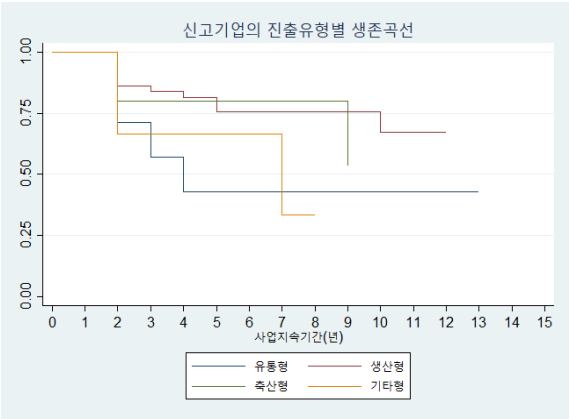


자료: 전화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경영상 애로사항 및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3년 정도를 지나면 실패하는 기업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6년(평균 생존기간 5.9년) 동안 꾸준히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 현지화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에서 살펴본 진출기업의 생존함수를 북방, 남방, 기타지역 등 지역별로, 또 진출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 추정해 보았다. 지역별로 보면 총 64개의 진출기업은 14개 기업이 북방지역에서, 29개 기업이 남방, 21개 기업이 기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림 4-4>는 지역별 기업의 생존지속성 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남방지역에 진출한 농기업의 생존곡선(녹색)이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호주, 브라질, 중국 등 기타지역(적색)에 진출한 기업이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북방지역과 기타지역의 경우, 사업 시작 3년 이후 안정적인 생존율을 나타내는 반면 남방지역의 경우 5년까지 급속한 생존율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남방(동남아)지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기업의 진출로 시장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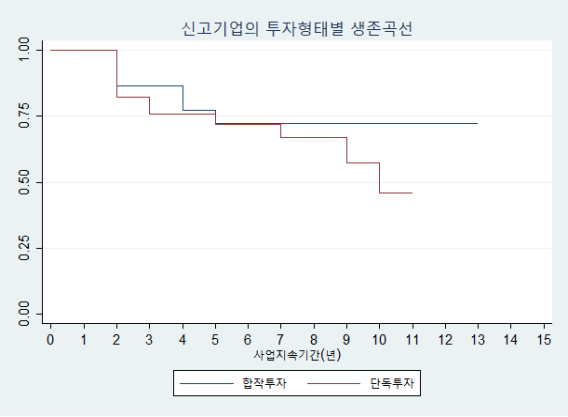
그림 4-5 신고기업의 유형별 생존함수 추정



자료: 전화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5>는 진출기업을 진출유형별로 생산형, 유통형, 축산형, 기타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정한 생존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생산형의 경우, 곡물, 과일, 채소 등의 해외에서 농장을 개발하고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기업들로 64개 업체 중 46개(7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형 기업들의 생존율이 다른 유통형, 기타형과 비교해 높은 사업지속성을 보이는 것은 북방과 남방지역 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농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남방 또는 북방지역의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물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생산품을 소비할 만큼 대규모 소비처가 존재하기 힘들다. 또 단순히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매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기에도 유통인프라, 품질 및 수급의 불안정으로 경영상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이 생산형 진출유형이 해외농업개발사업에서 다른 진출유형에 비해 생존율 및 사업지속기간이 높은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형과 함께 축산형 또한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다. 축산형 또한 넓은 의미에서 생산형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형과 축산형은 해외 진출 3년 내에 20%의 기업이 생존을 지속하지 못하고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시작 3년 이후부터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통형 및 기타형은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사업 시작 후 3년

그림 4-6 신고기업의 투자형태별, 생존함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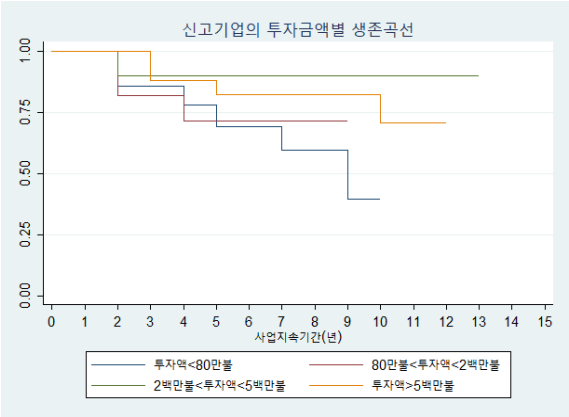


자료: 전화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내에 30% 이상의 기업들에서 폐업이 나타나고, 기타형의 경우 5년 내 60% 이상의 기업이 퇴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의 <그림 4-6>은 투자형태별 진출기업의 생존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좌측의 그래프는 합작투자 또는 단독투자의 투자형태별로 진출기업의 생존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업진출 초기에는 이 곡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5년 이상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는 합작투자의 경우가 안정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7 신고기업의 투자금액별 생존함수 추정



자료: 전화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위의 <그림 4-7>은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투자금액별로 생존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투자금액 분포를 감안하여 총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투자금액이 80만 달러(USD) 미만인 기업들로 전체의 25.4%를 차지한다. 둘째, 80만 달러 이상 2백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로 22.5%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2백만 달러 이상 5백만 달러 미만인 기업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5백만 달러 이상인 기업들은 30.2%의 비중을 차지했다. 투자금액별로 진출기업의 생존율을 보면, 대체로 투자금액이 높을수록 생존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투자금액 2백만 달러 이하의 기업은 진출 후 2년 이내에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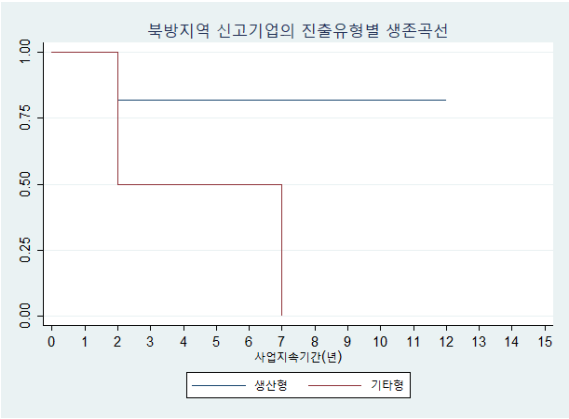
가 폐업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2백만 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은 10년 생존율이 7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외농업개발사업 진출 시, 어느 정도 자본력을 바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추고 진출하는 기업이 소자본 소규모로 진출하는 기업보다 사업의 지속성 및 생존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북방지역 신고기업의 생존함수 추정

앞에서 해외농업개발에 진출 또는 철수한 전체 신고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존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에서는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만을 따로 분리하여 사업지속성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진출유형, 투자형태, 투자금액별로 생존함수를 추정하였다.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생존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총 14개 기업으로 이 중 85.7%인 12개 기업이 생산형으로 진출하였다. 나머지 2개 기업은 기타형이다. 진출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를 생존곡선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4-8>이다. 북방지역에 생산형으로 진출한 기업의 생존곡선을 보면 진출 후 10년이 넘도록 75%의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형의 경우 2년 이내에 진출기업의 절반이 폐업하고 7년 이후에는 모든 기업이 폐업하여 생존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 중 축산형, 유통형은 없으므로 이들과 비교는 불

그림 4-8 북방지역 신고기업의 유형별 생존함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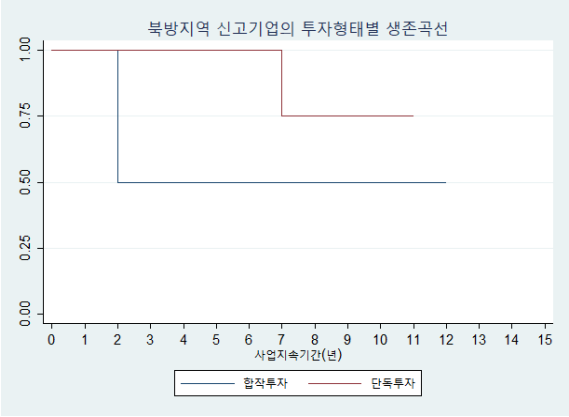
자료: 전화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가능하지만 북방지역의 경우 생산형의 사업진출이 안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투자형태별 생존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북방지역에 진출한 14개 기업 중 합작투자와 단독투자는 각각 4개, 1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그림 4-9>에는 투자형태별 진출기업의 생존곡선이 나타나 있다. 앞서 살펴본 해외농업개발에 진출한 전체 표본에서의 분석결과와 달리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합작투자로 진출한 기업보다 단독으로 진출한 기업에서 더 높은 생존율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북방지역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곡물생산 기업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의 자본을 바탕으로 현지의 시장여건과 사업환경을 잘 알고 있는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을 갖추고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업의 경우에 통상 단독투자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어 합작투자 보다 단독투자가 높은 생존율을 나타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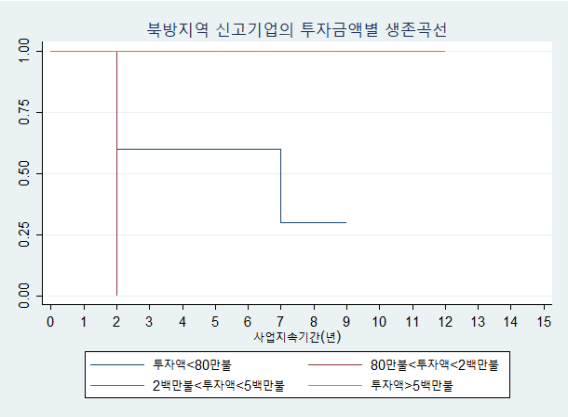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투자금액별 생존함수 추정결과를 보면 투자금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확연히 생존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백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투자기업은 진출 3년 내 생존율이 50% 정도인 반면 투자금액 5백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 모두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북방지역 신고기업의 투자형태별 생존함수 추정



자료: 전화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10 북방지역 신고기업의 투자금액별 생존함수 추정



자료: 전화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사업지속성 분석결과 요약

정부가 관리하는 해외농업개발기업에 신고된 기업 중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존지속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 중 남방지역에 29개 기업, 북방지역에 14개 기업, 기타 지역에 21개의 기업이 진출하여 사업을 지속하고 있거나 철수하였다.

전체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의 평균 사업지속기간은 5.9년으로 해외사업진출 후 6년이 지나면 안정적으로 현지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한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사업 시작 3년 이내에 급속한 속도로 생존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3년 이후에는 생존율 감소 추세가 완만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출한 기업들은 생산형 및 축산형과 같이 농장을 개발하여 1차 생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진출형태가 유통형, 가공형에 비해 높은 생존율을 나타냈다. 아울러 투자형태(합작 또는 단독)는 사업초기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업지속 기간이 늘어날수록 합작투자의 형태가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이는 사업지속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단독보다는 합작투자가 유리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액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2.3. Cox 비례위험회귀모형[78] 분석

앞에서 살펴본 Kaplan-Meire의 생존함수 및 생존곡선 추정은 기업의 특성별로 생존율이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는지를 그래프로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진출지역, 진출유형, 투자형태 등 기업의 다양한 특성들이 사업의 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특정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준모수적(Semi-parametric)기법인 Cox 비례위험회귀모형(1972)을 활용하여 기업의 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의 사업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Cox 비례위험회귀모형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비는 특정 상수로 가정한다. 이를 위해 생존함수의 형태는 지수함수(exponential funtion)를 가정한다. 또한 생존하는 기업과 폐업하는 기업의 위험비는 분석기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이 성립했을 때,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그렇지 않은 시점의 위험 정도를 비교하여 분석사건(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위험비를 추정한다. 따라서 Cox모형에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는 귀무가설은 '생존하는 기업과 폐업하는 기업 간의 위험비는 1이다.'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추정치가 1보다 크면, 해당 변수는 기업의 생존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1보다 작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Cox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추정된다.

$$h(t) = h_0(t)\exp(\beta_1 z_1 + \ldots + \beta_k z_k)$$

위 수식에서 $h_0(t)$는 기저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이며, $\beta = (\beta_1, \beta_2, \ldots, \beta_k)$는 변수에 대한 추정치이고, $z' = (z_1, z_2, \ldots, z_k)$는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이다. [79]

해외 진출 기업의 사업지속성에 미치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78)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79) Cox, D.R.(1971).

먼저 정부지원정책의 수혜여부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신고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사업은 신고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사업의 운영 및 시설마련을 위한 자금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맞춤환경조사, 경영컨설팅, 인력양성교육, 해외인턴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대한 변수로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의 수혜여부를 포함하여 이러한 지원정책이 해외 진출 신고기업의 사업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조사업의 수혜여부변수는, 64개의 신고기업 중에서 맞춤환경조사, 경영컨설팅, 인력양성교육, 해외인턴을 지원받은 기업은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로 나타나는 더미변수이다. 이러한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16개이다. 융자사업의 수혜여부변수 또한 신고기업 중 융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을 1, 그렇지 않은 기업은 0으로 한 더미변수이다. 융자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15개이다.

다음으로 진출지역, 진출유형, 투자형태, 투자금액 등 기업의 특성에 관한 변수들이다. 기업이 진출한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기업의 취급품목, 투자형태 등 이러한 특성 또한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특성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여 정부지원정책이 사업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을 정교히 하였다. 진출지역에 대한 변수로 북방과 남방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더미변수(준거집단은 기타지역)를 활용하였다. 진출유형별로 생산형, 축산형, 유통형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였고 이들에 대한 준거집단은 기타형이다. 또한 투자형태는 합작투자를 더미변수로 포함하였으며 이에 대한 준거집단은 단독투자로 진출한 기업이다. 마지막으로 진출기업의 투자금액을 만 달러로 환산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 4-1>은 해외농업개발을 신고한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Cox 비례위험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Cox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인 비례위험가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5%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폐업한 기업과 생존한 기업의 위험비율은 분석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할 수 있다. 보조사업의 수혜여부 더미변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보조사업은 해외 진출 기업의 폐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보조사업의 지원을 받

은 경험이 있는 신고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사업지속성 또는 생존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융자사업의 경우 해외 진출 기업의 사업지속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방지역에 진출할 경우, 기타지역에 진출할 때보다 생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액에 따라 기업의 생존 위험도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 Cox 비례위험회귀모형 분석결과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보조사업	0.123*	0.1436
융자사업	0.221	0.2456
북방	4.359*	3.8866
남방	2.756	1.9411
생산형	0.707	0.6156
축산형	0.948	1.0524
유통형	1.363	1.4569
단독투자	1.002	0.5823
투자금액/10000	1.001**	0.0002
관측치(time at risk)	346	
기업 수(observation)	64	
비례위험가정 검정	p=0.06(Chi2,9=16.25)	

주: *, **는 각각 10%, 5%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3. 해외농업 진출 실태 설문조사

3.1. 해외농업 진출 실태 설문조사 개요

우리나라 농기업 해외 진출 실태 분석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개요와 방법이 아래 <표 4-1>에 나타나 있다. 대상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진출이전 단계에 있는 기업이다. 진출이전 기업은 아직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진출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업을 뜻한다. 다음으로 진출이후 단계 기업이다. 진출이후 단계에 있는 기업은 실제로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철수한 기업도 진출이후 단계에 포함하였다.

조사방법은 크게 직접면담 조사와 온라인 조사로 나누어 병행하였다. 직접면담 조사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출장 시 방문면담했던 현지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출장 시, 농식품부, 농어촌공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가 농업 분야 해외투자, 진출 및 협력강화를 위하여 주관하는 '한-우즈벡 농업 비지니스 다이얼로그'에 참가한 농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등 농산업 기업 교류의 장으로서 해외농업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기업이 참가한다. 이러한 기업들 중에는 현재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직접면담 조사 외에도 전문조사 업체를 고용하여 온라인 조사도 병행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그 대상은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이다.

직접면담 조사로 총 37개 기업에 대한 설문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는 카자흐스탄(2019. 6. 9.~6. 12.), 우즈베키스탄(2019. 6. 12.~6. 16.), 키르기스스탄(2019. 6. 16.~ 6. 19.) 출장 시 면담한 기업과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참여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신고기업 리스트를 바탕으로 실시된 온라인 조사에서는 총 21개 기업의 자

료가 수집되었다. 설문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에게 전화로 총 3차례 응답 독려를 하였다. 또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설문을 완료한 응답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84개 신고기업 중 21개 기업이 설문에 응답하여 응답률은 11.4%에 불과했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총 표본의 수는 58개이다.

표 4-2 조사방법 및 개요

조사 대상	■ 비즈니스 다이얼로그(19년, 우즈베키스탄) 참가기업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현지 방문기업 ■ 신고기업 리스트	
조사방법	■ 현지 방문면담 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조사
	■ 비즈니스 다이얼로그(19년, 우즈벡) 참가기업 ■ 우즈벡, 카자흐, 키르기스 현지 방문기업	■ 신고기업 리스트
표본 유형	■ 해외농업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진출이전 단계 기업) ■ 해외농업 진출기업(진출이후 단계 기업) ■ 해외농업 진출 후 철수한 기업(진출이후 단계 기업)	

자료: 저자 작성.

설문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지역별, 유형별, 신고 여부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 4-3>과 같다. 우선 지역별로는 전체 응답 기업 중 북방지역 진출기업이 39곳, 남방지역 진출기업 11곳, 그 외 기타지역 진출기업이 8곳 조사되었다. 진출 단계에 따라 구분한 표본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진출이전 단계에 있는 기업이 11곳, 진출이후 단계로 이미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36개 기업과 11개 철수 기업이 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신고기업은 25곳, 미신고기업은 33곳이었다. 신고기업 응답 25개 중 북방지역에 9개 기업이 있었고, 미신고기업 응답 33개 중 29개의 기업이 북방에 속해 있다.

표 4-3 설문조사 응답 기업 분포

단위: 기업 수

구분		북방	남방	기타	계
유형별	진출기업	23	7	6	36
	진출계획기업	10	1	0	11
	철수기업	6	3	2	11
신고 여부	신고	9	9	7	25
	미신고	30	2	1	33
지역별 조사기업 수 (계)		39	11	8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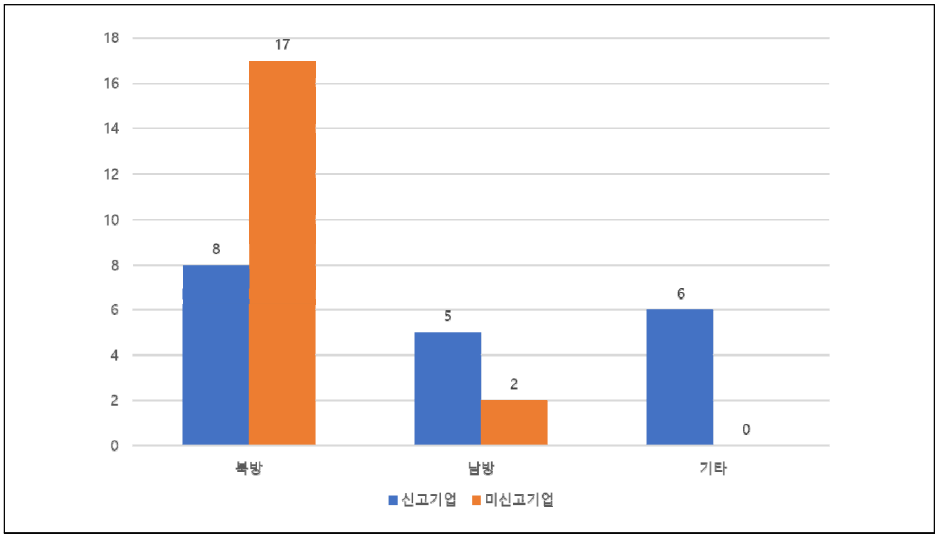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3.2. 해외농업개발 진출이후 단계 기업 설문조사결과

진출이후 단계 기업은 해외농업개발 활동을 위해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나 진출이후 철수한 기업에 해당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진출이후 기업 중에서는 신고기업이 19개, 미신고기업이 17개 응답하였으며, 그중 북방지역에서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은 총 15개에 해당한다. 2018년 정부에 실적을 보고한 북방지역 진출기업이 총 14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진출기업이 미신고상태로 이미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해외농업개발 진출이후 철수한 기업 11곳 중 신고기업은 4곳, 미신고기업은 7곳에 해당했다. 그중, 북방지역 철수기업은 5곳, 남방지역 철수기업 3곳, 그 외 기타지역 철수기업이 3곳에 해당하였다.

그림 4-11 해외농업개발 진출 활동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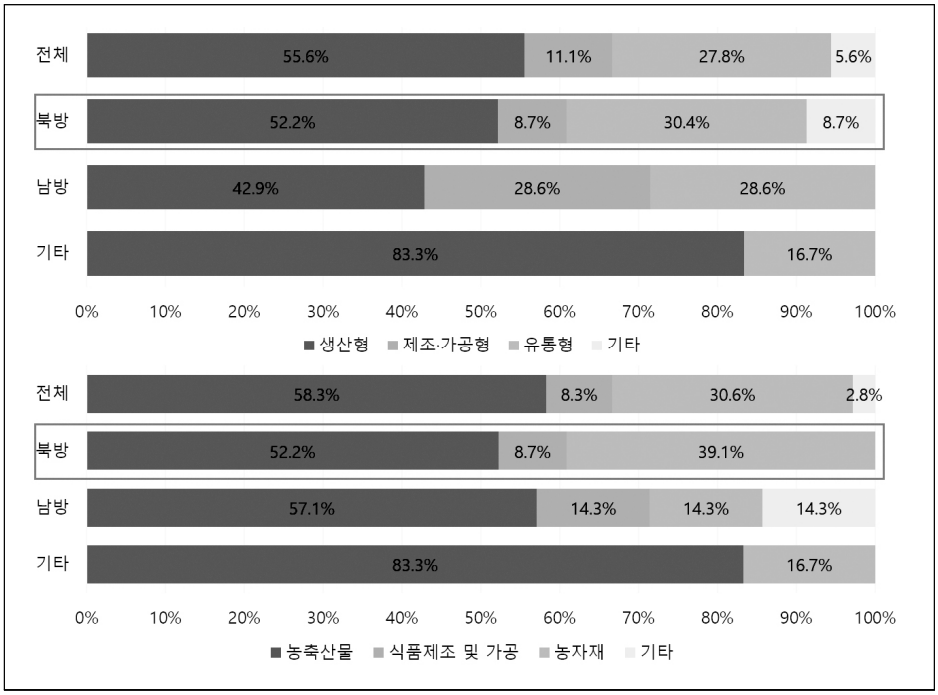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현재 진출한 국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남방지역 및 기타지역의 경우 양호한 재배 환경(농업용수, 토지확보, 기후 등)이 1순위를 차지했지만, 북방지역의 경우 신시장/신사업 개척 용이성 및 국내외 수요 대응이라는 응답이 1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다수의 북방지역 진출기업들이 진출지역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시장 확보 가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1. 해외농업개발 진출 현황

<그림 4-12>를 참고하여 전체 진출기업 응답 대비 북방지역 진출기업의 진출유형과 취급품목을 비교하면, 북방지역 진출기업의 경우 전체 응답군 대비 상대적으로 생산형 기업 비중이 적고 유통형 기업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취급품목의 경우 전체와 북방지역을 비교하면 두 경우에서 모두 농축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북방지역 진출기업의 경우 전체 응답군 대비 농자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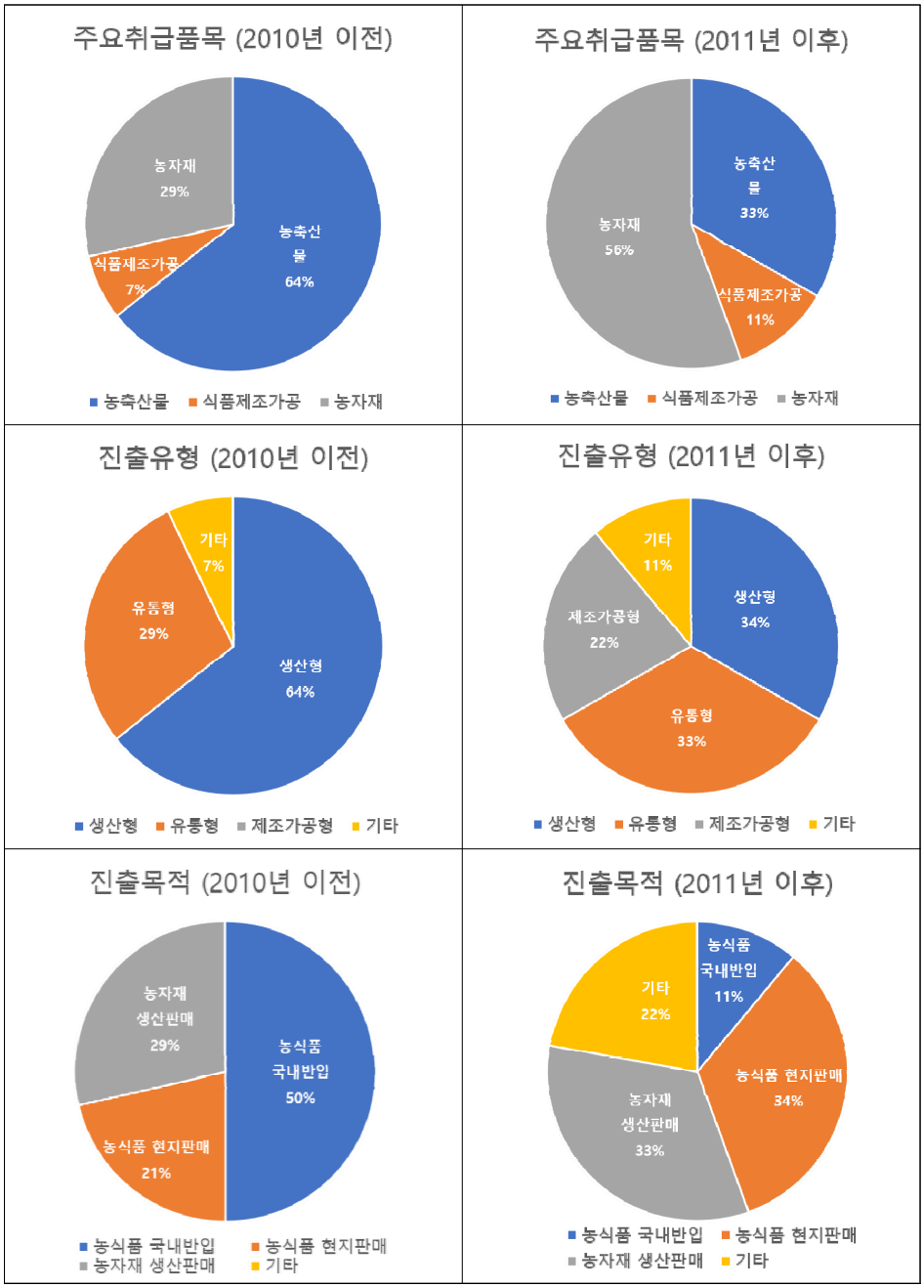
그림 4-12 전체 진출기업 대비 북방지역 진출기업의 진출유형 및 주요 취급품목 비교



자료: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그림 4-13>에서 진출 시기별로 주요취급품목, 진출형태, 진출목적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북방국가 진출 응답 기업 23개 중 14개가 2010년 이전에, 9개가 2011년 이후에 진출하였다. 2010년 이전에 진출한 기업은 농축산물을 주로 취급(64.2%)하는 생산형(64.2%)으로, 생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려는(50%) 기업이 주류를 차지했다. 한편 2011년 이후 진출기업의 경우에는 농자재(55.5%)를 주로 취급하고, 유통형(33.3%), 제조가공형(22.2%) 등 다양한 유형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농식품의 현지판매(33.3%)와 농자재의 생산 및 판매(55.5%)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즉 2010년 이전 진출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2011년 이후 진출기업의 경우 다변화된 진출방식 및 취급품목을 기반으로 생산 및 가공된 제품을 현지 시장과 인근 수출시장으로 판로를 확보하여 사업성을 높이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3 북방지역 진출기업 시기별 주요 취급품목, 진출형태, 진출목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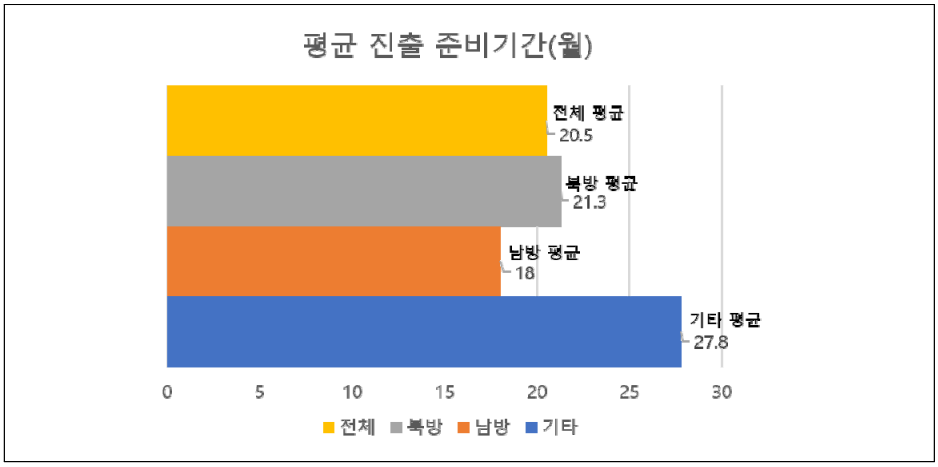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한편 철수기업의 경우 전체 응답기업의 약 45.4%가 제조·가공형 기업에 해당하였으며, 주요 취급품목은 농축산물(36.3%), 농자재(27.3%), 식품 제조 및 가공(18.2%) 및 기타(18.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에서 지역별 진출 준비 기간을 비교해보면, 북방지역 진출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긴 준비 기간을 들여 해외농업개발 활동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20.5개월의 준비 기간을 가지는 데 비해,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은 평균적으로 약 21.3개월간의 긴 준비 기간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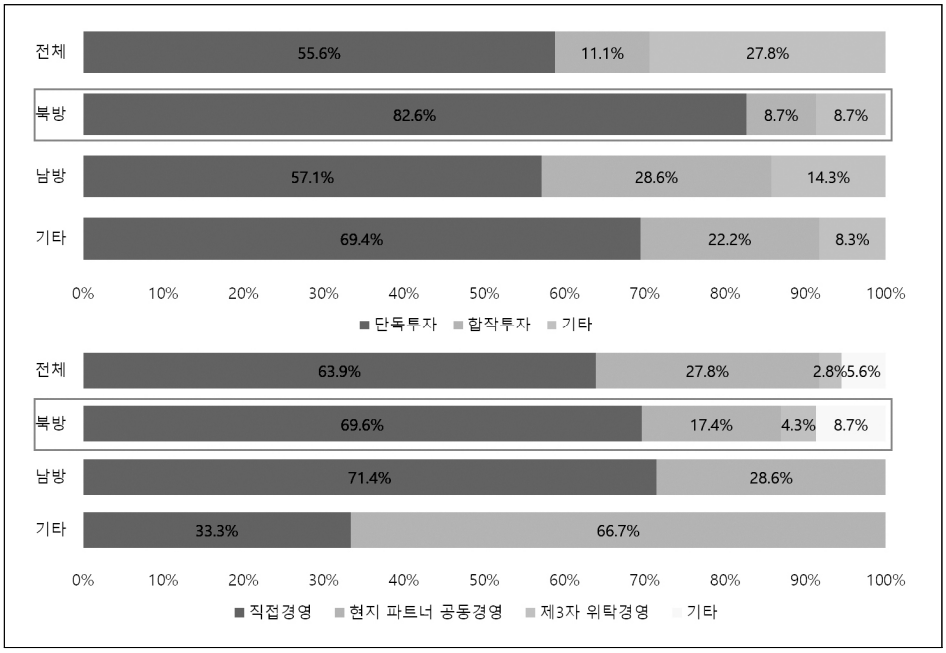
그림 4-14 지역별 평균 진출 준비 기간 비교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투자유형 및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69.4%가 단독투자형 기업, 북방지역 진출 응답 기업의 82.6%가 단독투자형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방지역 진출기업이 상대적으로 단독투자 진출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북방, 남방지역의 경우 진출기업 모두 현지 파트너와 공동 혹은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그림 4-15> 참조).

그림 4-15 지역별 투자유형 및 운영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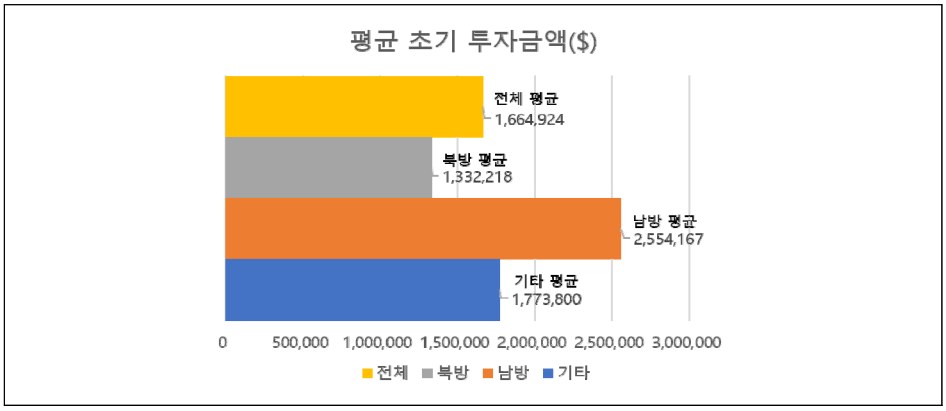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3.2.2. 기업경영 현황

<그림 4-16>과 같이 북방지역 진출기업의 초기 투자금액은 평균 133만 달러로 전체 응답 기업 평균 166만 달러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앞장의 신고기업 중 북방지역 진출기업의 특징과 상당히 대비되고 있다. 신고기업 중 북방지역 진출기업의 평균 투자 규모와 설문조사 응답 기업 평균 간 차이는 온라인 설문 조사 및 현지 면담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신고기업 중에서 북방지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대규모의 곡물회사가 많다. 그러나 정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중소규모 기업들이 현재 북방지역에서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6 지역별 평균 초기 투자금액 비교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북방지역 활동기업들의 2018년 평균 매출액은 약 140만 달러로, 전체지역 평균 매출액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북방기업들의 2018년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농축산물 취급기업(약 174만 달러)과 생산형 기업(약 214만 달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초기투자금 대비 매출액의 비율을 보면 투자유형 중에서는 제조가공형 기업(250%)에서, 품목별로는 농자재 취급기업(260%)에서 초기투자금 대비 높은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다(<표 4-4> 참조).

표 4-4 초기투자금 대비 2018년 매출액 비교

단위: 달러($), %

구분		2018년 매출액 평균(A)	초기 투자금액(B)	초기 투자금 대비 매출(A/B)
북방지역 평균		1,404,195	1,826,356	77%
	유형별			
	- 생산형	2,138,604	2,018,320	106%
	- 제조가공형	751,000	300,000	250%
	- 유통형	556,060	2,460,000	23%
	주요 품목별			
	- 농축산물	1,743,726	2,251,992	77%
	- 식품제조 및 가공	N/A	N/A	-
	- 농자재	525,500	201,667	260%
전체 지역 평균		2,261,234	2,192,627	103%

주: 정확한 비교를 위해 설문 결과 중 2018년 매출액과 초기 투자금액을 모두 응답한 기업만 포함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표 4-5>를 보면, 2018년 기준 전체 응답 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익 비중 평균치는 약 17.5%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평균 수익률을 보인 진출 국가는 러시아(31.4%), 카자흐스탄(29.2%), 우즈베키스탄(17.5%) 순이었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방지역 진출기업은 평균적으로 16%의 수익률을, 북방지역 진출기업은 19.3%의 수익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북방지역 진출 기업이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 북방지역 진출기업 중에서는 제조가공형(30%), 농축산물(27.6%) 취급기업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표 4-5 지역별, 유형별, 주요품목별 평균 수익률 비교

구분			평균 수익률(%)
북방지역 전체			19.3
	유형별	생산형	12.3
		제조가공형	30
		유통형	27.5
	주요 품목별	농축산물	27.6
		식품제조 및 가공	23.7
		농자재	19.2
남방지역 전체			16
전체지역			17.5

자료: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해외농업활동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한국 반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방지역의 경우 응답 기업 23곳 중 러시아에 진출한 곡물 취급기업 3곳만이 2015년 이후 생산품을 한국에 반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7개(73.9%) 기업이 향후에도 한국 반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부정적인 응답을 한 기업 대부분이 국내 반입의 제약 요건으로 관세, 통관절차 등의 국내반입 절차와 물류비용 부담, 현지 유통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를 들었다.

더불어 북방지역 활동기업 중 8개가 신고기업, 15개가 미신고기업에 해당하였다. 미신고이유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기업이 사전에 해당 정보가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은 14% 정도 존재했다. 실제로 현지 조사 시 대다수의 조사 기업은 현지에서 오랜 기간 영농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업 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현지법인만으로는 기업신고 및 융자신청 시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해외출장복명서, 농업기업협의회 면담자료: 2019. 6. 11.).

3.2.3. 정부정책지원 경험

한국 정부의 해외농업진출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및 참여도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방지역의 지원사업 참여율은 22.5%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았으며, 정부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등 5개 척도로 질문한 결과, 보통 수준(3.8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4-6 정부 지원사업 참여율 및 만족도(중복응답)

사업 종류	전체			북방지역		
	참여기업 수	참여율	만족도	참여기업 수	참여율	만족도
정보제공사업	14	38.9%	3.35	7	30.4%	3.71
정보교류 지원사업	**20**	**55.6%**	3.55	**12**	**52.2%**	3.58
해외환경조사	9	25.0%	3.77	6	26.1%	4
전문인력양성	1	2.8%	4	-	-	-
컨설팅	5	13.9%	4.2	1	4.3%	3
인턴채용지원	6	16.7%	**4.5**	2	8.7%	4
융자 지원	6	16.7%	3.5	3	13.0%	**4.33**
평균	8.7	24.2%	3.8	5.2	22.5%	3.8

자료: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정부 지원 세부사업의 참여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위의 <표 4-6>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전체지역 및 북방기업 진출기업 모두 정보교류 지원사업(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등) 참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여사업 만족도의 경우 북방지역 진출기업은 사업 초기 필요한 운용자금을 대출해주는 융자지원에 가장 높은 만족

도를 보였으며, 전체지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인턴채용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시된 개선사항으로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기업 수요의 파악 및 충족, 지원사업 범위 확대 및 제약 조건 축소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정보교류 지원사업이나 환경조사, 컨설팅 사업의 경우 기업들이 희망하는 세부적인 주제나 내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아직까지 기업들의 수요파악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 지원 범위 확장 및 제약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주로 융자 대출을 위한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담보 인정 범위의 확대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으며, 그 외에도 해외인턴제도 및 환경조사 관련 참여 인원 확대 및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도 존재하였다.

3.2.4. 경영상 애로사항

진출 단계별 애로사항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진출 초기 애로사항으로는 '해당 국가의 시장정보 미흡',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 순서로 많은 응답 수를 보였다. 특히 북방국가 진출기업의 경우 '인허가 등을 위한 법, 제도, 규제 등 행정절차 극복'과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가 동률로 1순위에 해당했다.

현지 진출이후 생산 및 제조 시 애로사항으로는 전체 응답 기업 대상 조사 시,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 '해당 국가의 시장정보 미흡'이 동률로 1순위에 해당했으며, 북방국가 진출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시장정보 미흡'이 1순위, '수확 후 필요한 저장 또는 보관시설 이용'이 2순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산물 판매 및 유통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전체지역 및 북방지역 대상 진출기업 두 경우 모두 1순위는 '유통 및 인프라 부족', 2순위는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로 나타났으나, 북방기업 조사 시에 1순위와 2순위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철수 기업 4곳이 제시한 해외 진출 철수 이유로는 사전검토 부족으로 실이익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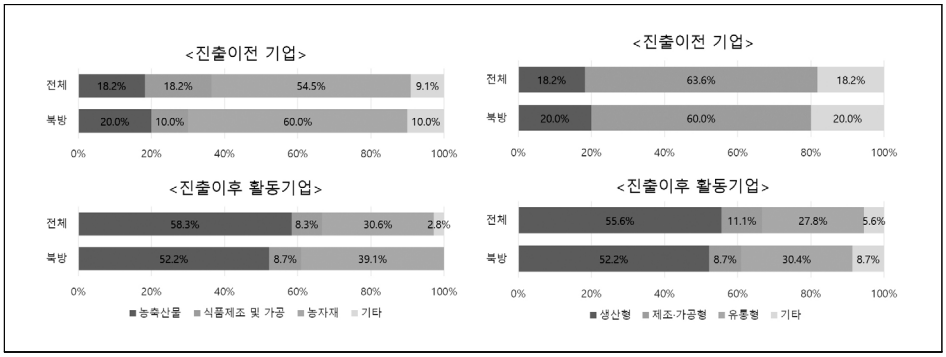
미,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가격 및 판로 문제, 현지 브로커 사기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또한 해외 진출 계획단계에서 포기한 기업의 경우는 투자 시 토지 소유권 문제로 해외농업개발 활동이 좌절되었다.

특히 북방지역 진출기업 및 유관기관 인터뷰 시 공통적으로 제시된 의견은 최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물류 접근성 및 유통시장 확보에 있어 만성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앞서 진출 국가 선택 사유에서 잠깐 언급되었듯, 많은 수의 북방지역 진출기업의 경우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진출해 있다. 이러한 진출 동기를 미루어 볼 때, 해당 국면이 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치명적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방지역 진출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해외농업개발 진출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 외에도 급변하는 대내외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유연한 한국정부의 정책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3.3. 해외농업개발 진출이전 기업 설문조사결과

3.3.1. 진출목적 및 진출유형, 취급품목별 현황

그림 4-17 진출이전 기업과 진출이후 활동기업 간 진출유형 및 주요 취급품목 비교



자료: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해외농업개발 진출이전 기업에 해당하는 11개 응답 기업 중 신고기업은 2개, 미신고기업 9개에 해당하며, 전체 11개 중 10개 기업이 북방지역 진출기업에 해당한다. 진출이전 기업의 경우 농자재(54.5%)를 취급하는 제조·가공형(63.6%) 기업이 과반수에 해당하였다. 이미 진출하여 해외농업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 대다수가 농축산물(58.3%)을 취급하는 생산형(55.6%) 기업이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취급품목 및 진출유형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3.3.2. 진출준비 현황

진출 준비기업들은 평균적으로 20.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사업진출을 준비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출한 투자금액은 평균 97,857달러 수준에 해당하였다. 응답 기업들의 희망 투자형태는 단독투자(63.6%)가 우세했으나, 운영방식 측면에서는 현지 파트너와의 공동경영(72.7%) 형태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또한 앞선 진출이후 단계의 기업에서는 직접경영 형태(63.9%)를 선호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3.3.3. 정부정책지원 경험

해외농업개발기업 신고제도 및 정부지원 관련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전체 응답 기업 중 81%가 미신고기업에 해당하였는데, 미신고이유를 묻는 질문에 60%의 기업이 사전에 해당 정보가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은 10% 정도 존재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현재 진출해 있는 기업과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적극적인 인지도 제고 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7 정부 지원사업 참여율 및 만족도(중복응답)

사업 종류	(미)참여기업 수	(미)참여율	만족도
참여기업			
정보제공사업	1	9.1%	3
정보교류 지원사업	2	18.2%	4
해외환경 조사	1	9.1%	3
컨설팅	1	9.1%	3
미참여기업	8	72.7%	-

자료: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더불어 응답 기업 중 8개(72.7%)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는 진출기업 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2곳, 해외농업 정보제공, 해외환경 조사,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각각 1곳씩 존재했으며, 그중 진출기업 정보교류 지원사업이 가장 높은 만족도(4점)를 보였다.

3.3.4. 경영상 애로사항

사업 계획단계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미흡한 시장정보를 1순위,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를 2순위로 응답하였다. 해외농업개발 성공요인으로는 현지 생산여건 분석(55.6%), 현지 사업파트너 확보(44.4%)를 꼽았다.

실제로 현지 조사 시 진출계획기업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정책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숍, 세미나 및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정보를 교류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단발적인 행사로 현지 진출 및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즉, 단기간의 한시적인 정부지원을 토대로 얻은 불충분한 정보와 네트워크로는 기업 측면에서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본격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현지화 전략을 시도하기엔 위험 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많은 응답 기업들은 이러한 단발성 정보교류 행사와 더불어 진출희망 기업이 본인들의 농기계를 전시하여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 간단한 부품 수

리 등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상시운영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해외출장복명서,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기업 면담자료: 2019. 6. 13.).

실제로 카자흐스탄에 농기계 조립공장 운영을 추진하던 D기업의 경우, 현지 파트너 기업과 합작하여 현지에 진출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당 기업의 제품에 맞는 생산공장 라인을 준비하였으나 현지 기업의 자금과 역량 부족으로 진출을 포기한 사례가 존재했다. 해당 기업은 여전히 북방지역 국가로의 진출을 희망하지만, 러시아, 벨라루스산 농기계와의 현지 시장 점유율 및 가격경쟁력 문제나 현지의 비효율적이고 신속하지 않은 행정 절차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지의 농기계 교체 수요나 지리적 인접성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요인임이 분명하므로, 정부가 사업발굴 단계에서의 투자사절단 파견 등 현지 네트워크 형성 기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 간 협의를 통해 농기계 부품 등의 현지 통관 문제를 간소화, 효율화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설문조사 결과와 현지 면담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현지의 생산여건 및 협력기회 모색에 대한 기업 수요가 나타난 만큼, 해당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시사점

4.1. 진출이후 사업초기 단계에서 사업운영 어려움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의 사업지속성 분석에서 보았듯이, 진출이후 단계의 기업은 사업시작 후 3년 이내에 급격한 생존율 감소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진출이전 준비단계에서 새로운 환경 및 시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부족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준비와 대비를 했더라도 현지에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실제 해외사업에 실패하고 철수한 기업의 인터뷰에서 사업실패 주요 이유로 가격 및 판로문제, 현지 브로커의 사기, 생산기술 적용불가 등 대부분 진출이전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시장 및 환경 분석, 기술적용 가능여부, 판로, 경제성 분석 등 구체적이고 철저한 사전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 및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사전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험비례회귀모형의 분석결과, 융자사업보다는 환경조사, 경영컨설팅 등 보조사업이 사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진출이전 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환경조사와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철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진출이후 단계에서 사업초기에 인력수급, 전문성 결여, 마케팅 등 경영상 난관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팅, 해외인턴 등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4.2. 최근 북방지역 진출기업의 다양화 추세

북방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농기업은 2010년을 기점으로 진출형태 및 취급품목이 다양해 지고 있다. 2010년 이전 진출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지만, 2010년 이후 진출하는 기업들은 시설원예, 스마트팜 등 농자재 산업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제조·가공하여 현지시장과 인근 수출시장을 목표로 진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북방지역에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대다수 농자재를 취급하는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고기업 중 38개가 생산형, 유통형, 축산형 각 1개, 기타형이 2개로 신고되어 있다. 이러한 최근의 해외농업개발 동향과 정부가 관리하는 신고기업 리스트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리스트에

는 42개의 기업이 북방지역으로 신고되어 있지만 실제 해외 진출 농기업에 대한 최근 동향 및 정보수집이 미흡하여 통계자료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북방지역에는 최근 시설원예 및 스마트팜 등 많은 한국 농기업이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신고기업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농기업에 대한 현황 및 지원에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유일하게 러시아에 1개소의 해외농업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우리 농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선 신고기업 현황에서도 보았듯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방의 서부, 중부, 동부 여러 지역에서 더욱 많은 우리 농기업이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권역별 거점국가를 지정하고 이러한 곳에 해외농업지원센터를 추가로 설립하여 진출농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최근의 진출 및 투자 동향을 반영하여 기존 생산형 기업을 대상으로 식량생산 확보 및 반입에 집중한 정책목표를 수정하여 폭넓고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3. 정부지원사업의 홍보 및 지원 강화 필요

진출기업과 진출계획기업은 공통적 애로사항으로 시장정보 미흡, 필요자금 확보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보조 및 융자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홍보 부족 및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융자 및 보조사업의 현황 및 실적에서 살펴보았듯이,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매년 불용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계획 대비 정책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증거로 꾸준한 예산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조사업의 경우,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많은 농기업이 정부의 해외농기업 지원사업을 모르고 있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 정보제공, 조사지원 등 보조사업의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기업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업의 성공요건으로 시장분석과 현지파트너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장환경조사,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융자사업의 경우, 2%대의 금리로 융자가 실행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시중금리와 비교해 큰 장점이 없어 정책자금에 대한 유인동기가 부족하다. 또한 융자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지원자격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중소기업은 융자를 받기 위한 담보능력 제공이 없어, 좋은 사업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책자금에 접근성에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원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자격 및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4.4. ODA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연계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에 대해 유사시 식량곡물을 확보하는 것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출기업 또는 진출계획 기업은 생산물의 국내 반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관세, 통관절차 등의 까다로움과 현지 유통 인프라 부족 및 물류비용 부담을 꼽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방의 CIS, 몽골 등은 ODA 지원대상 국가로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 ODA 사업을 지원할 때 해외농업개발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농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에 유통 인프라 개선 및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여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해외 진출 농기업이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 통관절차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해외에서 우리기업이 생산한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다.

제5장

북방지역 농업 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제5장

북방지역 농업 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1. 정책추진 방향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방지역 농업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그림 5-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정책추진 방향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신북방정책 14대 중점 추진과제 중 '농수산분야 진출 활성화' 과제와 맥락을 같이한다.

첫 번째 정책추진 방향은 북방지역 해외 진출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 거점국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 북방지역의 권역별 농업여건과 투자환경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투자유망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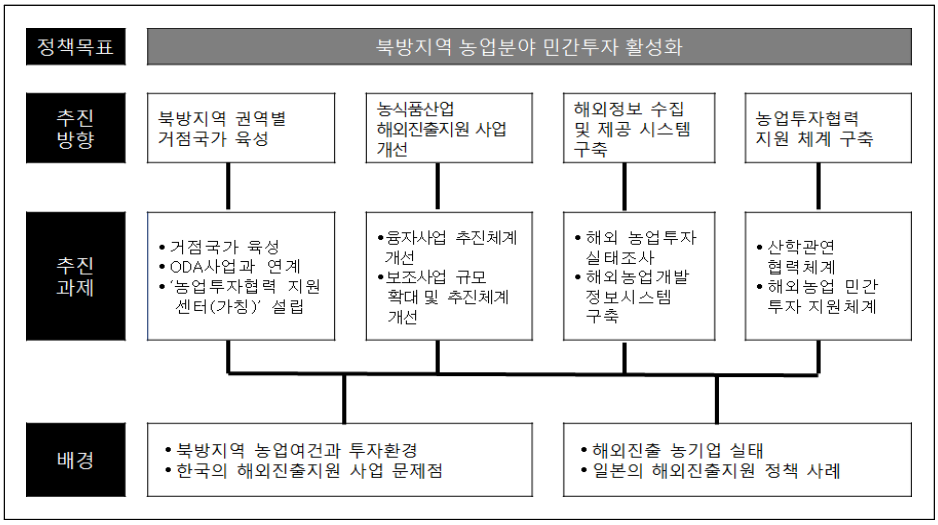
두 번째 정책추진 방향은 제3장과 제4장의 해외농업지원사업의 문제점과 해외진출기업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의 추진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정책방향은 제3장과 제4장의 연구결과 제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이전단계와 이후단계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네 번째 정책방향은 일본의 해외 진출 지원 정책 사례와 같이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산학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1 북방지역 해외 농업투자 활성화 방향 및 추진과제



자료: 저자 작성.

2. 정책추진 방안

2.1. 북방지역 권역별 거점국가 육성

2.1.1. 거점국가 육성 방향

권역별 거점국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유망 분야의 관련 시설과 기술을 지원하고, 판매와 수출 등을 위한 유통과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부권의 거점국가인 극동러시아(연해주)는 식량안보 차원의 곡물생산지와 물류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곡물생산단지와 곡물류의 저장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 가공시설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부권의 거점국가인 카자흐스탄에 과채류의 가공시설 및 기술, 종자개량 및 육종 기술과 기자재 지원, 시설원예 기자재와 기술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 지역에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부권의 거점국가인 우크라이나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종자, 비료, 농기계 등의 농자재 생산과 축산물 가공(치즈, 버터 등)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5-1 권역별 거점국가 육성 과제 및 ODA 연계 분야

권역 구분	권역별 투자유망 분야	거점국가	거점국가 육성 과제 및 ODA 연계 분야
동부권	곡물생산 식품(곡물)가공 물류(곡물저장 등)	극동러시아 (연해주)	- 식량안보 차원의 곡물 생산지 육성(대기업 투자) - 식품가공 시설 확충 및 가공 기술 협력(중소기업 투자) - 곡물류 저장 시설 확보(대기업 투자)
중부권	과일/채소류 가공 종자산업 시설원예 기자재	카자흐스탄	- 과일/채소류 가공 기술과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중소기업 투자, ODA 연계 가능) - 종자 개량/육종 기술 및 기자재 (중소기업 투자, ODA 연계 가능) - 시설원예 기술 및 기자재 지원(중소기업 투자)
서부권	농기자재(종자, 비료, 농기계 등) 축산물(치즈, 버터 등) 가공	우크라이나	- 농자재 생산시설 및 기술 지원 (중소기업 투자, ODA 연계 가능) - 축산물 가공시설 및 기술지원 (중소기업 투자, ODA 연계 가능)

자료: 저자 작성.

2.1.2. ODA사업과 연계

<표 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방지역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ODA사업은 몽골에 집중되어 있다. 2010년 이후 한국의 농업 분야 ODA사업 중 11개의 사업이 몽골에 지원되었으나, 농업투자협력의 거점국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에는 농업 분야 ODA사업 지원실적이 전무하다.

동부권의 러시아(연해주)는 ODA 지원대상국이 아니므로 ODA사업과의 연계는 불가능하다. 반면 농업투자협력 거점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ODA사업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각각 고중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에 포함되므로 ODA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북방지역 농업투자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농업 분야 ODA사업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중부권의 과일/채소류 가공, 종자산업, 시설원예 기자재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거점국가인 카자흐스탄에 과채류 가공시설이나 종자개량 시설 구축 분야에 ODA사업을 지원하고, 한국의 관련 중소기업체들을 민관협력(Private Public Partnership: PPP) 방식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서부권 지역의 농기자재(종자, 비료, 농기계 등) 분야와 축산물 가공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농자재 생산시설과 축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ODA사업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PPP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북방지역 거점국가의 투자유망 분야와 ODA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컨설팅(KAPEX) 사업[80]을 통해 해당 거점국가에 대한 관련 정책 컨설팅을 강화하고, ODA연계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ODA사업과 민간투자의 연계 방식은 해외 진출 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

80)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사업(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KAPEX)은 개도국의 농업정책 수립 및 이행 역량을 강화하고 ODA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3개국의 개도국을 선정하여 공동연구, 초청연수, 중기연수, 국내외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ODA 컨설팅 사업임.

표 5-2 한국의 북방지역 농업ODA 추진 현황(2010년 이후)

권역 구분	국가(사업 수)	사업명	주요 지원분야
중부권	카자흐스탄(0)	-	-
	우즈베키스탄(2)	우즈베키스탄 시범온실 지원사업('11~'14/400만 달러)	시설지원(온실), 영농기술 전수
		우즈베키스탄 시설농업지원 및 기술전수사업('16~'19/360만 달러)	시설지원(저온저장고), 영농기술 전수
	키르기스스탄(3)	키르기스스탄 빈곤가정의 농업 소득증대('15~'17/-)	농기계 지원
		키르기즈공화국 새마을기반 지역개발 시범사업('17~'21/350만 달러)	시범마을 조성, 농업인프라 구축
		키르기즈공화국 유기농업정책 이행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19~'23/500만 달러)	유기농업 관련 제도 수립, 농업인프라 구축, 역량강화 등
	투르크메니스탄(0)	-	-
	타지키스탄(1)	타지키스탄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카마로브지역 소득증대 사업('12~'13/40.9만 달러)	설비지원
	몽골(11)	몽골 울란바토르 수의진료 역량강화사업('19~'23/390만 달러)	시설지원(동물진료센터), 수의분야 기술전수
		제로웨이스트 패션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캐시미어 산업 개발 사업('18~'19/45만 달러)	영농기술 전수(캐시미어 원료생산)
		몽골 축산협동조합을 통한 소득증대 및 영세농가 축산 역량강화('17~'19/46만 달러)	협동조합 조직
		몽골 자르갈탄 지역 김치생산판매시설 지원('17/4만달러, '18/8만 달러)	시설지원(비닐하우스, 김치판매시설)
		몽골 동물질병 관련 자료 정리 및 방역기술 지원('16/10만 달러, '17/10만 달러)	기술전수
		몽골 농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사업('13~'15/100만 달러)	시설지원(식품검사연구소), 식품안전 기술전수
		몽골 친환경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사업('13~'15/160만 달러)	시설지원(실험농장), 연구자 역량강화
		몽골 축산물 가공 및 위생관리시스템 사업('12~'15/-)	시설지원(가공공장), 축산물 위생 관련 기술전수
		몽골 주민지도자 양성교육 및 유목민 소득증대지원 사업('12~'13/'15~'16/-)	마을단위사업
		농목축업 기반 마을 조성을 통한 몽골 환경난민(사막화, 기후변화) 재정착 사업('12~'13/'14/-)	시범농장 조성, 교육센터 구축
		몽골 할흐골 시범농장사업('11~'14/400만 달러)	시범농장 조성, 농민 역량강화
서부권	우크라이나(0)	-	-
	벨라루스(0)	-	-
	아르메니아(0)	-	-
	아제르바이잔(1)	아제르바이잔 IOM 물공급시스템(카흐리즈) 구축 지원사업('18~'22/450만 달러)	시설개선(용수공급시설)
	조지아(0)	-	-
	몰도바(0)	-	-

주: ODA사업 중 컨설팅사업(KSP, KAPEX, KOPIA등)과 연수사업은 제외하였음.
자료: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 통합보고시스템(http://stats.odakorea.go.kr: 2019. 10. 5.).

2.1.3. ‘농업투자협력 지원센터(가칭)’ 설립

동부권의 극동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지역에 ‘농식품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극동 농업지원센터’가 2014년 3월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극동 농업지원센터’는 현지 진출기업의 대정부 협의, 영농기술 및 농기계관리 기술 지원, 농자재 공동구매, 농업환경조사, 진출기업 간 정보교류 및 현지 기업인들과의 협력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극동농업지원센터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 진출기업의 영농활동에 대한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농업가치사슬 전반의 농업투자협력 지원을 담당하는 ‘농업투자협력 지원센터(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중부권과 서부권의 거점국가에 각각 설치[81]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농업투자협력 거점국가에 설치되는 ‘농업투자협력 지원센터(가칭)’는 권역내 국가에 대한 투자환경 및 시장조사, 해외진출 이전단계에서부터 정착 단계까지의 민간기업 투자관련 업무 지원, 대상국가와의 투자협력 협의, 진출기업의 영업활동 실태조사 등의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농업투자협력 지원센터’는 권역내 국가의 한국대사관, KOTRA 무역관, KOICA 사무소, KOPIA 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투자협력과 ODA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투자협력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보조사업 예산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해외농업과 ODA사업 분야 전문가 및 인턴을 고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협력투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8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 3항에서 해외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2.2.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을 구분하여 해외 진출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장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융자사업의 경우 불용금액이 발생하여 매년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대기업 위주의 융자지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 준비단계와 정착 단계의 정보제공과 조사지원 등의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와 민간 기업의 인식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2.2.1.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가. 배경 및 필요성

해외 진출 기업의 농업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융자지원 사업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융자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불만, 안정적 식량 확보와 관련이 적은 작목에 대해 대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농림축산식품부 2019)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3장의 일본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농림수산성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융자를 제공하지 않는다.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해외 진출에 소요되는 운영 자금을 직접 은행권에서 융자 또는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러한 일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해외 진출 기업에 직접 자금융자를 제공하기 보다는 간접 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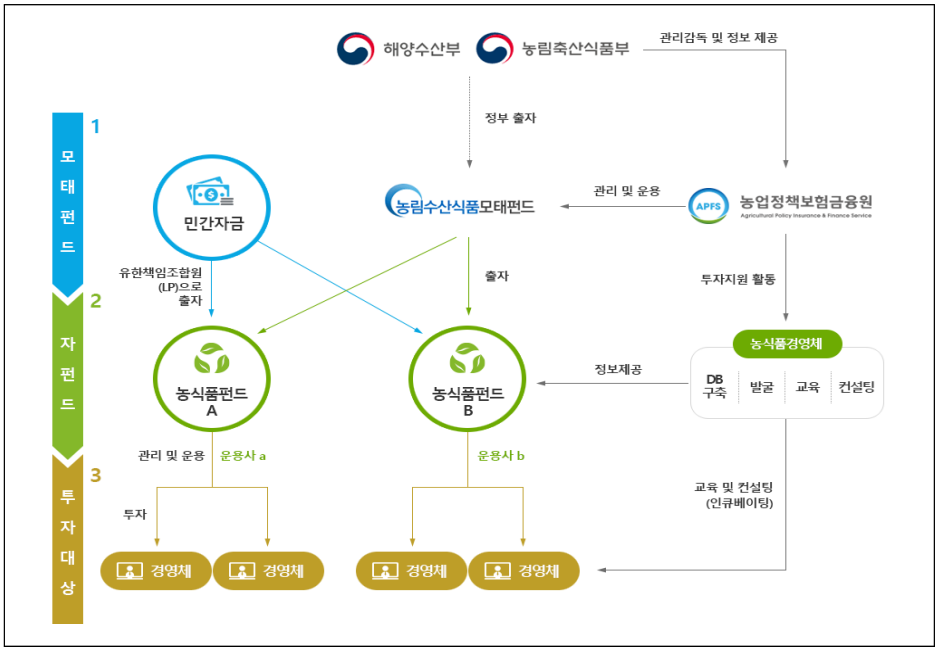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관리업무와 농업 분야 농식품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어 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투자대상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6호에 해당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다.[82] 따라서 현행의 농식품 해외 진출 지원 융자사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에 정책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우수한 사업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 농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조합(또는 투자회사)'을 설립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투자 규모의 80%를 정부 정책자금으로 출자하여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그림 5-2>와 같이 투자조합 및 펀드 조성, 펀드 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투자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투자운용사를 지정하여 투자대상자의 사업성 검증, 투자조건 협의, 최종 투자심사, 투자계약, 투자 이후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83]

8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www.apfs.kr: 2019. 11. 1.)
83) 위와 같음.

그림 5-2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체계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http://www.apfs.kr/ : 2019. 11. 1.).

이와 같이 기존의 융자방식에서 투자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투자기업 선정 및 투자금 집행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 농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사례 – 세계로 가는 우리 식품의 힘, 주식회사 시아스

- '시아스'는 식자재 생산기업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개발, 공장 증설, 생산라인을 갖추기 위한 자금이 필요
- 농식품 모태펀드로부터 60억 원을 투자받고 중국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한 다양한 컨설팅을 받아 성공적으로 중국 식품시장 진출
- 중국시장 진출 첫해 17억 원 매출 달성과 현지 판매장에 판매라인 확충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식품 모태펀드'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prologue/ : 2019. 11. 1.)

2.2.2. 보조사업 규모 확대 및 추진체계 개선

현재 정부는 농식품 해외 진출 지원(보조)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의 해외투자환경조사, 전문교육, 극동 농업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정보제공 및 워크숍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사업의 내용에 비해 예산은 연 30억 원 미만의 소규모로 책정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매년 예산대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표 3-4> 참조). 또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제3장과 제4장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의 농식품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확산, 그리고 해외시장 및 투자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본 사례와 같이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30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 예산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의 이원화된 보조사업 추진체계가 일원화되거나, 담당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2.3.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 구축

2.3.1. 해외 농업투자 실태 조사 및 분석

제4장의 연구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수익구조 등 경영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부족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 현재 해외농업

진출기업과 관련한 자료는 ‘신고기업’양식(<부록 1> 참조)에 기재되는 일부 내용과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서 조사하는 해외농산물의 국내 반입량 자료가 전부이다. 또한 ‘신고기업’과 ‘진출기업’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진출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경영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해외공관과 KOTRA 등 현지에 주재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 분야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각 권역별 거점국가에 위치하는 ‘농업투자협력 지원센터’ 또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해외 진출 농기업의 경영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농업투자의 문제점과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책지원 방안과 중장기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진출기업과 관련한 조사 및 분석 자료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3.2.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제3장의 일본 사례와 같이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기업에 제공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해외 농업투자와 관련한 국가별 투자환경 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통해 간간이 발간되고 있으며, 해외 진출 의향 기업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별적으로 직접 시장 조사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사보고서와 관련 정보들이 혼재되어있어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해외농업투자와 관련한 통계자료와 국별 보고서 등을 생산하는 기관(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생산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한「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7조 1항 및 2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 1항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84]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보조금 예산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4. 농업투자협력 지원체계 구축

2.4.1. 산학관연 협력체계

제3장에서 소개된 일본의 해외 진출 민관협력 모델과 같이, 우리나라의 해외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 정부, 학계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그림 5-3> 참조).

민간기업은 해외 농업투자의 주체이며, 기업 운영을 위해 현지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또는 기술협력과 기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운영상황이나 애로사항 등을 정부, 학계, 협력 기업과 공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 민간기업에 대한 실태 분석이 가능하며, 기업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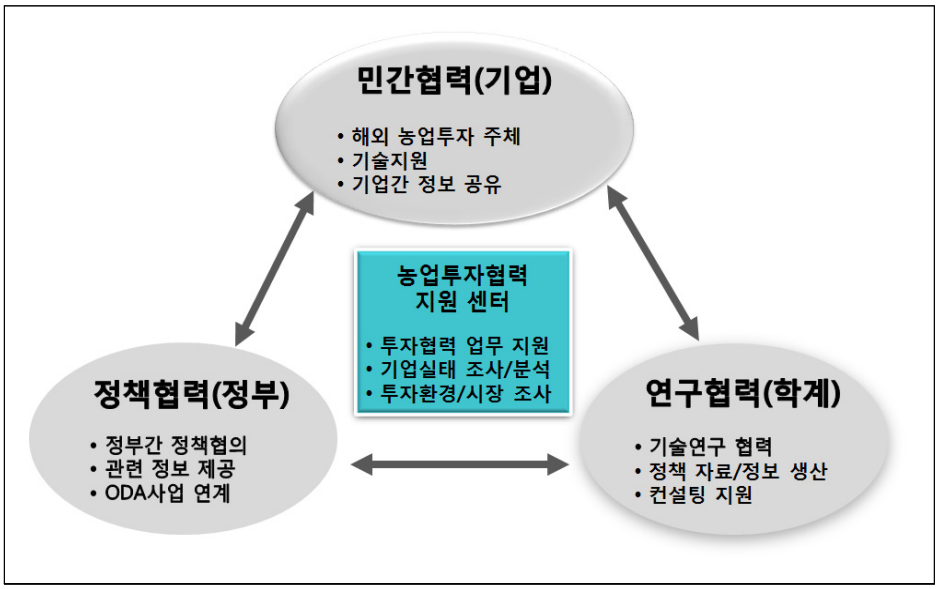
정부(농식품부, 관련 공공기관)는 대상 국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쟁점 이슈(토지, 세금, 통관 문제 등)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시스템과 농업투자협력 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해외 농업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외 진출 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84)「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2조 1항에 따르면,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는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해외농업 자료 및 해외농업시장의 조사·분석결과, 주요국의 농업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농업관련 국제적인 동향 정보, 해외농업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함.

그리고 정부는 민간기업의 농업투자 분야와 ODA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와 ODA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학계(대학, 연구기관)는 해외 농업투자 대상국가의 시장 및 투자환경 등의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농업투자협력의 거점국가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농업 현황, 투자 현황, 해외농업 자료 등을 생산하고,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를 해외 진출 민간기업과 대상국가의 학계와 공유할 수 있다. 또는 해외농업과 ODA사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해외 진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5-3 산학관연 농업투자협력 모델



자료: 김종선 외(2018b: 73)의 3각 협력 모델을 재구성.

2.4.2. 해외농업 민간투자 지원 체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융자사업의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에 출

자하여 간접적으로 민간기업에 투자하도록 한다. 또한 지원사업의 관리와 감독 및 평가를 수행하며, ODA사업과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각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홍보 및 민간교류 업무, 해외농업투자실태조사, 해외농업개발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분담하거나 하나의 기관에서 추진한다.

국내의 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은 해외농업 관련 통계정보와 연구자료를 생산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경영컨설팅, 투자지원 업무, 해외농업 개발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표 5-3 관련 기관별 해외농업 민간투자 지원 업무

구분	담당기관	지원 업무
국내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국가와의 정책협의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제도적 갈등 해소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개선(제도정비, 예산확보) - 지원사업 관리, 감독, 평가 - ODA사업 연계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지원사업 홍보 및 민간교류 - 해외농업투자실태조사 - 해외농업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기관 및 대학	- 해외농업 관련 통계정보 및 연구자료 생산 - 전문인력 양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 융자사업 추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영)
해외	해외공관 KOTRA 무역관 KOICA 사무소 KOPIA 센터	- 해외 농업현황 및 투자환경 조사 협조 - 해외투자실태조사 협조 - 현지 국가와 투자협력 협의
	농업투자협력지원센터 (신설)	- 북방지역 권역내 농업투자 플랫폼 - 해외농업투자실태조사 지원 - 현지 투자업무 지원

자료: 저자 작성.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 융자사업의 정책자금을 출자 받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통해 해외농업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한다. 투자이후 기업의 사업보고서, 투자금 사용내역, 경영 성과 등을 관리한다.

해외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 KOTRA 무역관, KOICA 사무소 등은 해외농업 현황과 투자환경 조사, 해외투자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현지 국가와의 농업투자협력 등을 위한 네트워킹과 자료 등을 제공한다.

'농업투자협력지원센터(가칭)'는 북방지역의 권역 내 농업투자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며, 해외농업투자실태조사와 현지 투자업무를 지원한다.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6장

요약 및 결론

최근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설치되고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이 수립되면서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극동 러시아 중심의 해외 진출 지역을 중앙아시와 흑해지역으로 확대하고, 진출 분야 또한 곡물위주의 생산에서 스마트 팜, 농기자재 등 농업 연관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운영자금 융자, 해외정보 및 컨설팅 제공 등 정책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기업 수가 적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농업진출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북방지역의 농업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 번째는 FAO, World Bank 등의 해외통계 DB와 보고서를 검토하여 북방지역의 권역별 농업현황과 투자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방지역 권역별 유망투자분야와 거점국가를 선정하였다. 두 번째로는 정책자료와 관련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농업진출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위탁연구를 통해 일본의 지원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농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세 번째로는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신고기업에 대한 자료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해외 진출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북방지역을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농업환경과 투자환경을 검토하였다. 동부권 지역의 국가들은 밀, 옥수수 등 곡물류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나 곡물의 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곡물류 생산 및 가공, 곡물 저장시설과 물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 동부권 국가들 중에 극동 러시아지역이 곡물류의 주요 생산지이며, 보스토치항과 블라디보스톡항과 인접하고 있어 동부권의 곡물생산과 가공, 물류 분야에 대한 투자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중부권의 국가들은 주로 밀, 면화, 포도, 토마토 등 곡물류와 과채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과일과 채소류의 가공산업 및 종자산업, 시설원예 기자재산업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 중부권 국가들 중에 카자흐스탄이 최대 농업생산 국가이며 투자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투자 유망 분야에 대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다.

서부권은 밀, 포도, 감자, 축산물 등을 주로 생산하고 농산물의 수출 비중이 수입에 비해 높으나, 종자와 비료, 농기계 등 관련 산업의 환경이 열악하다. 따라서 농기자재 산업과 치즈, 버터 등 축산물가공 산업이 유망한 투자 분야로 선정되었다. 서부권 국가들 중 우크라이나는 비록 다른 국가에 비해 투자환경이 열악하지만 최대 농업생산 국가이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어 투자 유망 분야에 대한 거점역할에 적합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은 농식품산업의 저변 확대와 해외 식량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자사업은 시설 및 운영자금의 70%를 연 2%로 융자하는 사업이며, 보조사업은 해외 진출 국가의 투자환경조사 지원, 인력양성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09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었으며, 보조사업은 같은 기간동안 231억 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융자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예산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은 2018년 12월 기준 184개 기업이며, 주로 남방지역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93개 기업), 농업 생산형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147개 기업). 신고기업의 실적보고율은 28%이며, 정부는 이를 신고기업의 정착률 또는 생존율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실제 신고기업의 활동현황을 대표할 수 없는 자료이며, 신고기업의 진출률, 생존율, 실적보고율, 정착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지원정책 사례를 보면, 민관협력을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으며, 산학관협력을 통한 ODA사업과 연계, 시장 및 투자환경 조사,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 간접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본사례는 우리나라의 농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큰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 진출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진출이전 단계에서의 사전조사 미흡이 해외 진출 실패의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지원정책 중에서 융자사업 보다는 환경조사나 컨설팅 등 보조사업이 해외 진출 기업의 사업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 진출 기업이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조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정부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진출 지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기업의 운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영농지원센터가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업 분야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제시한 '농업 분야 진출 활성화'과제와 맥락을 같이한다. 북방지역 권역별 거점국가 육성,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개선,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 구축, 농업투자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역별로 거점국가는 권역별 투자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ODA사업과 연계하여 투자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농업투자협력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 진출이전 및 이후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및 시장 조사 지원, 투자관련 업무 지원, 대상 국가와의 투자협력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사례와 같이 해외 진출 기업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자금융자를 제공하기 보다는 간접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정책자금을 출자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조합을 설립하여 해외 진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사업내용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 농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의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조사업을 통한 정책지원이 기업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진출 기업의 진출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에서 정확한 시장 및 투자환경 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경영 및 실적과 관련된 정보 수집이 정책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외정보의 수집 및 제공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농업 분야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부, 학계, 기업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상국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투자여건과 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보조사업의 확대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계는 농업투자 대상국가의 시장 및 투자환경 등의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신청서 양식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예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사업자	①상호 (주) 한국		②대표자	홍길동
	③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00번지		④전화번호	02-000-000

대상자 (현지 사업자)	⑤상호 VENTURA.,Ltd	⑥국가 인도네시아	⑦대표자	NICOLE KIDMAN
	⑧주소 사업장 소재지 주소 기재		⑨전화번호	+62-22-0700-0000

사업 개요	⑩사업명	인도네시아 옥수수농장 개발/조사사업(擇)	⑪대상자원	옥수수
	⑫투자규모	USD 5,000,000(한국측)	⑬투자비율	70%
	⑭사업장 소재지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자카르타 동쪽 1,200km지점)	⑮개발방법	합작(또는 단독) 개발

※ 아래 난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⑯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개발방법 [ ]투자 규모·비율 [ ]계약 상대방 [ ]대표자 [ ]지분 [ ]사업장 소재지 [ ]그 밖의 변경사항		
변경 사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의 ([√] 신고 [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 림 청 장 귀하

해외농업 진출기업 설문조사표

해외농업개발 진출(의향)기업 조사

응답자 정보				
현지법인명			모기업	
작성자	이름		전화번호	
	직책		핸드폰	
	이메일			

해외농업개발 사업진출 단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사는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① 네 ⇒ 여기서 응답을 멈추시고 **문항 6**으로 이동하셔서 응답을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니요 ⇒ **문항 2**로 이동

2. 귀사는 현재 해외에서 농업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① 네 ⇒ 여기서 응답을 멈추시고 **문항 40**으로 이동하셔서 응답을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니요 ⇒ **문항 3**으로 이동

3. 귀사는 다음 중 어떠한 곳에 속합니까?
   ① 이미 진출하였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철수한 상태 ⇒ **문항 3-1**로 이동
   ②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진출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상태 ⇒ **문항 3-4**로 이동
   ③ 기타( ) ⇒ **문항 4**로 이동

   3-1. 귀사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진출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 )
   3-2. 귀사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철수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 )
   3-3. 정착하지 못하고 철수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3-4. 해외 진출 계획단계에서 포기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4. 귀사는 다음 중 어떠한 유형입니까?
① 생산형 ② 제조·가공형 ③ 유통형(내수 또는 수출) ④ 기타(_____)

5. 귀사의 주요 취급품목은 무엇입니까?
① 농축산물 ② 식품제조 및 가공 ③ 농자재 ④ 기타(_____)

5-1. 농축산물의 경우
① 곡물(_____) ② 과일(_____) ③ 노지채소(_____)
④ 시설채소(_____) ⑤ 화훼(_____) ⑥ 축산물(_____)
⑦ 임업(_____) ⑧ 기타(_____)

5-2. 식품제조 및 가공의 경우
① 곡물가공(_____) ② 과일채소가공(_____) ③ 육가공(_____)
④ 유가공(_____) ⑤ 기타식품(_____)

5-3. 농자재의 경우
① 종자(_____) ② 비료/농약(_____) ③ 사료(_____)
④ 농기계(_____)⑤ 온실자재(_____) ⑥ 기타(_____)

♣ 5번까지 응답하신 분은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업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귀사가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_____)

7. 진출한 국가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8. 귀사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진출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

9.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해 준비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개월)
(* 해외 진출을 위한 계획부터 현지에서 실제 사업(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

10. 귀사는 다음 중 어떠한 유형입니까?
① 생산형 ② 제조·가공형 ③ 유통형(내수 또는 수출) ④기타(_____)

11. 귀사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진출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농식품의 생산·가공 후 국내 반입 또는 수출
② 농식품의 생산·가공 후 현지 판매
③ 농자재(비료, 사료, 농기계, 종자, 온실기자재 등) 생산, 판매 및 수출
④ 기타(_____)

12. 귀사의 주요 취급품목은 무엇입니까?
① 농축산물 ② 식품제조 및 가공 ③ 농자재 ④ 기타(_____)

12-1. 농축산물의 경우
① 곡물(_____) ② 과일(_____) ③ 노지채소(_____)
④ 시설채소(_____) ⑤ 화훼(_____)
⑥축산물(_____) ⑦ 임업(_____) ⑧ 기타(_____)

12-2. 식품제조 및 가공의 경우
① 곡물가공(_____) ② 과일채소가공(_____) ③육가공(_____)
⑤ 유가공(_____) ④ 기타식품(_____)

12-3. 농자재의 경우
① 종자(_____) ② 비료/농약(_____) ③ 사료(_____)
④ 농기계(_____) ⑤ 온실자재(_____) ⑥ 기타(_____)

13. 귀사는 다음 중 어떤 투자형태입니까?
① 단독투자 ② 합작투자 ③ 기타(_____)

14. 귀사는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직접경영 ② 현지파트너와 공동경영 ③ 제3자 위탁경영
④ 기타(_____)

15.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_____)달러(USD)

사업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주요 취급품목의 2018년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16-1. 2018년 총 매출액 _____달러(USD)
16-2.(품목명)_____ 2018년 매출액 _____달러(USD)
16-3.(품목명)_____ 2018년 매출액 _____달러(USD)
16-4.(품목명)_____ 2018년 매출액 _____달러(USD)

17. 생산한 품목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현지시장과 국내반입 제외)
① 있다 ⇒ **문항 17-1.** ② 없다 ⇒ **문항 18.**

17-1.수출경험이 있다면 주요 수출국가는 어디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18. 2015년 이후 생산한 품목을 한국으로 반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9. 향후 생산된 품목을 한국으로 반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항 19-1. ② 없다 ⇒ 문항 19-2.

19-1. 생산품을 국내 반입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19-2. 반입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0. 2018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내수(현지시장), 수출, 국내반입(한국)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20-1.내수시장(현지) __% 20-2.수출시장(제3국) __% 20-3.국내반입(한국) __%

21. 2018년 기준 총 매출액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

22. 귀사의 현재 시장점유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23. 현지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 (_____)명
23-1. 상시 주재하는 한국인 직원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23-2. 현지 직원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정부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정보제공**(해외농업정보 포털운영, 계간지 및 진출사례집 발간)
- **해외환경조사**(현지투자환경 탐색비 지원)
-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지역별 특화전문교육)
- **진출자금 융자지원**(5년 거치, 10년 상환)
- **컨설팅**(재배기술, 경영개선 등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 **해외인턴 채용 지원**
- **진출기업 정보교류 지원**(정례간담회,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및 워크숍)
- **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진출기업의 인허가 지원, 영농기술 및 관리 지원 등)

24. 해외농업 정보제공(계간지 및 진출사례집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항 24-1. ② 없다 ⇒ 문항 25.

24-1. 해외농업 정보제공을 받았다면, 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24-2. 해외농업 정보제공 지원사업의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5. 진출기업 정보교류 지원사업(정례간담회,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워크숍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항 25-1. ② 없다 ⇒ 문항 26.

25-1. 진출기업 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25-2. 진출기업 정보교류 지원사업의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6. 다음의 정부지원 사업 중 어떠한 지원을 받았습니까? (해당하는 곳 모두 선택)
① 해외환경조사 ② 전문인력양성 ③ 융자지원 ④ 컨설팅
⑤ 인턴채용지원 ⑥ 영농지원센터의 도움 ⑦ 없음 ⇒ 문항 26-13.

26-1. 해외환경조사 지원사업을 받았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26-2. 해외환경조사 지원사업의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6-3.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을 받았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26-4.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의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6-5. 융자지원사업을 받았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26-6. 융자지원사업의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6-7. 컨설팅 지원사업을 받았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26-8. 컨설팅 지원사업의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6-9. 인턴채용 지원사업을 받았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26-10. 인턴채용 지원사업의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6-11. 영농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26-12. 영농지원센터의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6-13.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진출기업 지원사업 외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27. 귀사는 해외농업개발기업 신고를 하였습니까?
① 했다 ⇒ 문항 27-1. ② 안했다 ⇒ 문항 27-2.

27-1. 해외농업개발기업 신고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는 어떤 경로로 취득하였습니까?
① 인터넷 관련 홈페이지
② 지인이나 해당사업에 진출한 기업을 통해서
③ 정부홍보물을 통해서
④ 기타 ( )

27-2. 해외농업개발기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사전에 해당 정보가 없어서
②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③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④ 기타 (_____)

28. 해외농업개발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수행하였습니까?
① 했다 ⇒ 문항 28-1. ② 안했다 ⇒ 문항 29.

28-1. 사전조사를 수행했다면 그 비용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 )달러

28-2. 사전조사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

29. 실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경영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항 29-1. ② 없다 ⇒ 문항 30.

29-1. 경영컨설팅을 받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현지 법·제도에 대한 어려움 해소
② 생산 원료, 투입재 조달 및 확보를 위해서
③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④ 마케팅 전략 및 판로 확보를 위해서
⑤ 기타( )

사업 성과 및 애로사항 관한 질문입니다

30. 사업 진출초기 가장 어려웠던 두 가지 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인허가 등을 위한 법, 제도, 규제 등 행정 절차 극복
② 현지인력 채용 및 관리
③ 한국으로부터의 필요한 기자재 등 통관
④ 해당국가의 사업 및 품목 관련 시장 정보 미흡
⑤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
⑥ 의사소통의 어려움
⑦기타(_____)

31. 농축산물(식품, 자재)의 생산 및 제조의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필요한 원료 및 농자재의 원활한 확보
② 생산물의 품질관리
③ 수확 후 필요한 저장 또는 보관시설 이용
④ 한국으로부터의 필요한 기자재 등 통관
⑤ 해당국가의 관련품목 시장 정보 미흡
⑥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
⑦기타(_____)

32. 생산(제조)된 제품의 판매(현지 또는 수출)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마케팅 역량 부족
② 유통 및 물류 인프라 부족
③ 수확 후 필요한 저장 또는 보관시설 이용
④ 현지 또는 수출대상국의 관련품목 시장 정보 미흡
⑤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
⑥기타(_____)

33. 생산(제조)된 농축산물(식품, 자재)의 한국 반입 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물류문제(산지에서 수출까지)

② 동식물검역
③ 품질조건 등 충족 어려움
④ 기타 ( )

3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중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현지 법, 제도, 인허가 규제 등 현지투자 환경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인지
② 비즈니스 해당품목과 관련된 시장 및 현지 생산여건 분석
③ 사전타당성분석
④ 현지 사업파트너 확보
⑤ 토지 소유 또는 이용에 관한 문제 해결
⑥ 기타 ( )

35. 귀사는 현재까지 추진해 온 농업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성공적이지 않다 ② 성공적이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 ⑤ 매우 성공적이다

36. 귀사가 현재까지 추진해 온 농업개발사업의 매출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37. 귀사가 현재까지 추진해 온 농업개발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38. 귀사가 현재까지 추진해 온 농업개발사업의 성장률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39. 귀사가 추진해 온 농업개발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좋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기업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40. 현재 해외농업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떤 단계입니까?

① 사업을 단순히 구상하는 단계
②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공장입지, 투자규모, 운영조직, 법인형태 등 결정)
③ 진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분석을 하는 단계 (손익계산, 사업성분석 등 재무제표 작성)
④ 해외 진출을 확정하고 사업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
⑤ 기타( )

41. 현재 귀사가 계획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해 준비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개월)

42. 귀사는 다음 중 어떠한 유형입니까?

① 생산형 ② 제조·가공형 ③ 유통형(내수 또는 수출) ④ 기타(_____)

43. 계획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 진출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농식품의 생산·가공 후 국내 반입 또는 수출
② 농식품의 생산·가공 후 현지 판매
③ 농자재(비료, 사료, 농기계, 종자, 온실기자재 등) 생산, 판매 및 수출
④ 기타(_____)

44. 해외 진출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_____)달러(USD)

45. 귀사의 주요 취급품목은 무엇입니까?

① 농축산물 ② 식품제조 및 가공 ③ 농자재 ④ 기타(_____)

45-1 농축산물의 경우

① 곡물(_____) ② 과일(_____) ③ 노지채소(_____)
④ 시설채소(_____) ⑤ 화훼(_____) ⑥ 축산물(_____)
⑦ 임업(_____) ⑧ 기타(_____)

45-2 식품제조 및 가공의 경우

① 곡물가공(_____) ② 과일채소가공(_____) ③ 육가공(_____)
⑤ 유가공(_____) ④ 기타식품(_____)

45-3 농자재의 경우

① 종자(_____) ② 비료/농약(_____) ③ 사료(_____)

④ 농기계(_____) ⑤ 온실자재(_____) ⑥ 기타(_____)

46. 귀사는 다음 중 어떤 투자형태로 진출할 생각입니까?
① 단독투자 ② 합작투자 ③ 모름 ④ 기타(_____)

47. 귀하의 기업은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진출할 생각입니까?
① 직접경영 ② 현지파트너와 공동경영 ③ 제3자 위탁경영
④ 모름 ⑤기타(_____)

사업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48. 주요 취급품목의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48-1. 총 2018년 매출액 _____달러(USD)
48-2.(품목명)_____ 2018년 매출액 _____달러(USD)
48-3.(품목명)_____ 2018년 매출액 _____달러(USD)
48-4.(품목명)_____ 2018년 매출액 _____달러(USD)

49. 생산한 품목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항 49-1** ② 없다 ⇒ **문항 50**

49-1.수출경험이 있다면 주요 수출국가는 어디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50. 2018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시장과 수출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50-1.국내시장 _____%
50-2.수출 _____%

51. 2018년 기준 총 매출액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52. 해외 진출 후 생산된 품목을 한국으로 반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3. 현재 귀사의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54. 근무하는 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 (_____)명

54-1. 정규직 직원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54-2. 비정규직 직원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정부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정보제공**(해외농업정보 포털운영, 계간지 및 진출사례집 발간)
- **해외환경조사**(현지투자환경 탐색비 지원)
-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지역별 특화전문교육)
- **진출자금 융자지원**(5년 거치, 10년 상환)
- **컨설팅**(재배기술, 경영개선 등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 **해외인턴 채용 지원**
- **진출기업 정보교류 지원**(정례간담회,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및 워크숍)
- **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진출기업의 인허가 지원, 영농기술 및 관리 지원 등)

55. 해외농업 정보제공(계간지 및 진출사례집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항 55-1 ② 없다 ⇒ 문항 56

55-1. 해외농업 정보제공을 받았다면, 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55-2. 해외농업 정보제공 지원사업의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56. 진출기업 정보교류 지원사업(정례간담회,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워크숍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항 56-1 ② 없다 ⇒ 문항 57

56-1. 진출기업 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56-2. 진출기업 정보교류 지원사업의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57. 다음의 정부지원 사업 중 어떠한 지원을 받았습니까? (해당하는 곳 모두 선택)
① 해외환경조사 ② 전문인력양성 ③ 컨설팅 ④ 영농지원센터의 도움
⑤ 없음 ⇒ 문항 57-9.

57-1. 해외환경조사 지원사업을 받았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57-2. 해외환경조사 지원사업의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57-3.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을 받았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57-4.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의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57-5. 컨설팅 지원사업을 받았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57-6. 컨설팅 지원사업의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57-7. 영농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57-8. 영농지원센터의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57-9.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진출기업 지원사업 외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58. 귀하의 기업은 해외농업개발기업 신고를 하였습니까?
① 했다 ⇒ 문항 58-1. ② 안했다 ⇒ 문항 58-2.

58-1. 해외농업개발기업 신고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는 어떤 경로로 취득하였습니까?
① 인터넷 관련 홈페이지
② 지인이나 해당사업에 진출한 기업을 통해서
③ 정부홍보물을 통해서
④ 기타 ( )

58-2. 해외농업개발기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사전에 해당 정보가 없어서 ②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③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④ 기타 (_____)

사업성과 및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59. 사업진출을 계획하는 데 가장 어려운 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인허가 등을 위한 법, 제도, 규제 등 행정 절차 극복
② 현지인력 채용 및 관리
③ 한국으로부터의 필요한 기자재 등 통관
④ 해당국가의 사업 및 품목 관련 시장 정보 미흡
⑤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
⑥의사소통의 어려움
⑦기타(_____)

60.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중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현지 법, 제도, 인허가 규제 등 현지투자 환경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인지
② 비즈니스 해당품목과 관련된 시장 및 현지 생산여건 분석
③ 사전타당성분석
④ 현지 사업파트너 확보
⑤ 현지 토지 소유 또는 이용에 관한 문제 해결
⑥ 기타 (　　)

61. 현재까지 계획해 온 농업개발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가능성이 없다 ② 가능성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가능하다 ⑤ 거의 가능하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해외농업개발 기업 면담조사 결과[85)]

1) 기반아그로 (노루기반) 면담

□ 면담일시: 2019년 6월 10일

□ 주요 면담 내용

○ 기반아그로 (노루기반) 소개 및 진출 현황

- 노루기반은 2013년~2014년간의 사전조사 기간을 거쳐 2014년 첨단 온실 시설의 모델화 및 해외 수출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 5월에는 현지법인인 기반아그로를 설립하고, 자르켄트 지역에 위치한 토마토 온실을 매입함.
- 자르켄트 지역은 알마티에서 중국 방향으로 약 350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온실 시설은 기존에 한국인이 터키식으로 4ha 규모의 시설 공사를 추진했다가 돌풍으로 인해 철수한 곳을 매입 및 보수하여 활용함.
- 현재 4작기가 종료된 상황으로, 마지막 작기에는 노루홀딩스 아래 종자회사인 '더기반'에서 만든 종자(데프니스 개량종자)를 활용하여 재배함.
- 카자흐스탄의 토마토 시장가격은 보통 겨울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가(도매가 기준 kg당 약 5,000원), 4월부터 쉼켄트 지역에서 재배되는 토마토 수급량이 늘어나며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최근

85) '부록 3'의 내용은 본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두 건의 출장 복명서('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농업박람회 참석 및 현지조사, 2019. 6. 6.~6. 12.', '우즈베키스탄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참석 및 키르기스스탄 현지조사, 2019. 6. 12.~6. 19.')의 내용에서 발췌하여 작성함.

도매가는 kg당 약 750원 수준.

- 투자비, 인건비, 고정비용을 고려했을 때 ha당 약 200톤 규모가 생산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만족하는 수준이나, 현재 4ha에서 약 500톤을 생산하는 데 그침.
-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지원금은 카자흐스탄 법인에서 활용한 경험은 없고, 중국 텐진에서 타 사업 건으로 활용한 바가 있음. 하지만 이 부분도 현지에서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지원은 없었음.

○ 현지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 시설재배 농가들이 현지 관례상 현금 거래, 무자료 거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공식적인 비용 처리 및 거래가 어려움.
- 또한 수출 물량의 경우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현지에서 재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함.
- 현지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재배 기술담당자가 자주 교체되어 기술이 축적되지 않음.
- 현재 카자흐스탄 법률상 외국기업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외국인 기업에 재대여 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활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일 처리가 번거로운 경우가 많음.
- 그 외에도 한국 농자재의 수입 통관이 어렵고, 현지 통신시스템이 열악하여 자동환경제어가 완전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운 점 등이 한계점으로 존재함.

○ 향후 사업 추진계획

- 향후 기반아그로는 현재의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전환하

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일례로 양파 육묘사업의 추진을 위해 3월 7개 종의 파종작업을 마쳤으며, 수확성을 봐서 내년도에 확장할 예정임.
- 기존의 토마토 온실 사업은 러시아 슈퍼마켓 체인과 카자흐 현지 패스트푸드 체인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재배 규모를 4ha에서 8~10ha까지 확장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또한 호르고스 경제특구에 유리 온실 하우스 재배 공동투자 진행을 위해 현재 POSCO 현지법인과 협의 중임.

2) RAKHET(롯데제과) 면담

□ 면담일시: 2019년 6월 11일

□ 주요 면담 내용

○ RAKHET 현황 소개

- RAKHET는 카자흐스탄 제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과회사로, 롯데제과는 2013년 해당 현지법인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음.
- 원가절감 및 가격 인상 등에 의해 2013년 대비 2018년 이익률은 5.4%에서 14.8%로 약 3배 신장했으며, 매출액은 2,340억 원에서 4,437억 원으로 연평균 13.7% 성장함.
- 현재 카자흐스탄 현지에 알마티 본 공장과 쉼켄트 제1공장, 제2공장까지 총 3곳의 공장을 운영 중이며, 생산 비중은 본 공장이 전체의 70%, 쉼켄트 공장이 30% 정도임. 카자흐스탄 현지 생산물량은 한국 롯데공장의 약 80% 수준(8만 톤)

○ 현지 진출 특이사항 및 애로사항

- 롯데제과의 경우 현지 제과업체인 RAKHET을 인수하여 현지에 진출

한 경우로, 여타 한국기업들이 외국기업으로서 겪는 제도나 규제상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임. 또한 현지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희망하거나 개선을 바라는 부분도 많지 않음.

- 다만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인근 국가들의 저성장국면 및 통화평가 절하로 인해 매출상으로는 성장세이지만 불변 가치(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크게 성장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카자흐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업 활동 혜택으로는 제조업 기반 확대를 위해 설비 투자 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거나, 6%의 대출 우대이율(시중 이율은 약 12~13% 수준)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있음.
- 한편 카자흐 국가 정책상 유휴부지 구입 시 사전에 구입 용도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을 시 국가에 몰수당할 위험이 있어 현재 알마티, 쉼켄트 공장 외에 추가 부지로 확보해둔 면적의 활용처와 시기를 논의하고 있음.

3) 카자흐스탄 농업기업협의회 면담

□ 면담일시: 2019년 6월 11일

□ 주요 면담 내용

○ 현지 진출 애로사항 청취

- 농업기업협의회는 카자흐 현지에서 활동하는 영농기업 및 개인농가들이 서로의 애로사항을 나누고 여러 가지 악조건 및 규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한 단체임. 현재 약 20명의 회원이 활동 중임.
-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 기업이 영농활동을 추진할 시 많은 제도적 제약조건이 존재함. 가장 큰 부분은 외국인 농지 법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점임.

- 또한 한국 내 재원을 활용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음. 한국 내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현지 업체의 경우 융자 신청에 필수적인 보험증권을 발행받기 어려우며, 현지 담보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제도에 대해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현재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DB상 카자흐스탄 내에 신고된 업체는 두 곳으로, 한 곳은 기반 아그로, 한 곳은 연락 두절로 인한 활동내용 파악이 어려운 개인 농가임.
- 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지에서 오랜 기간 영농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경우, 현지법인만으로는 기업 신고 및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크게 장점을 느끼지 못해 굳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기업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음.
- 최근 한국 대통령의 방카 이후 카자흐스탄 지역에 30억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기반하여, 농업기업협의회 회원들은 해당 지원 내역에 현지에서 활동하는 영농기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4) 한국-우즈베키스탄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참가 기업면담

□ 면담일시: 2019년 6월 13일

□ 주요 면담 내용

- 러시아의 EU·미국산 식품수입 금지조치로 인해 러시아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

역의 원예 및 과일작물 생산을 위한 시설원예 및 스마트온실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 러시아 및 중앙 아시아지역의 온실은 총 1만 5천 ha정도로 그중 우즈베키스탄이 9천 ha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러시아가 2만 6천 ha, 카자흐스탄이 1천 ha로 그 뒤를 잇고 있음. 이처럼 북방지역은 넓은 영토에 비해 온실 및 시설원예 보급률이 매우 낮아 (한국의 경우, 5만 5천 ha) 현재 수많은 한국 농기업이 시설원예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러시아, 동북3성, 흑해지역, 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 중에서도 중앙아시아 권역의 국가들은 경제수준이 낮아 우리나라 ODA 대상국에 포함되는 만큼, ODA와 해외농업개발의 연계가 필요함.
- ODA를 통한 한국의 종자, 재배기술, 농기계 등 우수한 농업기술 전수를 바탕으로 시설원예 및 과일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농자재 및 농기계 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진출한 농기계 및 농업시설관련 기업이 꾸준히 북방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는 원격 환경제어 등 첨단농업기술이 접목된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의 우리기업 진출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재배기술이 필요한 만큼 ODA 사업을 통해 재배기술,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필요함.
- 이러한 양국간의 협력을 위해 정부 간, 기업 간에 교류 확대가 필요함. 이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와 같은 좋은 기회를 통해 많은 한국 기업과 우즈베키스탄 기업이 서로의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실제 MOU 및 계약으로 진행되었음. 이러한 교류회를 정례화하여 양국 기업 간의

노출 빈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실제로 많은 우즈베키스탄 기업 및 농민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계 및 농업기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일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로는 지속적인 협력 및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 면담한 많은 농기업은 이러한 단발성 행사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시설 및 농기계의 판매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수요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만큼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현지화 전략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크다고 함.
- 따라서 이러한 교류회뿐만 아니라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시로 자신들의 농기계를 전시하고 판매한 농기계의 간단한 부품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ODA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영농지원센터 등을 조성할 때 우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 참가한 대부분의 농기업들은 농식품부의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모르고 있음.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정보제공, 환경조사, 융자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홍보의 부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알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 융자지원을 받지 위해 지원하려고 했거나 또는 실제 지원하였으나 담보능력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가 대부분임. 융자조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명성 면담 결과

- ㈜명성은 농산물을 가공하는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로 2000년 이후 농산물의 전처리, 세척, 살균, 건조, 포장 등 자동화시설을 제작하고 수출하고 있음. 2018년 기준 매출액은 150억 원으로 ISO 9001, ISO 14001 등의 인증기업으로 CJ, 풀무원, 대상, 신세계, 동원 등 국내 식품 선도 기업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수년 전부터 토마토, 오이 등의 시설원예 붐이 일고 있어 이러한 시설원예로부터 출하된 농산물에 대한 자동화 농가공시설 수출을 위해 본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 참석했음. 본사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토마토 및 오이 등 시설원예의 농업생산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원예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의 생산량은 우즈베키스탄의 생산량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의 경우 온실에서 20단 정도로 토마토를 재배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경우 기술력이 없어 6단 정도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수많은 우즈베키스탄 농민들이 붐처럼 비싼 대출을 받아 한국형 온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 만큼 생산성이 좋지 않아 조만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만나CEA 면담 결과

- ㈜만나CEA는 2013년에 설립된 스마트팜(식물공장)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이용하여 케일, 루꼴라, 바질, 로즈마리 등 샐러드 채소, 잎채소, 허브 등 40여 가지의 채소를 생산하고 있음.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물고기 배설물을 영양분으로 하여 채소들이 자라고, 또 채소가 정화한 물에서 물고기가 살아가는, 화학비료 없이 식물을 생산하는 농법으로

미국 농부무의 유기농 인증을 받았음.

- 작물의 생육 환경 및 조건을 자동으로 진단하고 제어하는 2만 ㎡의 인공지능형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스마트팜 시설을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하는 등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해외 진출을 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LBT Agro 면담 결과

- ㈜LBT Agro는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이 아닌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 기업임. 본사는 태양광모듈, 농자재 및 농기계 등을 수입하여 현지에 판매하는 무역사업을 하는 동시에 한국업체의 해외 진출 시 컨설팅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 2019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지정한 우즈베키스탄 해외민간네트워크로서 한국의 수출업체와 현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음.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시설원예 사업 활성화로 인해 현재는 농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 한국업체의 우즈벡 투자상담부터 시장성 조사, 리스크 관리, 마케팅전략, 세법, 수출계약 등 한국업체의 우즈벡 진출에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중진공의 해외민간네트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지사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9년 기준 전 세계에 총 127개의 중진공 지정 해외민간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음.
- 해외민간네트워크는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진입, 발전, 확장 세 단계에 걸쳐 지원을 하고 있음. 진입단계에서는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네

트워크 교류,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등의 기초 마케팅을 6개월간 지원하고, 이후 발전 단계에서는 수출·전시 상담회 참가지원, 물류통관 자문, 거래서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등 1년간에 걸쳐 마케팅 및 수출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확장단계에서는 현지법인설립, 법률자문, 해외투자유치 등 현지화 지원에 대해 1년간 지원하고 있음.

- 우즈벡의 경우 한국농기업이 진출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라 할 수 있음. 특히 농자재 및 농기계에 대해서 우즈벡 정부는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있고, 우즈벡 농림부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해 많은 관심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음. 특히, 우즈벡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할 경우 유통(비행기 물류비) 물류비를 대폭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현재 수많은 시설원예 업체가 경쟁하고 있음. 한국업체 간에 과당경쟁이 일어나면서 무리한 수주 단가를 인하하고 이로 인해 부실공사 등이 만연하고 있음.
-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설원예 사업은 1ha당 6억~7억 원의 비용이 발생함. 우즈벡 농민 및 기업들은 땅과 시설을 담보로 18~20%의 금리를 부담하면서 시설원예를 시작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과 우즈벡의 농업재배기술의 차이로 실제 한국에서 홍보하는 생산량만큼 되지 않아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수년 내 현지 농민 및 기업들은 파산할 가능성이 많음.

5) 키르기스스탄 진출기업 면담

□ 면담일시: 2019년 6월 18일

□ 주요 면담 결과

○ 키르기스스탄 농업환경

- 키르기스스탄의 국가경제에서 농업은 서비스와 제조업 다음으로 비중이 큰 분야라 할 수 있음. 2013년 기준 서비스업이 GDP대비 45%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34%, 그 다음으로 농업이 21%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농산물은 곡류 외에도 채소, 면화와 담배 등이 있음.

○ 가금류

- 축산업 중에서도 높은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개량종 가금류의 사육이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11개의 가금류 처리시설은 경영난으로 현재 4개 정도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키르기스스탄에서 소비되는 가금류 가공품은 70%이상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닭고기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시설과 품종으로 진출하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음.

○ 야크 및 염소

- 키르기스스탄에서 야크 사육 산업은 고지대의 육류자원을 증대시키고 수출가능성을 높이는 등 특별한 의미가 있음. 키르기스스탄은 전국토가 산악지대로 3백만 ha가량의 면적은 접근성이 좋지 못한 초지로 이루어져 있음. 이러한 높은 고지대에서 저비용으로 야크 사육이 가능함.
- 염소의 사육은 전통적인 가축 사육의 한 분야이며 키르기스 염소의 혈통이 바뀌는 과정에서 솜털염소(Kyrgyz downing goat), 양모염소(Kyrgyz wooly goat)로 개량되어 왔음. 이러한 개량종은 산지의 조건에 잘 적응하였고 케시미어 다운(cashmeer down), 모헤어 울(mohair wool), 가죽, 모피 및 염소가죽과 염소고기 등의 귀중한 생산물을 제

공해주고 있음. 현재는 염소젖이 영양음료 및 약용음료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젖 염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곡물류

- 밀은 키르기스스탄 전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특히 Chui주, Issyk-Kul주, Osh주에서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음. 밀이 이 나라의 가장 필수적인 곡물이지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운영자금 부족으로 많은 농부들이 밀 재배의 기술적인 과정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낮음. 연간 20만 톤의 밀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적 재배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콩은 현재 널리 재배되고 있지는 않으나 Chui주에서는 3,500㏊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으며, 생산된 콩은 이 지역의 콩기름 공장에 팔 수 있다. 콩의 재배면적을 늘리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콩기름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되며, 양질의 가축사료의 공급도 가능해짐.

○ 원예작물

- 감자는 육류와 함께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식용작물로 최근 국내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기술 및 재원의 부족으로 씨감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산량이 좋지 않아 무균 씨감자 종자의 확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에 정부는 주요 감자 재배지역에 바이오기술센터(Republican Bio-technical Center)를 설립하였으나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감자 재배면적은 7만~7만 3천 ㏊이며, 씨감자는 ㏊당 4톤이 필요하므로 전국적으로 28만~30만 톤의 씨감자가 공급되어야 하지만 그럴만한 기술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감자생산 이후에도 감자를 이용한 가공품을 만든 시설이 1%에

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임. 향후 감자 가공품에 대한 시설에 대한 투자도 유망한 것으로 판단됨.

- 사탕무의 재배면적은 3만 3천 ㏊에 달하고 있지만 생산기술 및 수확 후 과정에서 30%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사탕무의 생산능력이 Chui주에서는 200톤/㏊, Talas주에서는 250톤/㏊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수확량이 낮은 주요 이유는 농자재의 투입량 부족과 재배기술의 낙후 때문으로 농자재의 투입이 적정수준으로 높아지면 생산량이 350~370톤/㏊로 증가되어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과일

- 남부에 위치한 Batken주는 천혜의 환경과 좋은 품종으로 살구와 포도의 품질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건조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음. 최근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주변국의 과일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향후 과일 가공품에 대한 시설투자 및 진출 또한 유망한 분야로 꼽히고 있음.

○ 아티스 리프텍(주)

-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양파를 재배하는 '아그로 막스'라는 농기업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좋지 않아 폐업한 상태임. 현재는 아티스 리프텍이라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 수출업을 운영하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에 진출하는 농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음. 첫 번째로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은 유목민으로 아직도 그 습성이 남아 있음. 유목민 특성상 한곳에 정주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습성이 있어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할 때 신의와 신뢰가 매우 부족함.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음. 두 번째로 노동력의 질이

매우 좋지 않음. 과거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매사에 책임감이 없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부정부패가 매우 심해 여기저기 사업을 위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힘듦. 기존에 수행하던 아그로 막스라는 농기업은 양파를 재배하여 판매하던 기업임. 키르기스스탄은 겨울이 되면 양파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겨울양파는 추운 날씨에도 수확량과 품질이 좋다는 평을 듣고 사업을 시작하였음. 그러나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제대로 된 품질의 양파를 수확하지 못해 결국 도산하게 되었음.
- 키르기스스탄, 특히 비슈켁 지역은 대체로 만년설이 녹아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관개시설을 설치해 농사에 이용하고 있음. 이 외에 거의 모든 경지는 관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천수답으로 물관리가 농사에 가장 큰 애로사항임. 특히, 만년설을 이용한 관개시설은 공무원들이 물을 가두어 필요한 곳에 제공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심해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물이 제공되지 않음. 외국인 사업자에게는 특히 더 많은 금품을 요구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총 30여 개 정도의 한국인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이 여행사, 수출업자 등으로 농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극히 일부임. 또한 대부분 산악지대로 시설원예가 아닌 노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큰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최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을 시작으로 키르기스스탄에도 시설원예로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10여 년 전 현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10억 원 정도 규모의 시설재배 하우스 지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시설만 지원해주고 제대로 된 영농교육이 없어 현재는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아이젠 컴퍼니

- 아이젠 컴퍼니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로 주요 제품은 김치 및 반찬류임. 현재 11년째 꾸준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류 열풍으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특히 당겐(대장금)의 방영으로 김치 및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아이젠 컴퍼니는 김치 및 반찬을 생산 및 가공하여 비슈켁 시내의 대형 마트에 공급하고 있음. 초기에는 소형 슈퍼마켓, 한인 마켓에만 공급을 하였지만 작년부터 대형 슈퍼마켓에도 납품되고 있음. 특히 올해는 카자흐스탄의 '마그넘'이라는 대형유통마켓에도 입점 계약을 체결하였음.
- 한국에서 수입되는 김치보다는 가격면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특히 한국에서 수입되는 '비비고' 김치의 경우 1kg에 12달러 정도로 판매하는 반면 본사에서 제공하는 김치는 1kg당 4달러 정도로 매우 저렴함. 이렇게 가격을 싸게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김치 생산을 위해 양파, 고추, 배추 등을 직접 생산하여 가공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마케팅 역량부족 및 시설의 노후화를 꼽을 수 있음. 한국에서 규모를 가지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아니라 키르기스스탄에서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마케팅 및 가공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한국 정부에서 해외농업진출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경영컨설팅, 융자지원 등을 받고 싶지만 진출 기업도 아닌 현지 자생기업으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음. 진출기업이 아니더라도 현지 한인기업에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음.
-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내륙국 및 산악지대이자 러시아 및 주변국으로

물류 인프라가 매우 좋지 않음. 예를 들어 모스크바까지 제품을 수출하려면 운송차로 쉬지 않고 4~5일이 걸리는 실정임. 특히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은 부피도 크고 운송 도중에 부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농산물에 대한 투자 및 진출은 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에는 농산물 가공기업이 진출하면 그나마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우리 비료

- 5년 전 한국의 비료회사에서 우즈베키스탄에 45개 컨테이너 분량의 비료를 납품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는 한국의 비료가 우즈벡에서 판매되면 우즈벡의 화학비료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하였기 때문이었음.
-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도움으로 '한우리'가 물량 전체를 넘겨받아 키르기스스탄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음. 목화, 과일, 밀 등의 품목 생산에 비료가 사용되고 있음. 키르기스스탄 농촌에서는 밭갈이(경운작업)가 안되고 있으며, 소량의 비료를 구매하고 있음.
- 비료는 아프카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에 소량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물량의 50%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다시 반출되어 고려인이 판매하고 있음. 현재 한우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료는 25개 컨데이너 분량임.
- 한우리의 작년 비료 판매는 8톤 분량의 8만 달러였음. 소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큰 수익이 없음. 향후에는 대규모 농장과 판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료 살포기계 등도 함께 보급할 계획임.
- 현지 농기업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현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며, 현지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현실 상황에 부딪히

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키르기스스탄은 농자재 분야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한국기업의 진출이 필요함.

- 현지 진출 시 체계적인 시장조사가 어려움. '한우리'의 경우, 혼자서 통역과 함께 직접 시장을 방문하며 조사하였음. 비료 상점들이 각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비료 관련 조직이나 협회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비료 상점들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음.
- 일반적으로, 현지 교민이 사업에 진출하여 정착하는 데는 보통 3년 이상 소요됨.

○ 한협(토종닭)

- 한협은 3년 전에 키르기스스탄에 '종란'수출을 처음 시작하였음. 관세동맹에 따라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등에 닭과 계란을 판매하고 있음. 한국의 한협 본사에서 종계를 가져와 부화시켜 판매하고 있으며, 현지 법인(한협 LLC)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음.
- 2015년에 한국 양계와 검역요건 협약 체결이 처음으로 키르기스스탄과 이루어졌음. 이후 지금까지 7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지난해에 3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음.
-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검역위생 요건을 만드는 작업이 제일 어려웠음. 8~10년 동안 러시아를 방문하여 키르기스스탄 진출과 관세동맹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를 진행하던 담당 국장이 장관이 되면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였음. 키르기스스탄은 외국 투자환경이 좋고, 정부 부패가 덜 심하며, 한국에 우호적임. 다른 국가와의 검역요건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쉽게 해결되고 있음. 오이씨 지역의 시장점유율이 30%까지 이르렀음.
- 운영단계에서, 해외 진출 기업들은 운영자금 부족을 겪고 있음. 은행

융자가 어렵고, 담보 제공이 어렵기 때문임. 현지에 있는 담보 물권을 한국의 은행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저리 자금을 진출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함. 또한 물류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물류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토지문제로 인해 현지 파트너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현지 대사관에서 분쟁해결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으며, 현지 기업(경제인 연합회 등)이 직접 해결해야 함.

- 해외 진출 기업들은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현지에 진출하고 있음. 어디에 무엇이 잘 된다고 하더라는 말만 듣고 무작정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음. 정부는 현지 진출기업들에게 정확한 시장 정보 및 현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6) 대동공업 면담

□ 면담일시: 2019년 11월 15일

□ 주요 면담 결과

○ 대동공업 해외 진출 현황

- 대동공업은 주로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국가에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얀마, 앙골라 현지 정부와 수의계약(재무부 지급보증계약)을 통한 기계공급을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미얀마에는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사무소 인력은 영업직(파견) 1인 외에 AS 인력인 현지 직원들을 고용하여, 초청교육 및 현지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미얀마의 경우 대단위 답작 위주인 농사 형태, 토질 차이로 인해 70~100마력 수준의 대형마력 농기계 수요가 높은 편임.

- 국제시장에서 타사 대비 대동공업이 지니고 있는 비교우위는 양호한 품질, 적당한 가격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 쉼켄트 농기계 조립공장 관련

- 대동공업은 현지 파트너 기업과 합작하여 카자흐스탄 쉼켄트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당 기업의 제품에 맞는 생산공장 라인을 준비하였으나 유럽발 경제 위기 및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텡게화 절하 및 미수채권 문제 등으로 인한 현지 기업의 자금과 역량 부족으로 진출을 포기한 상황임.

○ 해외 농업개발진출 주요 애로사항

- 현지 진출 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 측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지 정부의 수입통관 협조 문제임.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제품 혹은 부품의 발주에서 최종 배송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움.
- 대동공업은 여전히 북방지역 국가로의 진출을 희망하지만, 러시아, 벨라루스산 농기계와의 현지 시장 점유율 및 가격경쟁력 문제나 현지의 비효율적이고 신속하지 않은 행정 절차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하지만 현지의 농기계 교체 수요나 지리적 인접성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요인임이 분명하므로, 정부가 사업발굴 단계에서의 투자사절단 파견 등 현지 네트워크 형성기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국가 간 협의를 통해 농기계 부품 등의 현지 통관 문제를 간소화, 효율화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함.

참고문헌

강길성·원용걸. 2018.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재고찰: 아프리카는 다른가?” 『국제경제연구』 24(2): 35-57. 한국국제경제학회.

김종선·최지현·최민정. 2018a. 『2018년도 북방경제협력 농업 분야 로드맵』. C0218-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선·차원규·최지현·이미나. 2018b. 『한-우크라이나 농업협력 방안』. C2018-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선. 2019. 『한국 농기업의 극동러시아 진출방향』. 한-러 극동포럼(2019. 6. 5.) 발표자료.

김용택·김정승·김종호·김완배·성진근. 2011. 『해외농업개발 해외 진출기업의 경영전략 분석』. R64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후. 2018. 『해외원조가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농림축산식품부. 2017. 『제11차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 『북방경제협력위원회 3차회의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지원(융자)사업 개선(안)』. 내부 회의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Ⅲ-CIS』.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017.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

북해도종합상사. 2016. 『ロシア連邦サハ共和国における質の高いインフラ普及促進事業(러시아연방 사하공화국 고품질 인프라 보급촉진사업)』.

수역훤·이준희·권영철. 2014. “중력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영리뷰』 18(2): 147-163.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유승훈. 2014. “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 유치 입지결정 요인과 중국의 상대적인 성과.” 『기업경영연구』 21(4): 21-39. 한국기업경영학회.

이대섭·이윤정·최민정. 2015. 『중앙아시아 산업구조 심층분석 및 진출전략: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C2015-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대섭·최용욱·이윤정·안규미·석현덕. 2017.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연구』. M1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농림수산성. 2009. 『食料安全保障のための海外投資促進に関する指針(식료안전보장을 위한 해외투자촉진 지침)』.

일본농림수산성. 2014.『フローバル・フードバリューチェーン戦略(글로벌 식품 가치사슬 전략)』.

일본농림수산성. 2019a.『フローバル・フードバリューチェーン戦略推進について(글로벌 식품 가치사슬전략 추진에 대하여)』.

일본농림수산성. 2019b.『日露協力プラン関連対策(일러협력계획관련대책:농림수산업 식품업분야)』.

일본외무성. 2018.『責任ある農業投資(책임 있는 농업투자)』.

일본중소기업청. 2019. 『中小企業海外展開支援施策集2019(중소기업해외전개지원시책집, 2019)』.

임정빈. 2019.『일본의 민간기업 해외 진출 지원정책 사례분석』. 위탁연구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영관·이시영. 2010.『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정책과 한·중앙아시아 농업협력 확대방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1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지현·허덕·최종우·이동소·서강철. 2016.『유라시아 시대의 해외 농업투자와 사료곡물 확보방안 연구(1/2차년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의 축산 및 곡물분야를 중심으로』. R7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2013.『주요 국가별 농업현황 및 투자여건 분석』.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018.『민간중심의 해외곡물 안정적 확보 및 도입방안』.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019. 내부자료

해외출장복명서(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농업박람회 참석 및 현지조사, 2019. 6. 6.~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출장복명서(우즈베키스탄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참석 및 키르기스스탄 현지조사, 2019. 6. 12~6. 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장·성명환·김경필·이대섭·이윤정. 2014.『유라시아 주요 국가 농업투자협력 활성화방안: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P1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ox, D. R. 1971. “Regression models and life-table.”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34(3): 187-220. Royal Statistical Society.

Kaplan, E. L. and Paul Meier. 1958. “Nonparametric Estimation from Incomplete Observ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3(282): 457-481.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Makki, S. Shiva and Agapi Somwaru. 2004.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de on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6(3): 795-801. America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온라인 자료>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 통합보고시스템. <http://stats.odakorea.go.kr/>.

국제농업인교류협회. <http://www.jaec.org/>.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농업정책보험금융원. <http://www.apfs.kr/>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식품모태펀드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hn?blogId=apfs0519&skinType=&skinId=&from=menu&userSelectMenu=true/>.

러시아연방통계청. <http://gks.ru/>.

일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http://www.inpit.go.jp/>.

일본국제협력기구. <http://www.jica.go.jp/>.

일본국제협력은행. <http://www.jbic.go.jp/>.

일본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

일본상공조합중앙금고. <http://www.shokochukin.co.jp/>.

일본상공회의소. <http://www.jcci.or.jp/>.

일본신용보증협회. <http://ci.nii.ac.jp/>.

일본무역보험. <http://www.nexi.go.jp/>.

일본무역진흥기구. <http://www.jetro.go.jp/>.

일본외무성. <http://www.mofa.go.jp/>.

일본정책금융금고. <http://www.jfc.go.jp/>.

주식회사 Farmdo(ファームドゥ). <http://www.farmdo.com/>.
주식회사 북해도종합상사(北海道総合商事). <http://www.hkdc.co.jp/>.
중국국가통계청. <http://www.stats.gov.cn/>.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http://www.smrj.go.jp/>.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http://stats.koreaexim.go.kr/>.
해외농업개발컨설턴트협회. <http://www.adca.or.jp/>.
해외농업개발협회. <http://www.oada.or.jp/>.
FAO. <http://fao.org/faostat/>.
OECD Country Risk Classifications. <http://www.oecd.org/trade/>.
The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2019.
<http://www.heritage.org/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8.
<http://www.transparency.org/cpi2018/>.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
World Bank Enabling the Business of Agriculture 2017. <http://eba.worldbank.org/>.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http://www.doingbusiness.org/>.
World Bank Logistic Performance Index 2019. <http://lpi.worldbank.org/>.

KREI

www.krei.re.kr

농업 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

Promoting Overseas Private Investments for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e Secto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93520
9 791161 493176
ISBN 979-11-6149-317-6